

연구보고서 2024-39

#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신윤정  
장인수·임지영·김현진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연구진

연구책임자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지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김현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4-39

##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발행일 2024년 12월  
발행인 강혜규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9년 4월 27일(제2015-000007호)  
인쇄처 (주)에이치에이엔컴퍼니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ISBN 979-11-7252-056-4 [93330]  
<https://doi.org/10.23060/kihasa.a.2024.39>

## 발간사

지속되고 있는 심각한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에 따라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가 보다 아동친화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OECD의 「Child-Friendly Neighbourhoods」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근접 환경이 중요하다는 시각하에 지역 단위에서 아동친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의 이니셔티브에 부응하여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을 국내에 소개하고, 활용 가능한 국내 지자체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지자체의 아동친화성을 평가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지역 소멸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아동 정책의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부분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신윤정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장인수 부연구위원, 임지영 전문연구원, 김현진 전문연구원이 공동 연구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유용한 자문 의견을 주신 본원의 이상정 연구위원과 육아정책연구소의 양미선 선임연구위원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2024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직무대행  
강혜규







요약 .....	1
<b>제1장 서론 .....</b>	<b>5</b>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0
<b>제2장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체계 .....</b>	<b>13</b>
제1절 서론 .....	15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 .....	17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모니터링 체계 .....	46
제4절 UNICEF 아동친화도시 소개 .....	74
제5절 소결 .....	86
<b>제3장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 .....</b>	<b>89</b>
제1절 서론 .....	91
제2절 OECD 지역 데이터 베이스와 공간 구획 단위 설정 .....	92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 .....	98
제4절 소결 .....	125
<b>제4장 OECD 아동친화동네 한국 자료 현황 분석 .....</b>	<b>129</b>
제1절 서론 .....	131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자료 현황 .....	134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현황 비교 분석 .....	157

---

제4절 소결 .....	209
<b>제5장 결론 .....</b>	<b>211</b>
제1절 연구 내용 종합 .....	213
제2절 정책 과제 .....	216
<b>참고문헌 .....</b>	<b>223</b>
<b>부록 .....</b>	<b>253</b>
[부록 1] OECD 아동 웰빙 체계 및 데이터 현황 .....	253
<b>Abstract .....</b>	<b>277</b>

# 표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표 2-1〉 OECD 회원 국가들의 아동친화적인 동네 이니셔티브가 다루는 주요 영역	52
〈표 2-2〉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57
〈표 2-3〉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60
〈표 2-4〉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63
〈표 2-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	80
〈표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이행 실적 평가 지표”	83
〈표 3-1〉 OECD 통계(OECD statistics) 내 지역, 농촌과 도시 개발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범주의 주요 자료 영역	93
〈표 3-2〉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 대상 국가의 TL2 단위의 수	98
〈표 3-3〉 각각의 분석 대상 국가의 TL2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비율 (2022년, 2023년 기준)	99
〈표 3-4〉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 최신 수치 (2022, 2023년 기준)	104
〈표 3-5〉 아동친화 관련 특성 변인 구축	106
〈표 3-6〉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 방법	107
〈표 3-7〉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미세먼지 농도)	109
〈표 3-8〉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미세먼지 농도)	111
〈표 3-9〉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청년실업률)	113
〈표 3-10〉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청년실업률)	115
〈표 3-11〉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17
〈표 3-12〉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17
〈표 3-13〉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120
〈표 3-14〉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122
〈표 3-15〉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123
〈표 3-16〉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125
〈표 4-1〉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자연	136

〈표 4-2〉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도로·교통지역·대중교통 .....	138
〈표 4-3〉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주거 .....	141
〈표 4-4〉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기술 인프라 .....	142
〈표 4-5〉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인구사회학적 구성 · 145	
〈표 4-6〉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	148
〈표 4-7〉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	150
〈표 4-8〉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보건의료 서비스 .....	153
〈표 4-9〉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교육 및 보육 서비스 .....	156
〈부록 표 1〉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	258
〈부록 표 2〉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웰빙 동인 지표 .....	264
〈부록 표 3〉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정책 지표 .....	272
〈부록 표 4〉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	273
〈부록 표 5〉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동인 지표 .....	275
〈부록 표 6〉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	276

# 그림 목차



[그림 2-1]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 도식화 .....	21
[그림 2-2] OECD 회원 국가 15세 이하 아동의 지역 소득 수준별 분포 .....	66
[그림 2-3] OECD 회원 국가의 지역 미세 입자 평균 농도와 15세 미만 아동 비중 .....	68
[그림 2-4] OECD 회원 국가의 지역 의사 분포와 지역 아동 비중 .....	71
[그림 2-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아동권리 접근법 .....	75
[그림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	76
[그림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 .....	77
[그림 2-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핵심 기준 3가지 .....	77
[그림 2-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	79
[그림 3-1] TL2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공간 구획 .....	95
[그림 3-2] TL3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공간 구획 .....	96
[그림 3-3]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 추세 (2005~2022년) .....	103
[그림 3-4]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미세먼지 농도의 변이계수 추세 (2005~2022년) .....	108
[그림 3-5]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미세먼지 농도) ..	110
[그림 3-6]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청년실업률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3년)	113
[그림 3-7]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청년실업률) ..	114
[그림 3-8]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0년) .....	116
[그림 3-9]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	118
[그림 3-10]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의 변이계수 추세 (2005~2020년) .....	119
[그림 3-11]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	121

[그림 3-12]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의 변이계수 추세 (2013~2022년) .....	123
[그림 3-13]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	124
[그림 4-1] 전국 및 광역 지자체의 인구 1인당 녹지 면적 .....	158
[그림 4-2]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159
[그림 4-3] 생활 공원 및 주제 공원 평균 접근 거리 .....	159
[그림 4-4] 연평균 환산 미세먼지 PM 2.5 노출 .....	160
[그림 4-5] 현재 체감 환경: 대기·하천·토양·소음진동, 빛공해·전반적 생활환경 .....	160
[그림 4-6]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자동차 천 대당) .....	162
[그림 4-7] 보건 시설(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163
[그림 4-8]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165
[그림 4-9] 문화 시설(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166
[그림 4-11] 주택당 거주 인원수와 1인당 방 수 .....	168
[그림 4-12]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2022년) .....	169
[그림 4-13]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2022년) .....	171
[그림 4-14]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2015, 2020, 2022년) .....	173
[그림 4-15] 1인당 지역총생산·1인당 지역총소득·1인당 개인소득(2022년) .....	173
[그림 4-16] 가구당 경상소득·가구당 자산·가구당 부채·가구당 순자산액(2022년) .....	175
[그림 4-17] 고용률 및 실업률(2023년) .....	177
[그림 4-18]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교 졸업 이상(2010, 2020년) .....	178
[그림 4-19] 주관적 소득 수준·소득 만족도·수준·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	179
[그림 4-20] 사회적 관계망 I (2023년) .....	181
[그림 4-21] 사회적 관계망 II (2023년) .....	182



[그림 4-22]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2023년) .....	183
[그림 4-23]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비율(2021, 2023년) .....	184
[그림 4-24] 국회의원 투표율(2016, 2020, 2024년) .....	184
[그림 4-25] 동료 성과 측정 지표 .....	185
[그림 4-26] 타살에 의한 사망률(2021~2023년 평균) 및 범죄 발생 건수 (2010, 2015, 2020년) .....	187
[그림 4-2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8, 2022년) .....	187
[그림 4-28] 경찰서·소방서·지진옥외대피소 평균 접근 거리 .....	189
[그림 4-29] 기대여명(2020, 2023년) .....	190
[그림 4-30] 사망률(2020, 2023년) .....	191
[그림 4-31] 인구 천 명당 의료 인력 수(2022년) .....	192
[그림 4-32] 보건 시설(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 평균 접근 거리(2021년) .....	193
[그림 4-33]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2005, 2010, 2015, 2020, 2023년) .....	195
[그림 4-34]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2010, 2015, 2020, 2023년) .....	196
[그림 4-35]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평균 접근 거리(2021년) .....	197
[그림 4-36] 문화 시설(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 평균 접근 거리(2021년) .....	198
[그림 4-39] 자연과 건축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	201
[그림 4-38] 자연과 건축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	202
[그림 4-39] 사회경제적 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	204
[그림 4-40] 사회경제적 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	205
[그림 4-41]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	207
[그림 4-42]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	208
[부록 그림 1]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 .....	259







## 요약

본 연구는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국내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교를 수행하고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현을 위한 OECD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국내 가용한 자료원을 소개하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자료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며, OECD 주요 회원 국가 간 비교 그리고 국내 지자체 간 비교를 통해 아동이 직면한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근접 환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OECD 아동친화동네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아동 웰빙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아동친화동네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접근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적 연계성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이슈와 개인화 및 고립 문제까지 다루고 있다.

OECD 주요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고, 청년실업률이 낮아서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아동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수

## 2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가 적고, 15~19세 고등학교 취학률이 낮아서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지역의 아동친화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OECD 주요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편중된 의료 시설과 보육교육 인프라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OECD 아동친화동네 3대 영역별 지표를 중심으로 가용한 국내 자료를 수집한 결과, 몇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 지표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한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자료를 기초로 아동친화동네의 주요 특성별로 17개 광역 지자체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고르게 아동친화성을 보여주는 지자체는 없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아동친화적인 요소가 부족한지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동친화동네의 세 가지 영역 중 한두 가지 특성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사회성과 연대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현을 위한 지역 자료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읍면동 등 보다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한다. 국제 비교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한국 자료가 OECD 데이터 베이스에 보다 많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 국내 자료가 꾸준히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지자체의 조사 수행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 측정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아동친화동네 지자체 시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OECD 아동친화동네 개념을 적용하고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친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 정책을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

넷째,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OECD 아동친화동네 체계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국내 자료를 OECD 회원 국가들에게 소개하여 상호 정책 대화를 통해 OECD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수집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친화동네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의 건축 환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자료는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용어: 아동, 웰빙, 지역, 저출산, 인구 변동, 아동친화도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 1 장

##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제 1 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속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2020년부터 50%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와 지역 인구의 감소에 따라 지역 간 생활 환경과 서비스 격차가 더 커지고 있으며, 대도시와 지방에서 모두 아동이 생활하는 동네의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다(정만수 외, 2023). 비수도권에서는 아동 수가 급감함에 따라 교육 시설, 어린이집, 소아과 의료 시설 등이 줄어들어 아동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수도권은 인구 밀집에 따라 공해, 교통 안전 사고, 유해 환경과 같은 환경 위험에 점점 더 많은 아동들이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자녀를 낳는 것을 주저하고 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지역 인구 소멸은 점차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 환경 및 지역적 격차를 파악하여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한 시점이다.

OECD WISE 센터(OECD 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는 2021년도에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 연구 성과물을 통해 아동 웰빙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OECD, 2021a). 이러한 작업에서 더 나아가 OECD WISE 센터는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이하 “아동친화동네”)」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동네”의 특성을 개념화하

고, 아동친화적인 동네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OECD, 2023c). 아동은 거주하고 있는 근접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동네” 중심적인 접근법에 따라 아동의 웰빙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는 생각에 기반하고 있다.

제47차 OECD 사회정책작업반회의에서 OECD WISE 센터는 지역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웰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데이터를 발표하였다(OECD, 2023c).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물리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에 대한 서비스의 3대 영역으로 구분하고, 세부 영역별로 측정 가능한 지표와 활용할 수 있는 OECD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인 지표 개발, 세분화된 지역 자료 발굴,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각 회원 국가가 피드백을 제공하고 OECD의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였다.

OECD의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는 아동을 둘러싼 지역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국내 현실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 주제이다. 동 프로젝트의 성과물을 통해 아동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 지자체 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아동 웰빙 증진과 인구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ECD 데이터 베이스는 국제적으로 검증된 지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 신뢰성 있는 분석 결과 도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OECD 회원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프로젝트에 동참하여 아동 웰빙과 관련한 국제적인 정의에 부합한 지역 단위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국내 지역 자료의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OECD 데이



터 베이스에 양질의 국내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이 아동의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하에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하에 아동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주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하였다.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가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sup>1)</sup>로 인증되었으며, 2024년 7월 현재 95개 지자체가 인증받았다(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d).

지금까지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국내 연구들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이태수, 2016; 남승연 외, 2016; 강은진 2017; 정재훈 외, 2020).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UN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목적으로 아동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도시를 구축하는 데 현실적인 목적을 두고 있어 지역 중심의 아동 정책의 추진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중요성이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지표 개발과 데이터 수집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지역 단위 자료 수집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아동친화적인 현황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지역 간 비교,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 아동친화동네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함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아동의 권리와 웰빙이 보장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기반으로 수집 가능한 국내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현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 한국의 위치를 확인하여 아동친화동네

1) 유니세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차별 원칙, 아동 최상의 이익, 생존과 발달의 권리, 아동 의견 존중의 4가지 일반 원칙을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 보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갖추고 성과를 보인 지자체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다.

구현을 위한 OECD의 이니셔티브에 기여하는 것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가 제시하고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가용한 자료원을 소개하여, 국내 지역 간은 물론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 자료의 발전 방향도 함께 제시한다. OECD 회원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와 국내 지역 간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하여, 아동이 직면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국내의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장 서론은 연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필요성, 연구 목적, 연구 내용과 연구 방법을 기술한다.

제2장은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소개한다. 아동의 웰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를 소개한다. 아동친화동네를 측정할 수 있는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를 검토하고, 아동친화동네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 국가 간 비교 분석의 사례를 소개한다.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국제기구의 노력으로서 유니세프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소개하고 국내 현황 및 평가 지표를 검토한다.

제3장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에서는 가용한 OECD 지역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아동친화동네 지표를 선정하여 OECD 회원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다. OECD 지역 데이터 베이스의 공간 구획 단위 설정을 검토하고 TL2 단위를 바탕으로 아동친화동네 특성

의 국제 비교를 수행한다. 비교 국가는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가 및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의 특성을 고찰한 후에, OECD 아동친화동네의 세 가지 범주를 준용하여 각 영역의 주요한 지표인 미세먼지 농도, 청년실업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수를 활용하여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다. 분석 방법론으로 아동친화동네 특성 변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이 계수를 추정하였으며, 아동친화동네 특성과 아동인구 비율 간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상관분석, 산점도 분석, 국가별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국가 간 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국내 아동친화동네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4장은 OECD 아동친화동네 영역별 지표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를 소개하고, 수집한 국내 자료를 기초로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동네 특성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본 후, 주요 특성별로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동네”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단위는 17개 광역 지자체로 하였다. 자료원은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및 관련 행정 부처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집계 자료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 조사 자료 중에서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함께 소개하였다.

제5장 결론은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과 정책적 방향성을 기술하였다.





## 제2장

###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체계

제1절 서론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모니터링 체계

제4절 UNICEF 아동친화도시 소개

제5절 소결



## 제 2 장

#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현재 OECD가 추진하고 있는 OECD 아동친화동네(OECD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프로젝트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를 소개한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OECD 고용사회노동국(OECD Directorate for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이 추진해 온 아동 데이터 수집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다.

OECD 고용사회노동국은 2000년대 말부터 아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OECD는 아동 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영역에 대한 양질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아동 정책은 통계 자료 등 실증적인 자료와 분석 결과를 근거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혹은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와 같은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 많은 OECD 국가들이 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한 OECD Family database가 네 번째 대영역인 “아동 성과”에서 아동 보건, 아동 빈곤, 교육 및 문해력, 사회 참여의 네 가지 주제에 대해 지표를 구성하여 아동 자료를 수집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아동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에 많은 한계가 남아 있다.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와 함께 OECD에서 아동에 대한 연구가 발달하게 되었으며, 아동 정책을 아동 웰빙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것이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2022년도에 설립된 OECD WISE 센터(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를 중심으로 아동 웰빙 측정 체계가 개발되고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과 OECD 아동 웰빙 계기판(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OECD, 2024a).<sup>2)</sup>

OECD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OECD의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되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다. 지금까지 OECD가 수집한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과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이 국가 단위의 자료를 수집하여 OECD 회원 국가 간에 비교를 가능하게 하였던 것이라면,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네”라는 지역 단위에 초점을 두고 OECD 회원 국가의 지역 자료를 수집하는 데 차별성이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프로젝트는, 아동은 거주하는 근접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바가 크기 때문에 “동네” 중심적인 접근법에 따라 아동 웰빙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에서 출발하였다.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격차와 불평등이 아동 웰빙을 포함한 생애 과정과 기회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 국가 내의 지역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지역 간 격차의 국제 비교를 통해 아동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심각한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직면한 우리나라가 OECD 아동친화동네 체계에 따라 아동이 직면한 지역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아동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와 중요성에 기반하여 본 장에서

---

2)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에 대한 소개는 [부록 1]을 참고 바람.



는 OECD가 제시하고 있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체계를 소개하고 국제 비교 및 한국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현황을 검토한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친화적인 환경 구축을 위한 유니세프의 노력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 OECD의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에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 및 지역 간 비교를 수행한다면 상호 보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아동친화적인 도시 혹은 동네의 구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 본 장에서는 유니세프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및 체계를 소개하고 인증 및 평가를 위해 활용되고 있는 지표를 살펴본다.

##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sup>3)</sup>

### 1. 아동 웰빙을 위한 지역 중심 접근법의 중요성

아동의 웰빙은 특히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OECD, 2021a). 아동은 가족, 학교, 지역사회, 동네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한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 간의 불평등 정도는 작지 않고 이것은 아동의 직접적인 웰빙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과 기회에도 영향을 준다(Brandén et al., 2022; Chetty &

3) 제47차 OECD 사회정책작업반회의에서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의 주제하에 지역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웰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데이터를 발표하였다(OECD, 2023c). 본 장에서는 여기서 발표된 내용과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였다.

Hendren, 2018; Laliberté, 2021). 동네의 불평등은 사회적 이동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미국에서 아동이 사회적 수직 이동을 하는 데 동네 특성이 미치는 영향력이 부모 소득이 미치는 영향의 약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Chetty & Hendren, 2018).

취약한 동네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웰빙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Minh et al., 2017; OECD, 2021a; Leventhal et al., 2009). 취약한 동네에서 거주하는 것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좌우하여 저체중, 만성 호흡기 문제, 높은 코르티솔 수준, 우울증, 집에 틀어박히기, 수면 문제 등으로 발현될 수 있으며,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배경을 가지고 있거나 다양한 형태의 취약성을 가진 동네에 살고 있는 아동에게서 이러한 특징들이 현저하게 나타난다(Roubinov et al., 2018; Xue et al., 2005; OECD, 2021a).

열악한 동네 환경은 아동의 언어 발달, 학교 출석, 행동에 영향을 주어서 아동의 인지적인 사회정서적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Minh et al., 2017; Christian et al., 2015). 미국의 지역 자료에 따르면, 표준 편차에서 벗어나는 좋은 동네에 거주하는 것은 저소득 가구에 거주하는 9세 아동이 낮은 가족 소득으로 인해 경험하는 인지적 및 사회정서적 성과의 격차를 약 20% 감소시킨다(Donnelly et al., 2017).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네는 아동의 외로움, 삶의 만족도, 내재화 증상의 변이 중 약 1~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rquez et al., 2023; Marquez et al., 2024).

어린 시기에 취약한 동네에서 성장하는 것은 아동의 성장 이후의 삶에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체중 출생과 같이 영아기의 건강 문제는 인지력, 주의력, 신경 운동 기능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동네는 아동의 규범, 기대, 선택, 동료 효과를 형

성하게 하여 열악한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이 교육에 덜 투자하게 한다 (Calvó-Armengol et al., 2009; Conley et al., 2024; De Giorgi et al., 2007). 지역의 사회적 규범은 어린 연령에 결혼하거나 출산하게 할 수 있다(Buyukkececi, 2022; Furstenberg Jr. 2010; Harding et al., 2021; Chetty et al., 2016; Chetty and Hendren, 2018). 동네의 특성은 아동의 노동 성과에 영향을 주어서 지역사회에서 첫 직장을 갖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지역의 노동시장 환경이 열악한 취약 동네는 아동이 직장 경험을 일찍 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 (Deutscher, 2018).

## 2.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

다양한 지역의 요인들이 아동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이, 어떻게, 그리고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지 판별하는 것은 어렵다. 게다가 동네의 많은 특징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고 아동 웰빙에 함께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분명히 하고 서로 다른 영향력을 분리해 내는 작업은 쉽지 않다. 동네의 유형과 개인 혹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특정한 동네의 특성이 더 현저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본 절에서는 OECD(2023c)가 마련한 아동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개념적 체계를 소개한다. OECD(2023c)는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의 웰빙과 사회적 이동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하며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동네의 특징들을 제시하였다. 아동의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동네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연과 건축 환경이다. 이것은 아동이 자라나고 경험을 형성하는 공간이다. 아동은 자연과 놀고 즐길 수 있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고 아동

과 아동 양육자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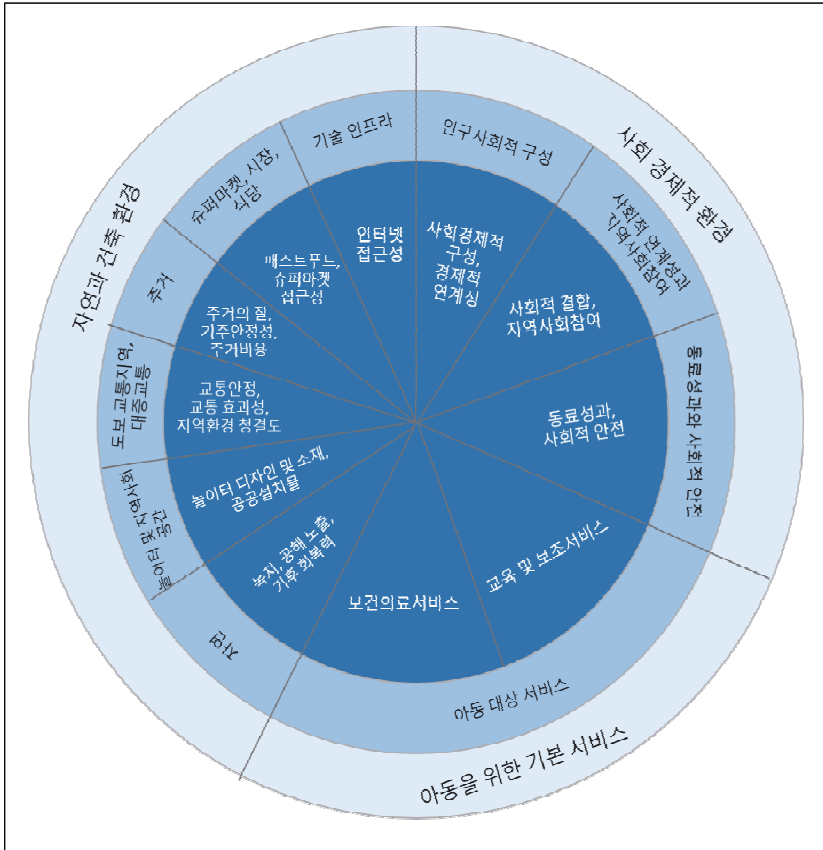
둘째, 사회경제적 환경이다. 이것은 동네의 사회경제적 구성,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 연계성 및 지역사회 참여로서 아동의 행동, 웰빙, 기회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아동을 위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다. 동네는 보건 시설, 교육 및 보육 시설,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것은 가족과 아동의 발달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은 그 자체로 아동의 웰빙과 발달에 영향을 주지만 서로 간에 상호 작용을 하기도 한다. 공원과 놀이 장소는 아동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과 만나서 사회적 연대와 연결성을 형성하게 할 수도 있다. 동네의 안전감에 따라 부모의 훈육 방식도 달라지며 이는 자녀의 독립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아동이 다른 사람과 접촉하여 관계를 갖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아동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상호 연계성은 동네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각각의 요인들이 아동의 삶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다(Brandén et al., 2022; Pickett, 2001; Galster, 2011). 아동에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위해서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 안에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지역사회 정책은 동네의 다양한 요인들을 함께 다루는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림 2-1]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 도식화



주: 연구진 작성

## 가. 자연과 건축 환경

아동이 살고 있는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건강,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 도시의 설계, 공간적 배치, 자연에 대한 접근성, 지역사회 장소, 교통 체계, 교통 안전 등 모든 것이 아동의 건강과 주관적인 웰빙에 영향을 준다(Wallerich et al., 2023). 동네의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인 구조물을 “자연과 건축 환경”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이것은 아동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녹지 공간, 도보 혹은 자전거 도로, 레크리에이션 시설, 거리 교통량이 적은 것은 아동의 신체적인 활동과 사회정서적 경쟁력과 긍정적으로 관련되어 있다(Koohsari et al., 2013; Committee on Environmental Health, 2009; Pellegrini, 2009; Ferguson et al., 2013; Egli et al., 2020). 반면에 취약한 동네는 덜 호의적인 건축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녹지 같은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Astell-Burt, Feng et al., 2014).

동네에서 아동의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공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외에도 공간의 안전성, 접근성, 질적 수준이 높아야 한다. 안전하고 쓰레기가 없는 놀이 공간이 혼잡한 도로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부모가 자녀들을 밖에서 놀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들은 아동과 양육자들이 접근 가능하고, 이용 비용이 부담할 만해야 하고, 즐거운 장소이어야 하고, 다양한 연령의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시각과 선호를 반영하여 아동의 필요에 부응한 공공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놀이 장소와 아동의 사회화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 동시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과 음료의 제공을 최소화해야 한다(Egli et al., 2020).

## 1) 자연

### ① 녹지

공원, 산책길, 식물, 강, 호수 등 도심에서의 자연은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다. 자연에 가깝게 거주하는 것, 즉 공공 녹지에 가깝거나 녹지가 많은 동네에 사는 것은 아동의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Balseviciene et al., 2014).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열린 공간은 아동이 밖에서 신체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선행 연구 결과는 자연에 노출되는 것과 아동 성과 간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자연과의 접촉은 사망률, 심장혈관질환, 체중, 비만, 당뇨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 장애(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증상을 완화시키고, 신체 활동, 인지적 발달, 자제심, 스트레스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 안전감, 감정 상태,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Mouratidis, 2021; McCormick, 2017; Faber Taylor & Kuo, 2011). 한편, 자연 특성이 아동 웰빙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아동과 가족 특성에 따라 달라서, 아동의 연령과 성별, 가구 소득, 모의 교육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stell-Burt, Mitchell et al., 2014; Alderton et al., 2019; Sandy et al., 2013).

자연은 부모와 양육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간접적으로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임신 기간 동안 자연에 노출되는 것은 저체중 출산 위험을 줄이고 아동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 문제를 갖는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Islam et al., 2020). 녹지는 성인 부모가 더 건강하고 활발한 삶을 영위하게 하여 부모 역할을 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Gascon et al., 2015).

동네의 자연과 공원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분석한 연구들은 “자연”을 어떻게 정의하고 아동 성과의 범주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었는가 등 연구 설계 방식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Balseviciene et al., 2014; Alderton et al., 2019). 자연이 아동 성과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는 안전과 쓰레기 없는 환경 등 자연 공간의 질적인 측면에 크게 달려 있다. 자연도 유형에 따라서 다른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식물 종류는 아동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천식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다(Islam et al., 2020).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수의 연구들이 많은 공원 과 산책길이 아동의 신체적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이러한 자연 공간들이 안전하고 마음을 끌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자연의 놀이적인 요소는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자연에의 근접성과 접근성은 자연 공간을 많이 이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네에서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의 최적치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Feng & Astell-Burt, 2017; Wu & Plantinga, 2003). 자연 공간은 아동과 양육자의 정신적인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만 아동의 천식 유병률을 높일 수 있는데, 공원 같은 자연 공간은 넓지만 거리 혹은 공공 장소에 나무가 부족한 경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Xing et al., 2023. Lovasi et al., 2008). 자연에 대한 접근성과 질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도 동네의 자연적인 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 ② 공해 노출

환경 독소(수은, 납), 오염된 물과 공기, 소음과 빛 공해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며, 특히 신체적 발달이 취약한 아동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은은 뇌의 성숙 등 아동 발달의 다양한 측면을 교란시킬 수 있다. 수은은 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물질 혹은 가까운 산업 방시물을 통해 흡입될 수 있으며, 수은이 포함된 많은 양의 생선을 먹을 때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Goldman et al., 2001). 아동기에 높은 공해 수준에 노출되는 것은 폐활량 감소, 높은 혈압, 천식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신체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인지 발달과 정신 건강까지 위해를 줄 수 있다(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2017;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23). 소음과 빛 공해는 아동의 스트레스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수면을 방해하고 인지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Gascon et al., 2016;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2019).

공해가 미치는 영향은 아동마다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공해가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공해에 많이 노출된 아동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아동이나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Suarez Castillo et al, 출판 예정). 도로 교통 소음이 아동 스트레스 수준에 미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산아와 높은 만성 스트레스를 가진 아동들이 도로 교통 소음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Lercher et al., 2013).

공해는 출산 전 시기와 영유아기에 더 해로울 수 있어서 건축 공간을 설계할 때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주거 관련 공해 물질은 아동이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더 위협적일 수 있다(Wallerich et al. 2023). 약 1미터 정도의 아동의 키 높이에서 공기의 질을 측정하는 것이 아동에게 노출된 교통 배출물을 더 잘 포착할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은 아동친화적인 거리를 설계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녹지 공간과 녹지로

걸어갈 수 있는 것과 같은 아동친화적인 동네의 특성들은 공해와 소음 공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아동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 기후 회복력

아동친화적인 동네에 기후 변화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0년에 태어난 아동은 1960년에 태어난 아동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산불 위험이 두 배, 홍작 위험이 2.8배, 가뭄 위험이 2.6배, 강 범람 위험이 2.8배, 혹서기 위험이 6.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hiery et al., 2021).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은 기후 변화에 따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Adrian et al., 2020). 기후 위험이 큰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보육 시설 혹은 의료 시설 등에 가는 것에 어려움을 갖는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에 노출된 아동들은 주요한 시설의 파괴로 인해 식생활과 주생활이 안정적이지 않고 학교에서 학습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환경 문제에 직면한 아동들은 영양가 높은 식사를 하지 못해 심신의 건강에 피해를 입고 각종 질병에 시달릴 수 있다.

건강 관련 위험들은 증폭될 수 있어 극단적인 더위에 노출되면 조산, 저체중 출산, 낮은 학업 성적을 가질 위험을 높일 수 있다(Huang et al., 2021; Park et al., 2020). 더위는 공해가 주는 위해를 한층 더 높여서 아동에게 보다 심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2023). 기후 변화는 지역사회와 경제를 불안정하게 하여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Adrian et al., 2020).

기후 변화가 주는 이러한 도전을 알리기 위해 기후 변화 위험을 측정하

는 자료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Maes et al., 2022). 자료의 구축은 어떠한 특정한 지역의 아동들이 기후 변화 관련 위험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기후 변화 자료들은 건축 환경 자료들과 함께 구축하여 기후 회복적인 인프라 구축과 필수적인 공익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어느 지역에 필요한지 판별하고 기후 위험이 있는 지역의 개발을 막는 데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기후 변화에 피해를 받은 인구 집단의 잠재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불가피한 위급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비상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2) 놀이터와 지역사회 공간

양질의 놀이 공간에 대한 접근은 영유아가 놀고, 신체적 활동에 참여하고, 다른 아동들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데 필수적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놀이터는 아동들의 방문과 사용을 증가시켜 신체적 활동을 더 많이 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Smith et al., 2017). 서로 다른 표면 유형, 개방형 구조, 이동성 있는 장비, 식물이 심어져 있는 놀이 장소는 전통적인 유형의 놀이터보다 더 많은 아동들이 와서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준다(Cohen et al., 2023).

특정한 공공 오락 시설은 아동의 신체적인 활동과 공공 장소 이용을 독려하는데,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동네에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Crawford et al., 2008). 벤치, 공공 화장실, 피크닉 식탁, 식수대, 그늘막, 쉼터는 산책과 야외 활동을 더 독려할 수 있다. 표지판과 길 찾기 수단은 어린이가 읽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배치해야 한다(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s, 2019). 놀이터와의 거리는 아동이 공공

장소로 접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린 자녀와 함께 이동하는 경우 이동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편리한 목적지를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Villanueva et al., 2016). 공원과 지역 공간에 대한 물리적인 접근성은 아동이 어릴 때 특히 중요하다.

### 3)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

보행 편의성은 아동친화동네의 중요한 요소이다. 보행 편의성은 얼마나 빨리 지역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걸어서 얻을 수 있는가, 지정된 도보가 있는가, 그리고 걸을 때 안정감이 있는가 등이 포함된다. 보행 편의성이 있어야 아동이 활동적인 생활을 할 수 있고 놀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체중을 조절하고 비만 위험을 낮출 수 있다(Duncan et al., 2014; Jia et al., 2019; Cohen et al., 2023). 성인 역시 걸어나므로써 더 건강해질 수 있고 타인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동네에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은 우연한 만남을 촉진하여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고 아동의 사회화 및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정서적 기술을 개발하게 할 수 있다.

거리의 안전성, 공공 공간, 교통 지역은 아동이 동네를 걸어 다닐 수 있고 가능한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선결 조건이다. 안전감은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개념이다. 교통 지역의 신체적 안전감은 아동 웰빙에 필수적인 것으로 OECD 국가에서 도로 상해는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망과 신체적 장애를 가져오는 주요한 원인이다(Global Burden of Disease Pediatrics Collaboration, 2016; OECD, 2021b). 안전감은 사회적인 측면도 포함하고 있어 폭력, 기물 파손, 범죄 같은 위험에 대한 노출과도 관련된다. 사회적 측면에서의 안전감은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

경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거리 디자인도 아동 웰빙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 교통량이 많은 거리가 있는 동네에 사는 5세 아동들은 바깥 활동에 더 많은 제약을 느끼며 사회적 네트워크가 적고 사회적 및 운동 발달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Hüttenmoser, 1995). 거리의 교통 혼잡, 극심한 소음, 공해는 아동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Leyden et al., 2023).

영유아와 양육자를 위하여 교통 체계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대중교통 수단은 통학길에 여러 정거장이 있어야 하며 자전거, 운전, 도보 등 서로 다른 교통 수단과 조합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출근길에 아동을 학교에 데려다줄 수 있어야 하며, 한 번 가는 길에 여러 가지 가족 관련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교통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공공 교통 수단과 자전거 혹은 도보길은 더 넓고 지정된 장소를 필요로 하는 가족의 욕구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놀거나 보호자와 나란히 걸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며 유모차를 밀기 위해서는 도로 바닥이 평평해야 한다(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2019). 안전하고 짧은 통학 거리는 아동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양육자의 일상적인 돌봄 노동을 줄여서 정신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자녀의 욕구에 더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한다(Leyden et al., 2023). 취약한 동네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고 제대로 기능하는 공공 교통 수단에 접근하기 어려우며 주민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OECD, 2018a).

교통 체계의 효과성은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관심 있는 장소(학교, 병원, 가게, 식당, 레크리에이션 장소, 녹지 공간, 다른 사람 등)에 도달하는 시간으로 측정된다. 거리와 공공 교통 체계의 아동친화성은 아동

교통사고 같은 교통 안전성 지표로 측정될 수 있으며, 양육자가 느끼는 안전성 같은 주관적인 측정치를 이용하기도 한다. 부모가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활동하거나 자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자제할 것이다.

#### 4) 주거

주거 조건은 거주, 따스함, 휴식, 안전감에 대한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 아동 건강과 발달에 직결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OECD, 2021b; Clair, 2019; Coulton et al., 2016). 밀집하고 불결한 주거 조건(주요 설비 부재, 심하게 어두운 실내, 실내 습기, 곰팡이, 추위, 납 등 환경 독소 등)에 노출되는 것은 감염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특히 면역 체계가 발달하는 아동기에는 이러한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OECD, 2021b; Beasley et al., 2015). 열악한 주거 조건은 부모의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부모 역할을 하는 능력을 제한하여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Coley et al., 2013). 질 낮은 주거에서 성장하는 아동들은 정서적 및 행동적 문제를 경험할 위험이 높고, 낮은 정신 보건 성과를 보인다(OECD, 2021b; Evans, 2003). 주거의 질은 아동의 웰빙과 관련이 높다. 열악한 주거 조건은 가정의 생활 환경(가구의 밀집성을 측정할 수 있는 가구 내 가구원 수, 습기, 곰팡이, 난방의 어려움, 열악한 위생 상태 같은 물리적 조건 등), 아동의 혈액 혹은 치아 속 납 수치, 주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세금 및 시장 가치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주거 환경은 주거지의 사회적 환경이 미치는 영향과도 연관이 있다. 공공 주택이 집중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더 높은 범죄율과 실업률을

경험한다. 이러한 지역은 낙인을 받고 낙인이 내재화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존감을 낮출 수 있다. 주거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범죄율이 높고, 안전한 놀이 공간이 부족하며, 어린 아동이 독립적으로 바깥에서 노는 것을 감시하기 어렵다(Whitzman & Mizrachi, 2012; Evans & Ferguson, 2011). 이러한 조건은 아동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동네 아동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약한다. 주거 밀집도가 낮은 지역은 이동이 어렵거나 잘 작동하는 교통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적 연계성을 저해할 수 있다.

주거와 관련하여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특성으로 주거 불안정성과 주거비 부담이 있다(Coulton et al., 2016; Goldfeld et al., 2018). 주거지를 자주 바꾸는 것은 아동의 일상성을 저해하여 동네에 대한 소속감을 낮추어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다(Snedker & Herting, 2016). 주거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주택 소유율, 공실률, 주택 시장 침체 지표를 대리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소득에서 주거 비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아동의 기본적인 필요에 충분히 돈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 5) 슈퍼마켓, 시장, 식당

영양가 있고 비용 부담이 적당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은 동네마다 다양하고 이것이 아동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이 패스트 푸드에 가깝게 노출되어 있을수록 높은 체중을 보인다(Hoyt et al., 2014; Qian et al., 2017). 대형 슈퍼마켓과 아동 체중 간의 관계는 체계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가를 중심으로 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24개 선행연구 중에서 절반이 슈퍼마켓과 비만

간에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분의 1 정도가 긍정적인 관계, 그리고 나머지 연구들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Zhou et al., 2019). 연구자들은 슈퍼마켓이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수 있다고 보았다. 슈퍼마켓과 아동 비만 간의 관계는 연령, 젠더, 가구 소득 같은 사회경제학적 특성과 다른 사회적 요인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슈퍼마켓에 대한 접근성은 아동친화동네를 측정하는 적당한 지표가 아닐 수 있지만, 비용이 적절하고 건강한 음식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동네의 특성은 아동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도시 계획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 6) 기술 인프라

물, 에너지, 쓰레기 관리 같은 기술적인 인프라는 아동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며 레저 활동을 연계하여 아동 웰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회원 국가들의 많은 국민들이 부적절한 기술적인 인프라에 노출되어 있다(OECD, 2023a). 인터넷이 생활에 점차 많이 도입됨에 따라서 디지털 인프라가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었다. 아동은 인터넷을 사용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형성하여 오프라인 관계, 사람들과의 접촉, 사회적 자본을 강화할 수 있다. 인터넷은 광범위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 타인과 연결해 줄 수 있어 사람들이 외로움과 사회적 배제를 극복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에 거주하는 아동의 약 5.4%가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격차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Ayllón et al., 2023).



## 나. 사회 경제적 환경

동네의 사회경제적 환경은 주민들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주민들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풍토를 포함한다. 사회경제적 환경은 사회화, 친구 맺기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아동 웰빙 기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경제적 구성, 사회적 지지, 동네의 결속력은 아동 건강 성과의 약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ellström & Bremberg, 2006). 사회경제적 환경은 아동의 규범, 태도, 열망, 사회적 네트워크, 미래 고용 기회에도 영향을 준다.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에게 동네와의 상호 작용은 특히 중요하다. 취약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은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들보다 동네 안에서 생애 전반에 걸쳐 친구를 형성하는 경향이 높다(Chetty et al., 2022b).

동네는 부모 역할을 통해서 아동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은 낮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아동에게서 더 현저하다. 아동 성과에 영향을 주는 부모 역할은 동네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동네 안에서 경제적 어려움은 가족 스트레스, 정서적 지원의 약화, 지속적인 양육 전략의 중단, 자녀의 인지적 발달에 투자할 수 있는 부모의 시간과 자원을 제약한다(Canfield et al., 2022; Shuey & Leventhal, 2019; Byrnes & Miller, 2012; Kohen et al., 2008; Ferguson et al., 2013). 경제사회적 어려움의 빈도가 높은 동네에 사는 것은 아동의 발달적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Jagannathan et al., 2023). 동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부모 행동에도 영향을 준다. 사회적 결속력이나 부모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동네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동네의 위험들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를 더 엄격하게 감독하고 훨씬 권위적인 양육 행태를 보인다(Doepke & Zilibotti, 2019). 동네의 특성과 부모 행동 간의 상호 관계는 사회경

제적 환경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다차원적임을 말해준다.

## 1) 인구사회적 구성

### ①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

동네는 아동에게 다양한 역할 모델을 보여주며, 성인들의 교육 수준과 고용 환경은 아동에게 규범, 타인에 대한 행동, 교육 및 일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다(Bozick & DeLuca, 2010; Goldfeld et al., 2018). 역할 모델은 사회적 지지와 정보 같은 자원을 제공하며 학교와 미래 노동시장에서의 아동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Ainsworth, 2002; Chapple, 2006).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는 향상시키지만, 높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청년들에게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 모델과 지도가 부분적으로만 가족의 지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Resnjanski et al., 2023). 네덜란드와 칠레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아동보다 약간 연령이 높은 동네 주민이 아동의 대학교 등록률과 학업 및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ríos-Fernández, 2022; Avdeev et al., 2023). 집중된 불이익은 아동의 건강, 교육, 웰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더욱 심화시키고 이러한 영향은 특히 빈곤한 가정 내의 아동에게서 현저하게 나타난다(Wodtke et al., 2016; Leventhal & Brooks-Gunn, 2000). 전반적으로 볼 때 동네의 사회경제적 구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국가마다 다양하다. 미국과 호주에서 동네의 사회경제적 구성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나(Chetty & Hendren, 2018; Christian et al., 2017), 스웨덴에서는 동네의 사회경

제적 지위가 아동의 사회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대부분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달려 있었다(Brandén et al., 2022). 네덜란드에서는 부유한 동네에 사는 것이 가난한 동네에 사는 것보다 아동의 교육 성취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roost et al., 2023). 이것은 네덜란드에서는 빈곤이 극심하게 집중된 지역이 많지 않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아동의 자원, 기술, 교육적 열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해준다.

동네의 사회경제적 구성의 중요한 특징인 소득과 관련된 정보에는 고소득 주민 비중, 소득 불평등도, 전문가 비중, 빈곤 가구 비중, 정부 지원을 받는 가구 비중, 실업률 등이 있다. 지역 환경이 제공하는 경제적 및 사회적 기회에 대한 측정치는 고등 교육 졸업자 수, 고등학교 퇴학자 수, 한부모 가구 비중 등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은 세대 간 계층 상승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Jagannathan et al., 2023; Chetty et al., 2018). 전반적으로 볼 때 동네의 사회경제적 구성 요인은 아동의 건강, 행동 결과, 학업 성취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관련성은 가구 소득과 부모의 교육 수준을 통제하고 나서도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Baum et al., 1999; Leventhal & Brooks-Gunn, 2000).

이상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아동과 가족이 살고 있는 환경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아동의 삶의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없다. 미국에서 아동의 친구 범위, 즉 높은 사회경제적 집단과의 연계성(“경제적 연계성”)은 경제적 지위 상승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예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etty와 그 동료들은 페이스북 자료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부모를 둔 아동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를 둔 아동과 연결되어 있었던 경우, 이러한 연결이 없었던 아동과 비교하여 성인의 소득이 평균적으로 약 20%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Chetty

et al., 2022a). 이러한 연구 결과는 경제적 연계성이 동네의 평균 소득, 교육 수준 혹은 가구 구성보다 경제적 이동성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말한다.

## 2)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 ① 사회적 결합,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결속력과 지역사회 참여는 아동 웰빙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아동이 개인적 관심사와 사회적 활동을 추구하기 위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 밖 동료 집단 및 성인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한다(Mckendrick, 2014). 사회적 연계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아동은 서로 다른 계층과 교류하고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다(Chetty et al., 2022a).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공 장소가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공공장소에서 아동과 성인은 안전하게 만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는 앞 절에서 논의한 건축 환경의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 결속은 아동의 발달과 웰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신 건강 및 신체적 건강과 함께 아동의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준다(Marquez et al., 2024). 메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네 소속감, 사회적 결속감 및 집단 효능감이 부족한 경우 언어적, 인지적, 행동적 성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nh et al., 2017). 미국에서 동네가 도움이 되고 자신들을 돌본다고 응답한 여학생들은 결속력이 낮은 동네에 거주하는 여학생들보다 체중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cTigue et al., 2015).

사회적 결속감은 낮은 안전감 등 동네가 주는 불이익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상쇄시킬 수 있다. 영국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결속은 취약한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부유한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Odgers et al., 2009). 미국에서 사회적 결속은 아동의 학업 회복 탄력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Jagannathan et al., 2023). 여기에서 사회적 결속은 동네에 대한 신뢰, 동네에서 받는 지지에 대한 인식,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지, 동네에서 일어나는 폭력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밖에 보내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으로 측정하였다.

방과 후 활동 같은 지역사회 참여는 아동의 주관적인 웰빙 수준을 향상시키며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 심리적인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특히 친구 관계의 질적 수준이 낮은 아동에게서 크게 나타났다(Wang et al., 2023; Marquez et al., 2024). 하지만 지역사회 참여 활동은 가족 구조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서 다양하며 문화적인 차이에 크게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직면하는 재정적인 제약은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Hjalmarsson, 2023). 아동의 지역사회 참여는 자원봉사 활동을, 클럽과 사회 멤버십 참여율, 협회 및 클럽의 수와 규모 등의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

### 3)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아동들은 독립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래 집단과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또래 집단이 아동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이 점점 더 커지고 반면에 부모가 아동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한다(Dallago et al., 2009; Hidalgo & Hernández, 2001; Agostinelli et al., 2020). 아동이 생각하는 규범은 또래의 행동에 의해서 형성되는데, 예를 들어 또래 집단이 교육에 가치를 두지 않으면 아동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선택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다(Calvó-Armengol et al., 2009; Conley et al., 2024; De Giorgi et al., 2007). 미국 흑인 지역 사회의 높은 청소년 임신율은 여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고 낮은 교육 성과를 보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Akela & Jordan, 2014). 동네에서 갱단의 폭력은 청소년 범죄와 비행을 증가시킨다(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7). 청소년 범죄와 구금, 투옥은 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직면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폭력 범죄, 청소년 범죄, 약물 남용 같은 범죄율은 동네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아동 성과와 연관하여 측정될 수 있다. 범죄율은 신체적인 활동 감소를 유발하며(Kneeshaw-Price et al., 2015; Janssen, 2014; Constable Fernandez et al., 2023), 높은 범죄율은 뉴욕 아동의 낮은 공원 이용률(Huang et al., 2020), 영국 아동의 높은 체중(van der Zwaard et al., 2018), 호주 아동의 많은 인터넷 이용 시간(Baldwin et al., 2022)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근처에 산책길이 있는 것은 범죄율이 낮을 경우에만 체중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Sandy et al., 2013). 동네의 높은 범죄율은 아동의 환경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감을 낮추어 높은 비행 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Leventhal & Brooks-Gunn, 2000; OECD, 2021a). 높은 범죄율은 낙인 효과를 가져와 범죄율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을 다른 동네 사는 아동과 다르게 다루고 평가받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동의 웰빙과

미래 열망에 결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Goldfeld et al., 2018).

범죄율 같은 객관적인 통계 이상으로 아동과 부모가 동네의 범죄와 안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인식은 공원 사용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네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은 아동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독립적인 활동을 하게 하지 않는다(Foster et al., 2014). 인식하고 있는 안전성과 실제적인 범죄율 간에 항상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Balkin, 1979), 안전성에 대한 주관적인 측정치를 추가하는 것은 동네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게 할 수 있다. 동네 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지표로 경찰 민원 보고, 기물 파손 사건, 안전한 차량 속도, 충분히 넓은 포장 도로 및 자전거 도로 같은 도로 설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건축 환경 개선을 통해 동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공실률은 범죄에 대한 높은 두려움을 유발할 수 있다. 주거지를 향상하고 녹지를 넓히는 것은 동네의 범죄를 낮출 수 있다(Donovan & Prestemon, 2010; Kuo & Sullivan, 2001; South et al., 2021). 주거 디자인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거리에 설치된 조명등, 청결함, 활발하지만 밀집되지 않은 공공장소는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 연관성을 향상시켜 안전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다.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의 제공은 아동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아동과 가족이 정보, 지식, 기술, 사회적 지지 같은 자원을 보유하여 아동의 생애 초반에 안정적인 출발을 하고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맞서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Frazer et al., 2020; OECD, 2019;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1). 많은

국가들이 영유아기 아동과 가족에 초점을 둔 서비스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아동 발달과 잠재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초기 문제가 나중에 더 심각한 문제로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OECD 회원 국가들은 상호 연계되어 있는 지속적인 지원을 향상시켜서 아동과 부모의 필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Riding et al., 2021; Dirwan & Thévenon, 2023).

OECD는 영유아기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로 다음의 세 가지 범주를 제시하였다. 첫째, 보건 서비스이다. 보건 서비스는 여성과 자녀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전 및 산후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 예방 접종과 건강한 발달을 위한 건강 검진 같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보육교육 서비스이다.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보육교육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신체적 발달과 조기 학습을 도모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감소할 수 있다. 셋째, 아동과 가족을 위한 사회 서비스이다. 이는 보건 서비스와 보육교육 서비스 이외의 가족, 사회, 심리적인 필요를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는 국가마다 다양하다(Riding et al., 2021). 여기에는 아동 보호 서비스, 부모 기술, 아동 웰빙, 정신 건강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과 가족 대상 사회 서비스의 목적은 아동과 가족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조화롭게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아동 대상 서비스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서비스들은 아동의 집 근처에서 쉽게 이용 가능해야 하고, 이용 비용이 적절해야 하고,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이 높아서 가족이 자녀를 믿고 맡길 만해야 하며, 장애와 같은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에 맞추어 제공되어야 한다. 영유아를 대상으



로 제공하는 보건, 보육교육, 가족 지원 서비스들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설계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들은 지자체 간에 차이가 있어서 국가적인 수준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국제적인 비교를 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Riding et al., 2021; Almeida et al., 2024).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선택된 범주 내의 서비스에 대하여 데이터와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지역의 수요 및 지역의 아동 필요에 부합하고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지역에서 제공되고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 1) 아동 대상 서비스

### ①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시설에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아동들은 그렇지 못한 아동에 비해 더 건강할 가능성이 크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아동 간의 건강 격차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하며 나이가 들수록 커진다. 아동기의 건강 문제는 아동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교육이나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Eriksen et al., 2023). 네덜란드에서 동네의 건강 수준은 공간적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어 아동 보호자, 동네 주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Dekker et al., 2020). 예를 들어, 소아과 의사는 아동에 대한 일차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아동과 양육자의 인식과 건강 습관을 향상하는 데 도움을 준다(Jutte et al., 2021). 부모가 건강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갖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작용을 향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가 좋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높은 접근성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높일 수 있으며 두려움과 사회적 위축 등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를 낮출 수 있다(Marquez et al, 2024).

아동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개발은 예방적인 정책과 치료적인 정책 모두를 필요로 하며 아동기의 서로 다른 단계를 포괄해야 한다. 예방적인 정책은 잠재적인 건강 문제가 조기에 발견되었을 때 효과적이며 아동기 전반에 걸쳐 아동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OECD, 2021a). 보건 서비스에 의해 혜택을 받는 아동의 범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측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건 서비스가 정기적인 예방 접종과 건강 검진을 제공하는지, 정기적으로 의사 혹은 치과의를 방문하는 아동의 비중이 얼마인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OECD, 2021a; Guio et al., 2020).

의료에 대한 필요를 다루는 데 있어 의료 서비스와 치과 서비스에 대한 충족되지 못한 필요는 보건 서비스가 얼마나 접근 가능하고 효과적인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OECD, 2021a). 어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보건 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필요는 다른 아동에게는 동일한 정도로 심각하지 않을 수 있고 단지 일반적인 필요일 수 있다. 이민 아동, 난민 아동, 보호 시설에 있는 아동 등 특정 집단의 아동들은 특별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아동들이 보건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특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아동이 보건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있는 필요에 지역적인 격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간 격차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는데, 소아과 등 보건 서비스의 이용 제한과 접근성의 어려움이 이에 해당된다. 가난한 가정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건강보험보장률이 낮아서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을 잠재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얼마나 잘 이용할 수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 ② 보육교육 서비스

높은 수준의 보육교육 서비스는 노동시장에서의 성공과 사회적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이다. 보육교육 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과 위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청소년 비행률과 청소년 임신율 감소시킬 수 있다(Fryer & Katz, 2013; Baron et al., 2022).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아동들이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로부터 가장 큰 혜택을 받는다(Barry, 2009). 아동은 동네에 있는 학교와 보육 시설을 다니기 때문에 동네의 특징은 아동 웰빙과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동네의 보육교육 서비스가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공공 도서관과 동네에 있는 다른 교육 자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동네에 있는 광범위한 시설과 활동들도 아동의 교육적 경험에 기여하고 아동의 열망에 영향을 미친다(Garcia et al., 2023).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는 전파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프로그램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동일한 동네에 거주하는 아동의 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List et al., 2023).

보육교육 서비스가 아동 웰빙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재정적으로 부담 가능해야 하며, 시설에 여유 자리가 있어야 하고, 지리적으로 서비스에 접근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은 특히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하여 가정 내에 책이나 장난감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더욱 필요하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참여율은 국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도 가구 소득과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다(OECD, 2023b).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지역 간에도 차이가 있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이용률 차이는 지역의 서로 다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서비스 수요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은 가족들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장 우선적인 이유이다(OECD, 2020a). 2016년도 자료에 따르면, OECD의 유럽 국가들 중에서 약 15%의 아동들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먼 거리를 통학할 수 없는 것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되었다(Clarke & Thévenon, 2023). 이것은 지역의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이용 및 지역적 격차에 대한 중요한 요인인 것을 말해 준다.

영유아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도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은 교사 대 아동 비율, 아동당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교사의 경험과 자격증, 교직원의 교육 참여 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보육교육 시설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및 상호 작용과 관련한 “과정상의 질”이라고 알려진 요인들이다(OECD, 2018b). 아동의 감정 및 행동,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교사의 감수성, 교사들 간의 협력, 교사와 부모 간의 협력 등도 이러한 과정상의 질에 포함된다(OECD, 2015a).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은 규범과 표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고 이에 대한 국가적인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규범과 표준을 이행하는데 지역 간의 관행과 융통성이 있어서 실제로 이행하는데 지역 간에 차이가 있고 그 차이를 판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육교육 서비스의 질에 대한 국가 혹은 지역 차원의 행정 자료 혹은 조사

자료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OECD, 2021a).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역 데이터를 개발하는 것은 아동 발달을 강화하는 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하다. 지자체는 대부분 보육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의 사회경제적 구성에 대한 데이터와 함께 보육 서비스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격차를 파악하고,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계획을 세우며, 지역의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적합한 서비스를 마련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지역적 격차를 파악하여 보육 서비스 제공에 뒤처져 있는 지역을 판별하고 이러한 지역에 지원과 유인 체계를 제공하여 지역 간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보육교육 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는 학교 교육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학교의 질적 수준은 동네마다 현저하게 다른데 이러한 차이가 아동의 학업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캐나다 몬트리올의 좋은 동네에서 자라나는 것은 아동의 학업 성취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어 수준 높은 학교에 다니는 것이 학교 성적을 50~70%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Laliberté, 2021).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미국의 경우 취약한 동네에서 자라나는 것이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동네 특성이 주는 효과가 학교의 질적 수준이 미치는 영향에 조정받지는 않는 것을 보여 주었다(Wodtke et al., 2023).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은 학교의 질적인 수준을 측정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학교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는 유일하고, 보편적이며, 우수한 측정 방식은 없으며, 학교의 질적인 수준을 감독하는 과정을 통해 자동적이고 일관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와 학교 환경의 질은 다차원적이며 학생의 학업 성취 및 웰빙과 관련 있는 학

생들의 다양한 삶에 영향을 준다. 현존하는 문헌들은 학교의 질적인 수준에 대한 몇 가지 차원만을 언급하고 있어 학교의 질적인 수준을 감독하고 현실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다.

###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의 모니터링 체계<sup>4)</sup>

아동 정책을 추진할 때 직면하는 가장 큰 도전 과제 중의 하나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굴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가이다. 이러한 아동들은 이중적인 취약성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않은 조건을 가진 열악한 동네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동네에서는 자연에 접근하기 어렵고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를 갖기가 어렵다. 빈곤한 가정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아동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기회의 불평등을 변화시킬 수 있거나 현격하게 감소시키는 것은 어렵다.

아동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 자체가 아동의 욕구에 포괄적으로 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동네” 중심적인 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정책을 효과적으로 도모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웰빙과 아동 발달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 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자원, 위험, 도전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4) 제47차 OECD 사회정책작업반회의에서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의 주제하에 지역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웰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데이터를 발표하였다(OECD, 2023c). 동 자료를 참고하여 제3절의 내용을 작성하였다.

본 절에서는 OECD가 구축하고자 하는 아동친화적인 동네 모니터링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OECD 회원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친화적인 동네 모니터링 체계 사례를 검토하고, OECD가 제시하는 모니터링 체계와 수집 가능한 OECD 데이터를 소개하고자 한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와 OECD 데이터에 기반하여 OECD가 수행한 국가별 비교 분석 사례를 소개한다.

### 1. OECD 회원 국가들의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 사례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아동의 기회와 웰빙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OECD 회원 국가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전체 인구 집단의 생활 조건을 모니터링하고 사회적 이동성 혹은 건강 상태 같은 개인적인 측면을 측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국가별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 중에서 아동에게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아동에게 중요한 동네의 현실적인 모습을 모니터링하는 일곱 가지의 사례를 검토한다. 호주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의 「Child Development Atlas」, 캐나다 워털루 시의 「Child Well-being Dashboard」, 미국 오하이오주의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 미국 뉴욕시의 「Keeping Track of New York's Children」, 미국 워싱턴 DC의 「DC Kids Count」, 미국 전역에 걸친 이니셔티브인 「Child Opportunity Index」, 「Kids Count Data Centre」이다.

이러한 일곱 가지 이니셔티브는 아동 웰빙과 관련한 정책, 기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근에 개발되었다.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와 「Child Opportunity Index」만 건강 성과 및 경제적 성과에 한정하여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캐나다 워털루시의

「Child Well-being Dashboard」,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 「Child Opportunity Index」는 정부 기관이 관여하고 있으며,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는 연구 기관과 협력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들은 서로 다른 정책과 지역 간의 차이를 파악하여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의 지역 간 차이를 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동네 특성에 대한 지역 수준의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서 일반인에게 공개 하는데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들이 보고서 형식으로 자료를 제공하며, 데이터 사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지도를 그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 연령 0~18세를 대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호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의 「Child Development Atlas」는 0세부터 24세 청년들까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Child Opportunity Index」는 학교 시험과 졸업 데이터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곱 가지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니셔티브의 목적과 데이터 이용 가능성에 따라 차이점도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Child Opportunity Index」는 안전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미국 센서스 데이터에 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들은 “자연과 건축 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Child Opportunity Index」와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는 “자연과 건축 환경” 영역의 차원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는 두 이니셔티브가 아동의 건강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자연과 관련해서 녹지가 제공되지 않는 대지의 비중이 포함되어 있고, 공해 관련해서는 미세 입자, 오존 농도 등 공기의 질에 대한 측정치와 주거지 근처에 위험한 쓰레기 처리장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도로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통학 거리, 도보



가능성, 가능한 교통 체계 부재에 따른 지역적 고립에 대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캐나다 워털루 시의 「Child Well-being Dashboard」를 제외하고 모든 이니셔티브들은 주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주거에 대한 자료는 주거 공실률, 주거 안정성(일 년 동안 같은 주거지에 살지 않는 인구 비중), 집세 부담, 퇴거율을 포함한다. 기술적 인프라에 대한 지표는 광대역 접근에 중점을 두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음식 관련 지표 포함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세 가지 이니셔티브는 음식 관련 시설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기후 회복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니셔티브도 지표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에 대한 지표도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모든 이니셔티브들은 경제사회적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사회경제학적 구성에 대해서는 가구 소득, 아동 빈곤율, 성인 실업률 및 기타 고용 관련 지표가 포함된다. 인구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캐나다 워털루시의 「Child Well-being Dashboard」를 제외하고 모든 이니셔티브가 한부모 비중과 소수 집단 비중을 포함하고 있다. 다섯 개의 미국 이니셔티브 중에서 네 개가 동네 인구 집단의 교육 수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의 이니셔티브는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동료 성과는 모든 이니셔티브가 다루고 있다. 동료 성과에 대한 지표는 지역 단위에서 다루고 있는 영역과 자료에 따라서 다양하다. 2차 및 그 이상 교육 수준에 대한 등록률, 청소년 여름 프로그램 참여율, 청소년 출산율, NEET(교육, 고용, 훈련 중 어느 것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 비중, 학교에서의 비행 행동(정학, 퇴학, 체포 등), 학업 성취, 청소년 범죄 및 비행 행위, 미성년자 경찰 정지 및 미성년자와 관련된 경찰의 무력 사용 사

건 등이 포함된다.

사회적 연계와 지역사회 참여는 미국의 「Child Opportunity Index」와 「Kids Count Data Centre」만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이니셔티브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자원봉사 참여율과 자격이 있는 투표권자 비중을 지표로 포함하고 있다. 「Child Opportunity Index」는 “사회적 자본과 집단적 효능”을 측정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시계열로 비교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Noelke et al., 2020). 이니셔티브들이 사회적 연계와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지 않은 것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보육교육 서비스와 함께 보건 서비스와 아동 보건 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이니셔티브가 다루고 있다. 아동 보건 성과에 대해서는 아동의 보건 관련 필요와 도전을 반영하는 지표인 조산율, 영유아 사망률, 장애율, 만성 건강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 비중, 정신건강 진단율, 약물 남용 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보건 관련 지원과 서비스 이용을 측정하는 지표인 임신 초기의 산전 관리 방문, 보육교육 서비스 등록률, 예방 접종률, 예방을 위한 병원 방문, 일반의 병원 방문, 아동 입원율, 아동의 건강 보험 적용률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서 학교의 질적 수준 격차를 학업 수행, 학교 부가 가치, 학교 중퇴율, 급식 보조를 받는 학생의 비중으로 측정하고 있다.

「Child Development Atlas」, 「DC Kids Count」, 「Kids Count Data Centre」, 「Child Well-being Dashboard」는 개별적인 지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 「Keeping Track of New York City's Children」과 「Child Opportunity Index」는 영역별 지표를 마련하여 전체적으로 아동친화적인 동네를 측정한다. 대부분의 이니셔티브는 약 50개의 측정 지표들을

가지고 있으며, 「Child Development Atlas」의 경우 지표 수가 총 100가 넘는다. 인종별로 세부 집단을 구분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모든 이니셔티브들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갱신하여 제공하여 새로운 공공 정책 마련에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표 2-1〉 OECD 회원 국가들의 아동친화적인 동네 이니셔티브가 다루는 주요 영역

동네 특징	Child Development Atlas (호주)	Child Opportunity Index (미국)	Child Well-being Dashboard (캐나다)	DC Kids Count (미국)	Keeping Track of New York's Children (미국)	Kids Count Data Centre (미국)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 (미국)
복지		✓					✓
공해 노출		✓					✓
기후 회복력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							
도로, 교통 지역, 대중교통		✓					✓
주거	✓	✓		✓	✓	✓	✓
슈퍼마켓, 시장, 식당		✓		✓			✓
기술 인프라	✓					✓	✓

동네 특징	Child Development Atlas (호주)	Child Opportunity Index (미국)	Child Well-being Dashboard (캐나다)	DC Kids Count (미국)	Keeping Track of New York's Children (미국)	Kids Count Data Centre (미국)	Ohio Children's Opportunity Index (미국)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 경제적 요인	✓	✓	✓	✓	✓	✓	✓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 교육 수준		✓			✓	✓	✓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 인구학적 구성	✓	✓		✓	✓	✓	✓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		✓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	✓	✓	✓	✓	✓	✓
보건의료 서비스	✓		✓	✓	✓	✓	✓
보육교육 서비스	✓	✓	✓	✓	✓	✓	✓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23, Table 3.

## 2. OECD의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

OECD 아동친화동네는 지금까지 어떠한 국가적인 이니셔티브도 다루지 않았던 아동 웰빙에 대해 초점을 두는 아동친화동네에 대한 개념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각 국가 혹은 각 지역이 추진하고 있는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는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각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동친화동네에 대한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는 OECD 회원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지역 이슈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지역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OECD가 개발하고 있는 국제적인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는 아동 관련 지역 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본 절에서는 아동친화동네의 세 가지 영역인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에 대하여 OECD가 제안하는 각 영역별 지표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가용한 OECD 지역 데이터의 사례를 소개한다.

### 가. 자연과 건축 환경

OECD는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녹지, 공해 노출, 교통 안전, 주거의 질,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 인터넷 접근성은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역 단위에서 지표와 데이터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녹지에 대한 지표로 녹지 비중, 녹지 규모, 아동 거주지에서 녹지까지

거리, 녹지까지 도보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OECD Land cover in countries and regions database」의 “전체 지역에서 인공적인 면적 비중”을 제시하였다. 공해 노출의 지표로 공해와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을 제시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공해 PM2.5( $\mu\text{g}/\text{m}^3$ )에 대한 평균 노출”로 제시하였다.

기후 회복력에 대해서는 기후 관련 위험 노출을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의 “극단적 기온(더운 날, 열대야, 착빙일, 보편적 열 기후 지수, 온도 이상),” “극단적 강수(매우 많은 강수량 일수, 극단적 강수 빈번도, 강수량 이상),” “가뭄(토양 수분 이상),” “산불(화재 면적, 화재 위험),” “바람 위험(격렬한 폭풍을 감지하는 극심한 돌풍 속도, 사이클론 풍속),” “강 및 해안 홍수(복귀 기간에 따른 하천 및 해안 침수 지역)”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기후 관련 위험은 주로 특정한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변화에 노출된 아동의 위험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은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특성으로 선행 연구에서는 제시되었지만 이와 관련한 지표를 OECD는 제시하지 못했다. 동 영역에 대해서는 가능한 측정치를 찾기 어렵고 자료 수집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대규모 조사가 비용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소음 혹은 빛 공해 노출, 놀이터 디자인, 지역사회 공간의 설치물들과 같이 사회의 공간 특성을 비용효율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OECD는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의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특징을 교통 안전, 교통 효과성, 지역 환경 청결도로 제시하였

다. 교통 안전과 관련한 지표는 교통사고 부상과 안전한 자전거 도로로 보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OECD Social Regional dataset」의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0,000명당 사망자 수)”을 제시하였다. 한편, 교통 효과성에 대해서는 여러 정거장/출퇴근 및 환승, 도보·자전거·대중교통·자가용을 통해서 관심 장소(학교, 병원, 오락시설, 녹지)까지 도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지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는 찾지 못했다. 지역 환경 청결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표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주거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미치는 특성을 주거의 질,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으로 보았다. 주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주거 밀집도, 불결한 주거 환경으로 보았으며, 거주 안정성과 주거 비용에 대한 지표로는 거주 불안정, 주택 비용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로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1인당 방 수”와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가구 가처분 소득 중) 주거 비용 비중”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인 인프라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인터넷 접근성으로 보고 이에 대한 지표로 광대역 접속을 제시하였다. 가용한 데이터로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광대역 접속 가능한 가구 비중,”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OECD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제시하였다.



(표 2-2)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OECD 데이터
자연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녹지 비중</li> <li>•녹지 규모</li> <li>•거주지에서 녹지까지 거리</li> <li>•녹지까지 도보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지역에서 인공적인 면적의 비중 -OECD Land cover in countries and regions database</li> </ul>
	공해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해</li> <li>•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해 PM2.5 수준에 대한 평균 노출 -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ul>
	기후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관련 위험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단적 기온(더운 날, 열대야, 착빙일, 보편적 열기후 지수, 온도 이상)-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li>•극단적 강수(매우 많은 강수량 일수, 극단적 강수 빈번도, 강수량 이상)-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li>•가뭄(토양 수분 이상)-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li>•산불(화재 면적, 화재 위험)-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li>•바람 위험(격렬한 폭풍을 감지하는 극심한 돌풍 속도, 사이클론 풍속)-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li>•강 및 해안 홍수(복귀 기간에 따른 하천 및 해안 침수 지역)-OECD Climate and Environment Regional dataset</li> </ul>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놀이터 디자인 및 소재</li> <li>•공공 설치물 (벤치, 공중 화장실, 야외 식탁, 분수대, 그늘, 쉼터)</li> </ul>	-	-
도로, 교통 지역, 대중 교통	교통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부상</li> <li>•안전한 자전거 도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OECD Social Regional dataset</li> </ul>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OECD 데이터
	교통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러 정거장/출퇴근 및 환승</li> <li>•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을 통해서 관심 장소(학교, 병원, 오락 시설, 녹지)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li> </ul>	
	지역환경 청결도	-	
	주거의 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거 밀집도</li> <li>•불결한 주거 환경(주요 설비 부재, 심하게 어두운 실내, 실내 습기, 곰팡이, 추위, 납 등 환경 독성 물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방 수(비중)-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주거비용 비중(가구 가처분 소득 중)-OECD Socail Regional dataset</li> </ul>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 불안정</li> <li>•주택 비용</li> </ul>	
기술 인프라	인터넷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대역 접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대역에 접속 가능한 가구 비중 -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인터넷 다운로드 속도: OECD 평균에서 벗어난 정도(%)-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ul>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p.25-26, Table 4에서 일부를 발췌함.

## 나. 사회경제적 환경

OECD는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인구사회학적 구성,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으로 제시하였다. OECD(2023c)에 따르면,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네에 사는 것은 개인 가구의 생활 수준 이상으로 아동의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사한 취약성을 가진 집단과 교류하는 것은 취약성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배가시키고 혜택받는 집단에 소속될 기회를 감소시킨

다. 취약한 집단과 교류하는 것은 아동과 가족의 기회, 태도, 열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사회경제적으로 혜택받은 집단과의 교류는 아동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적 이동 상승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OECD는 인구사회학적 구성 측면에서 사회경제적 불이익과 관련한 지표로 동네 빈곤,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 한부모 가족 빈도를 제시하였다. 경제적 연계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동네 영향력,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 연계를 제시하였으나 이들 간의 경제적 연계성은 쉽게 측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동네 빈곤은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1인당 가구 가처분 소득(실질 USD PPP),” “세후 빈곤율,” “고용률 및 실업률”로 측정될 수 있으며,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은 “2차 교육 수준 이하 성인 비중,”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영역에서 동료 성과 지표로 퇴학, 청소년 임신,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을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안전에 대한 지표로 범죄율(폭력 범죄, 약물 남용), 동네에서의 안전감을 제시하였다. 퇴학은 「OECD Regional Education dataset」의 “18~24세 교육과 훈련에서 조기 탈퇴율,” 「OECD Regional Unemployment Statistics」의 “청소년 실업률(15~24세),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살인율(10만 명당)”로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네 및 지역사회의 소속감, 동네에 대한 신뢰, 집단 활동 참여는 아동의 사회 참여와 사회정서적 웰빙을 향상시키는 필수적인 요인들이며 지역사회의 사회 통합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동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은 아동의 신체적 활동과 공원 사용에 영향을 주어 인터넷 게임

등을 하며 집안 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을 늘게 한다. 따라서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과 측정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OECD는 사회적 결합과 관련된 지표로 동네·지역사회 소속감, 집단적 효능, 타인에 대한 신뢰를 제시하였으며,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지표로 과외 활동 참여, 봉사 활동과 클럽 멤버십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에 대한 데이터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를 통해 수집될 수 있으며 대규모 조사는 자료 수집에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 이를 측정할 수 있는 OECD 통계 자료로서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투표율,” “인식된 사회 네트워크 지지”를 제시하였다.

〈표 2-3〉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OECD 데이터
인구 사회학적 구성	사회경제적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 빈곤</li> <li>•고등교육 졸업자 비중</li> <li>•한부모가족 빈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인당 가구 가처분 소득 (실질 USD PPP)-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세후 빈곤율-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고용률, 실업률-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ul>
	경제적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 영향력</li> <li>•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 연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차 교육 수준 이하 성인 비중 -OECD Education Regional dataset</li> <li>•고등교육 졸업자 비중-OECD Education Regional dataset</li> </ul>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 사회 참여	사회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네·지역사회 소속감</li> <li>•집단적 효능</li> <li>•타인에 대한 신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표율(%)-OECD Regional Well-being data(2014 data)</li> <li>•인식된 사회 네트워크 지지 -OECD Regional Well-being data(2014 data)</li> </ul>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외 활동 참여</li> <li>•봉사 활동과 클럽 멤버십</li> </ul>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OECD 데이터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동료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퇴학</li> <li>•청소년 임신</li> <li>•청소년 범죄 및 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24세 교육과 훈련에서 조기 탈퇴율-OECD Regional Education dataset</li> <li>•청소년 실업률(15~24세)-OECD Regional Unemployment Statistics</li> <li>•살인율(10만 명당)-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ul>
	사회적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범죄율(폭력 범죄, 약물 남용)</li> <li>•동네에서 안전감</li> </ul>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26, Table 4에서 일부를 발췌함.

#### 다.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아동 대상 서비스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성은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보육 서비스로 보았다.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한 지표로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소아과 및 기타 아동 관련), 아동의 집에서 보건의료 서비스까지 거리, 비용 지불 가능성(건강보험 적용률), 서비스의 질, 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의료 및 치과 치료의 미충족률), 건강 성과, 예방적 보건 서비스(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의사와 치과의를 방문하는 아동 비중)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지표 중 건강 성과는 「OECD Regional Well-being data」의 기대여명과 연령 조정 사망률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은 「OECD Reg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data」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비용 지불 가능성, 예방적 보건 서비스(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의사와 치과의를 방문하는 아동 비중)는 OECD 국제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찾지 못했지만 OECD 회원 국가 내에 가능한 자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아동이 거주하는 동네의 보건 서

비스의 질, 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의료 및 치과 치료의 미충족률), 아동의 집에서 서비스까지 거리에 대한 자료는 수집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교육 및 보육 서비스와 관련한 지표로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 재정적 부담 가능성, 아동 집으로부터의 거리, 보육 및 교육의 질, 2차 및 2차 이후 교육, 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의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 지리적 접근 가능성(통학 거리)를 제시하였다.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은 「OECD Regional Education data」의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시설 등록률을 통해 측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아동의 집으로부터 보육 및 교육 시설까지의 거리는 “보육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 지표를 현재 OECD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재정적 부담 가능성에 대한 자료는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을 조사한 국내 자료를 통해 수집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보육 및 교육의 질과 2차 및 2차 이후 교육은 관련 행정 자료를 통해 수집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동네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에 대한 데이터는 관련된 항목을 조사한 조사 자료를 통해 수집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표 2-4〉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OECD 데이터
아동 대상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소아과 및 기타 아동 관련)</li> <li>•아동의 집에서 서비스까지 거리</li> <li>•비용 지불 가능성(예를 들면 건강보험 적용률)</li> <li>•서비스의 질</li> <li>•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의료 및 치과 치료의 미충족률)</li> <li>•건강 성과</li> <li>•예방적 보건 서비스: 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의사와 치과의를 방문하는 아동 비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대여명-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연령 조정 사망률-OECD Regional Well-being data</li> <li>•인구 1000명당 의사 수-OECD Regi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data</li> </ul>
	교육 및 보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li> <li>•재정적 부담 가능성</li> <li>•아동 집으로부터의 거리</li> <li>•보육 및 교육의 질, 2차 및 2차 이후 교육</li> <li>•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의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li> <li>•지리적 접근 가능성(통학 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시설 등 록률-OECD Regional Education data</li> <li>•보육 및 교육 시설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OECD Database 개발 중</li> </ul>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p.26-27. Table 4의 일부를 발췌함.

### 3. OECD 회원 국가 간 비교 분석 사례

본 절에서는 OECD가 아동친화동네 체계에 기반하여 OECD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제 비교 분석을 한 내용을 제시한다. 현재 OECD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에 따라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데이터 체계가 마련되면 본 절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유형으로 국제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제시한 데이터는 아동이 직면한 지역 환경을 측정하기에 충분히 세부적인 지역 자료는 아니지만, 아동이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질적인 특성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절에서는 지역 소득 수준, 공해, 이용 가능한 의사에 대하여 OECD(2023c)가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를 살펴본다. 첫째, 지역 소득 수준은 “OECD 회원 국가의 지역별 소득 수준 격차(Königs & Vindics, 2021)”의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이 동네에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환경 특성의 지역적 격차를 분석하였다. 둘째, 공해 수준에 대한 지역의 측정치를 활용하여 아동이 자연과 건축 환경에서 직면한 위험도의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이용 가능한 의사 밀도의 지역 자료를 활용하여 필수적인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 간 차이를 파악하였다.

아동이 직면한 지역 간 격차의 국제 비교를 위해 OECD가 사용한 자료의 지역 구분은 주로 도시, 주로 농촌, 중간 지역으로 구분한 TL3 수준으로 OECD가 제공하는 가능한 가장 세분화된 지역 구분이다(OECD, 2011).



### 가. 지역 간 소득 격차의 OECD 회원 국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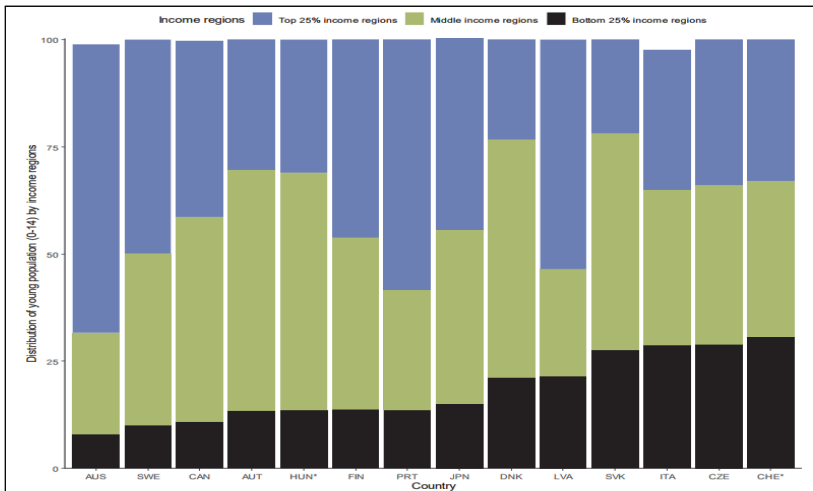
동 분석에서는 지역을 소득 수준에 따라 상위 25% 지역, 중간 지역, 하위 25% 지역으로 구분하고 전체 아동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전체 아동 중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이 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비중이 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역 간의 자원과 기회의 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게 하고, 특히 소득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동 정보는 국가 전체의 아동 빈곤율을 보완하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국가 전체의 아동 빈곤율 수준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크게 낮지 않지만 소득 수준이 낮고 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아동이 집중되어 거주하고 있다면 아동에게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가 간 아동 빈곤율을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상대적으로 아동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가족의 빈곤 상태가 아동 웰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제한적인 국가만이 지역 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전체적인 OECD 회원 국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아래 그림에서 볼 때 지역의 소득 수준에 따른 아동 분포는 국가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에서는 약 8% 미만의 아동이 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슬로바키아(28%), 체코(29%), 이탈리아(29%), 스위스(31%)는 소득 하위 25%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의 비중이 다른 국가들보다 높다. 이것은 호주보다 스위스와 이탈리아에서 더 높은 비율의 아동들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아

동 빈곤과 빈곤이 아동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슈에 중점을 두고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이 높은 소득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과 동일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사회가 추진하는 정책은 현금 급여 같은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스웨덴(50%)뿐만 아니라 라트비아(53%), 포르투갈(58%), 호주(67%)에서 절반 이상의 아동들이 상위 25% 소득 수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중에서도 소득이 낮은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으며, 반대로 소득 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해도 소득이 높은 가구에 살고 있는 아동이 있을 수 있다. 소득이 낮은 가구의 아동이 소득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소득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2] OECD 회원 국가 15세 이하 아동의 지역 소득 수준별 분포



주: 지역 소득은 가처분 가구 소득이며, 스위스는 가구 총소득, 헝가리는 개인 근로 소득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 29, Figure 1.

## 나. 공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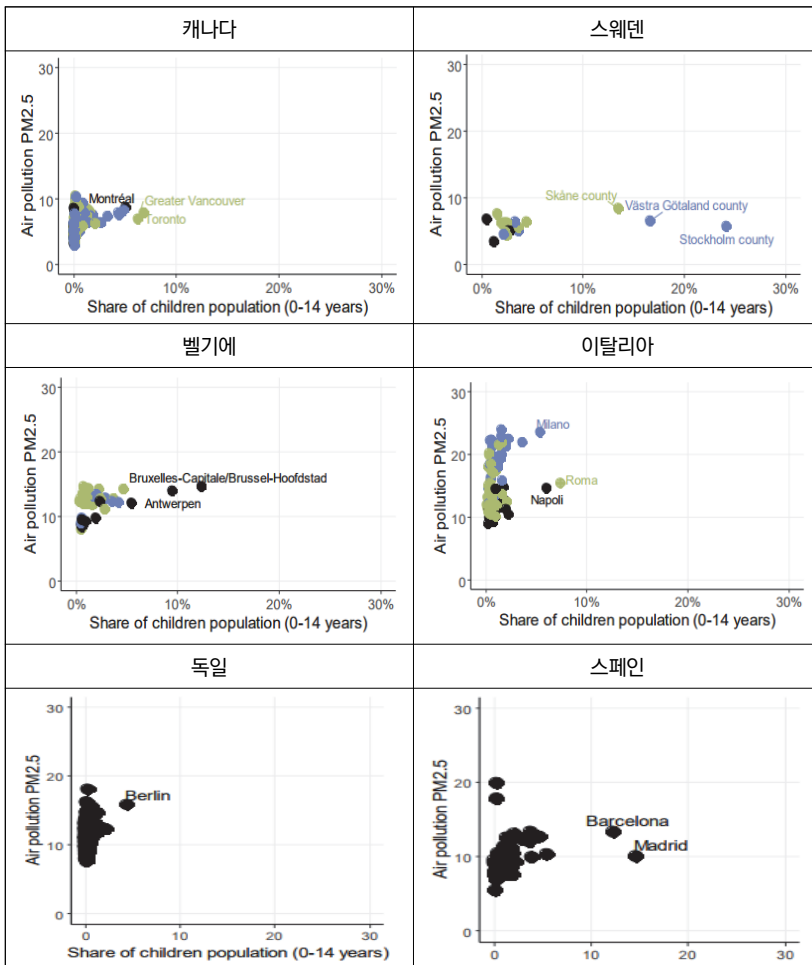
지역 자료를 이용하여 특정한 환경 위험이 지역 간에 격차가 있는지 그리고 아동이 밀집된 지역에 이러한 환경 위험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를 검토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공해 수준과 아동 비중 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았다. 공해에 대한 노출 수준은 지역의 미세 입자 평균 농도로 측정하였으며 이것을 지역의 15세 미만 아동 비중으로 도식화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공해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아동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공해 수준이 높을 경우 해당 지자체는 공해 수준을 낮추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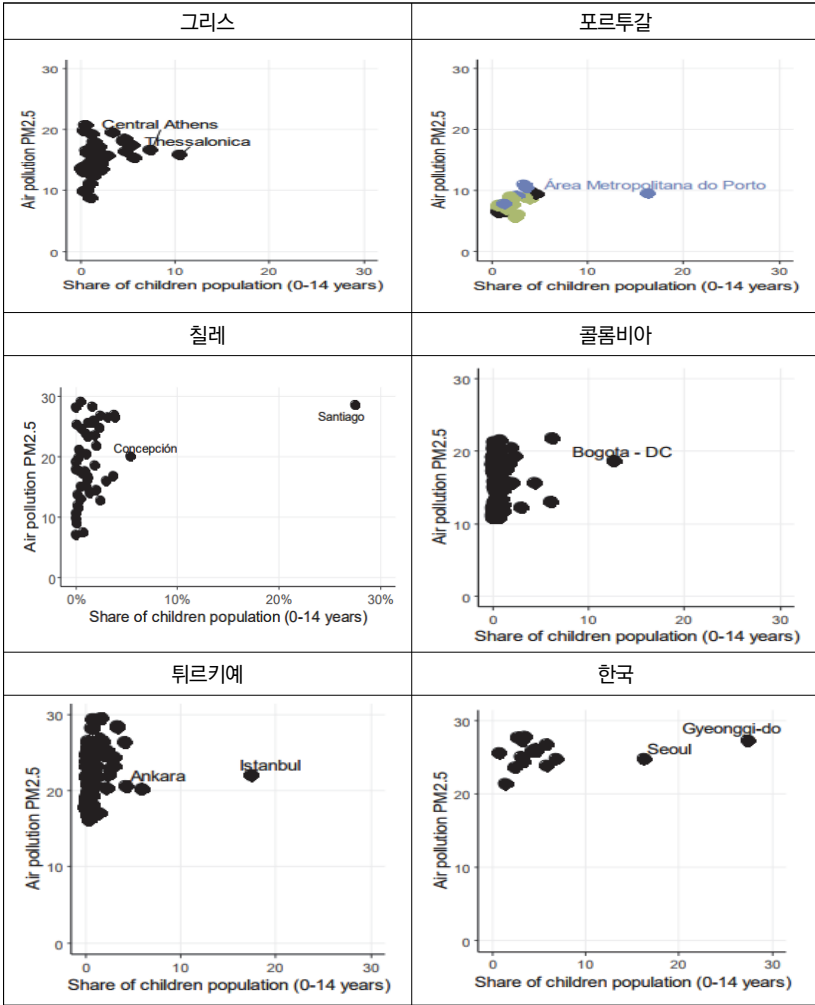
분석 결과를 보면, 모든 회원 국가에서 미세 입자 평균 농도는 WHO의 권고 수준인 입방미터당 5마이크로미터의 밀도 수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와 스웨덴은 아동이 밀집된 지역을 포함하여 전반적으로 미립자에 대한 노출과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낮다. 벨기에에는 아동 밀집도가 높은 저소득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미립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높다. 이러한 국가에서는 아동의 공해 노출을 낮추려는 정책적인 노력이, 공해 노출 수준이 높으며 아동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미세 입자 농도가 높은 국가에서 지역 간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 칠레, 튀르키예,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에서 지역 간에 미세 입자 노출 수준의 격차가 크다. 칠레의 산티아고, 콜롬비아의 보고타,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등 수도에서 아동의 밀집도가 높고 공해 노출 수준도 높다. 한국은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높은 공해 수준을 보여주는데, 특히 경기도와 서울과 같이 아동 비중이 높

은 지역에서도 공해 수준이 높다. 이러한 국가들은 전체 국가 및 지역적 차원에서 공해 수준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특히 높은 아동 비중과 함께 높은 공해 수준을 보이는 지역에서 공해 수준을 낮추기 위한 특별한 지역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 OECD 회원 국가의 지역 미세먼지 입자 평균 농도와 15세 미만 아동 비중





주: 1) 흑색은 소득 하위 25% 지역, 연두는 중간 소득 지역, 파랑은 소득 상위 25% 지역. 지역 소득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국가(칠레, 콜롬비아, 한국, 터키, 미국)는 모든 지역을 검은 색으로 표시했음.  
 2) 미세 입자의 지역 평균 농도는 입방미터당 밀리그램 단위로 측정  
 3) 각 지역의 아동 비중은 국가 전체 아동 수에서 해당 지역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 31-32, Figure 2.

## 다. 의사 밀도

아동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의 접근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의사 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하였다. 가능한 자료들을 통해서서는 서비스의 실제적인 이용이 아닌 이용 가능성 정도만을 판별할 수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자료를 통해서서는 각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 공급을 통해 지역의 아동을 잠재적으로 어느 정도 포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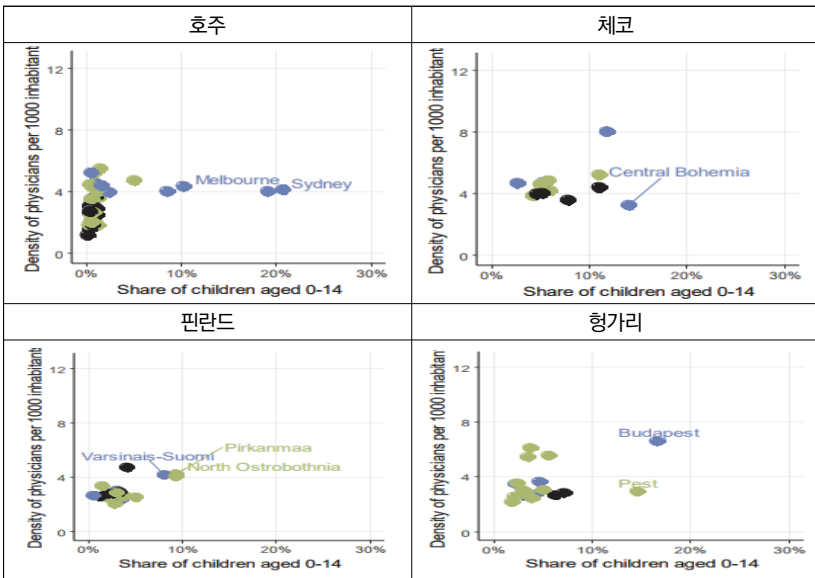
[그림 2-4]에 지역의 의사 밀도를 지역의 아동 분포별로 도식화하였으며 각 지역은 소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의사 밀도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이 집중된 지역 이면서 의사 밀도가 낮은 지역을 알 수 있어 이러한 지역에 특별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

호주는 의사 밀도가 1에서 7 사이로 매우 격차가 크지만,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소득 수준도 가장 높고 의사 밀도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의사 밀도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으면서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 의사 밀도도 가장 높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와 페스트는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나 의사 밀도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페스트에서는 의사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부다페스트에서는 의사 밀도가 높다. 라트비아의 리가와 피에리가는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아동 비중 역시 높지만, 의사 밀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슬로바키아의 코시체와 프레스보는 아동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이지만 의사 밀도는 수도인 브라티슬라바 보다 낮다. 이러한 사실은 코시체와 프레스보가 아동 비중이 높은 것에 비해 의사 공급 정도가 낮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가 지역의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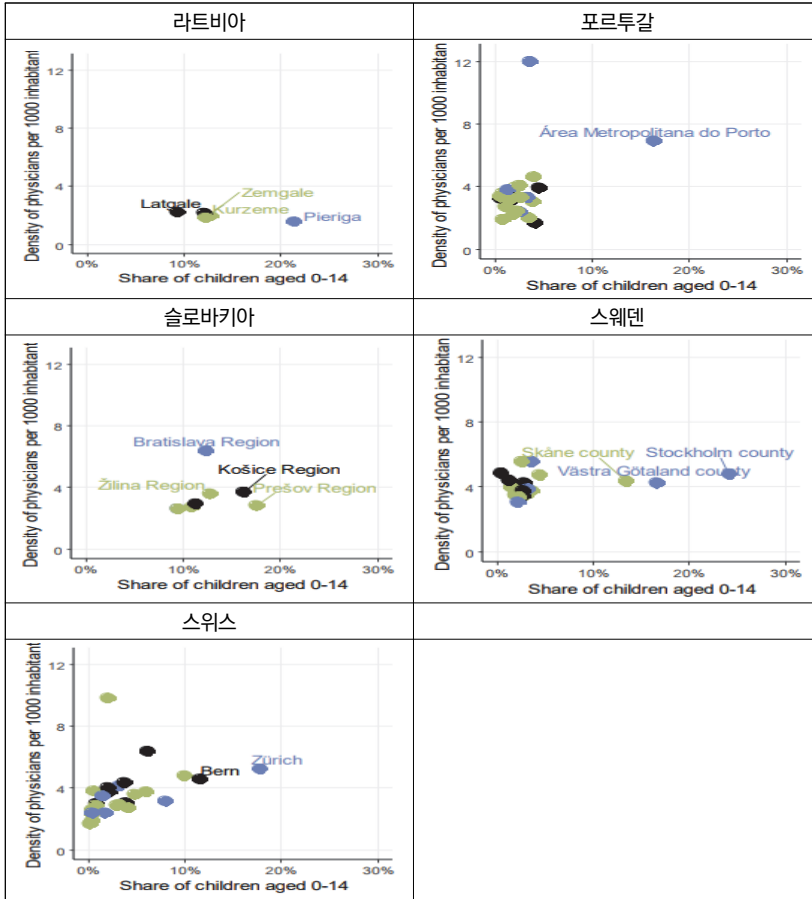
사 공급 수준이 지역의 의료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가에 대해 해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해당 지역에 의사 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의사 밀도만 가지고서는 이용 가능한 의사 비중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 아동의 집에서 병원까지의 근접성이 이용 가능한 의사 비중을 측정하기 위한 더 정확한 지표일 수 있다. 또한 의사 밀도 정보만으로는 아동이 얼마나 자주 의사를 방문하는지, 혹은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소아과 전문의가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기가 어렵다. 도농 간에 의사 밀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역 간 비교에서 해당 지역이 도시에 해당하든지 농촌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사 밀도는 지역의 의사 공급 현황 및 의사 공급의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는 일차적인 정보로서 유용할 것으로 본다.

[그림 2-4] OECD 회원 국가의 지역 의사 분포와 지역 아동 비중



72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주: 1) 의사(전문의 포함)의 밀도는 지역별로 계산되며 인구 1,000명당 측정치임.

2) 아동의 비중은 국가 전체 아동 수에서 해당 지역의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

출처: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OECD, 2023c, OECD, p. 34, Figure 3.



#### 4. OECD의 향후 작업 방향<sup>5)</sup>

OECD는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인 체계를 공고히 하고 자료 제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 국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체계를 개발하기 위하여 지역 자료 혹은 더 세부적인 지역사회의 자료 수집에 대하여 현재 마련되어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각 영역에 해당되는 지표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 각 회원 국가들의 아동친화동네 정책의 우수 사례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회원 국가 간에 서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다. 향후 OECD가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동네 데이터 베이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와 유사하게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 환경에 대한 지표를 한곳에 모아서 다양한 영역에서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혜택과 불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별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동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특정한 지표에 대하여 OECD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하는 동시에 개별 국가 단위에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역 간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둘째, 종합적인 OECD 모니터링 체계를 개발하여 각 회원 국가에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추가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도모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작업을 기반으로 아직 다루지 못한 동네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더 세부적인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와 아동의

5) 이 부분은 제47차 OECD 사회정책작업반회의에서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의 주제하에서 논의된 내용(OECD, 2023c)을 기초로 작성하였다.

거주지로부터 관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재 OECD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지역적 격차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개발하고 있다. 아동의 건강 성과와 관련된 자료 - 예를 들면 영아 사망률, 저체중 출생 비중, 조산아 비율, 아동 발달 관련 취약성, 국가 정기 검진율, 예방 접종률, 장애아동 비중 등 - 와 아동의 사회경제적 환경 - 예를 들면 빈곤선 이하 가구에서 거주하는 아동 비중, 한 부모 가구 거주 아동 비중, 청소년 출산율, 청소년 비행률, 청소년 범죄율, 사회경제적 조건과 관련한 지역의 주거 시장과 주거 체계 등 - 에 대한 지역 자료도 현재 OECD가 수집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 지향적인 작업을 수행하여 아동친화적인 동네에 대한 정보를 국가 혹은 지자체가 활용하여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지역 기반 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는 것을 도모하게 할 계획이다. 각 회원 국가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이러한 작업을 위한 영역과 형식을 구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 제4절 UNICEF 아동친화도시 소개

###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개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정 체계와 제도를 갖춘 지역사회를 말한다(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a). 당사국 정부, 그중에서도 지방 정부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통해 지방 정부 행정 체계 내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sup>6)</sup>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유니세프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할 때 ‘아동권리 접근법’에 따를 것을 권고한다. 아동권리 접근법이란 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아동 관련 정책과 사업에 체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중 6개 원칙과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주요 내용은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아동권리 접근법



출처: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p.34-35.

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한 국제 조약으로서 1989년 체결되었으며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196개국이 비준하였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인권규약이 규정된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시민권을 아동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한 협약이며, 최초로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동 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아동 권리에 대한 설명, 제43조부터 제54조까지는 협약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협약의 기본이 되는 가치를 4가지 일반 원칙으로 지정해 협약의 모든 조항을 해석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4가지 일반 원칙은 비차별 원칙(제2조),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제3조), 생존과 발달의 원칙(제6조), 아동 의견 존중의 원칙(제12조)이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또한 이 일반 원칙을 기본 지침으로 하고 있다(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그 비전으로 ‘모든 아동이 아동기를 온전히 누리고, 공평한 기회를 통해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다(그림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10가지 구성요소를 갖추어야 하며(그림 2-7), 3가지 글로벌 핵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그림 2-8).

[그림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5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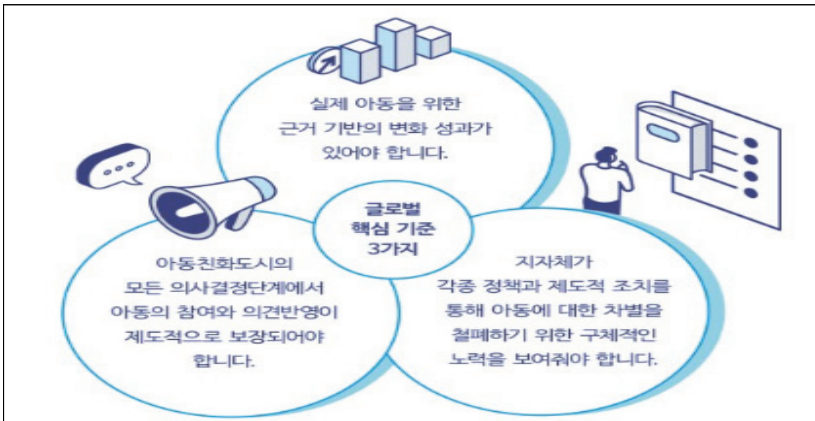
출처: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37.

[그림 2-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 요소

<b>01 아동권리 전담기구</b>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b>02 아동친화적인 법체계</b>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b>07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b> 아동의 권리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b>08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b>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원칙에 따라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b>03 아동의 참여 체계</b>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b>04 아동권리 독립기구</b>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b>09 아동영향 평가</b>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b>10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b>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b>05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b>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b>06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b>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출처: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31.

[그림 2-8]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글로벌 핵심 기준 3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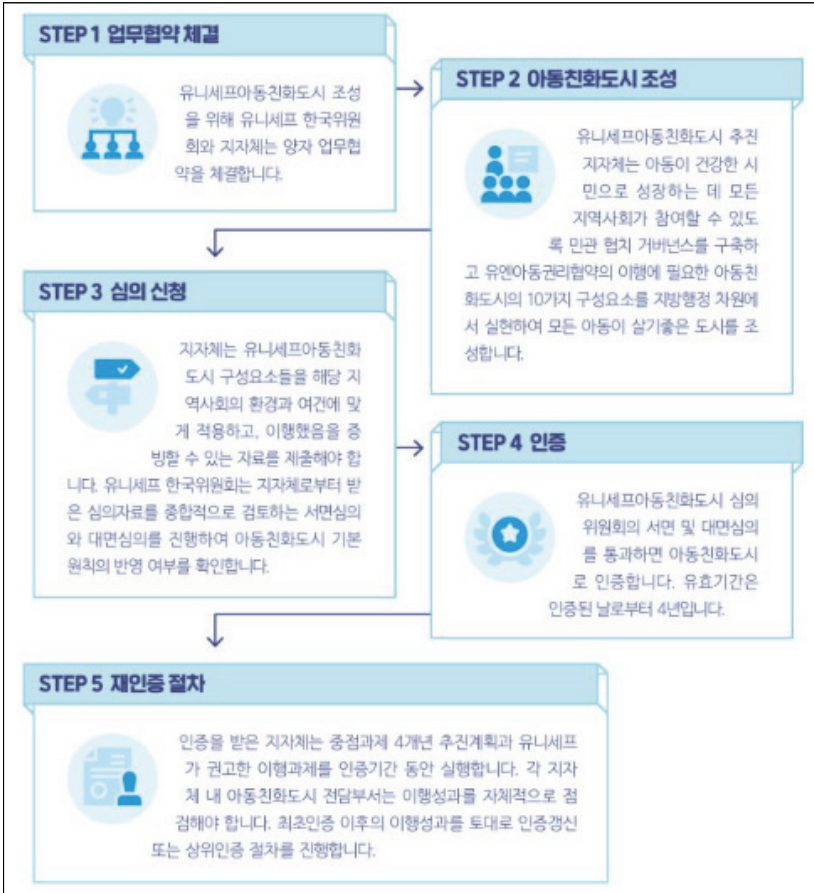


출처: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36.

## 2. 한국의 아동친화동네 추진 현황

우리나라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2013년 11월 서울 성북구를 첫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였다. 2015년 9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27개 지자체들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마련하여 한국에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024년 8월 23일 기준으로 95개 지자체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다. 인증받은 지자체의 대부분은 기초 지자체이며, 광역 지자체는 세종, 부산, 광주, 대구의 4곳이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d).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증가함에 따라 이곳에서 살고 있는 아동 수는 2013년 78,014명(0.8%)에서 2023년 4,306,633명(60.6%)로 증가하였다(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는 [그림 2-9]와 같다.

[그림 2-9]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인증 절차



출처: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39.

### 3. 아동친화도시 평가 지표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받기 위해서는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하며, 인증 갱신 혹은 상위 인증을 위해서는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와 함께 “이행 실적 평가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는 아동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역 2의 “전담 부서,” “독립적 인권 기구,” 영역 3의 “아동의 참여 체계,” 영역 4의 “정책조정기구,” “민관협력기구,” “아동권리 교육 관련 협력 기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한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은 2 영역의 “구성 전략 수립,”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3 영역의 “아동 권리 교육”이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관련한 지표는 1 영역의 “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 4 영역의 “아동친화 공간 계획”과 “환경 개선”이 여기에 해당된다.

〈표 2-5〉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1	실태조사 및 결과 분석	일반 현황 및 사업 현황 조사, 아동친화도시 표준 조사, 시민의견 수렴 조사
2	전담 부서	명칭 및 지위, 인력 구성, 지속기간, 아동친화정책 활성화
	구성 전략 수립	아동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계획, 아동친화도시 중점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계획 이행 실적, 아동친화도시 권고사항 이행 실적, 기초자치단체 지원
3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아동권리 기반 검토, 아동 참여 기반 검토, 지역 고유성 기반 검토
	독립적 인권기구	현황 및 지위, 활동 지원, 운영 절차, 운영 실적
4	아동의 참여 체계	포괄적인 참여기구 구성, 참여기구의 역할, 아동 주도의 운영, 정책 및 사업 반영 성과, 제도적 아동 의견 환류체계, 아동 참여 기회 보장,
	아동 권리 교육	교육 대상, 교육 콘텐츠, 운영 방식, 교육 평가, 교육 계획
4	정책조정기구	구성, 정기적인 운영, 역할 및 성과, 광역-기초 협력 기구 구성
	민관협력기구	구성, 정기적인 운영, 역할 및 성과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아동권리 교육 관련 협력 기구	구성, 역할 및 성과
	아동친화 공간 계획	아동권리협약 기반 검토 절차, 아동 참여를 통한 공간 조성
	환경 개선	안전 취약 환경 개선, 거주 환경 개선, 놀이·문화 공간 개선, 녹색 환경 개선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c,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p.28-29.

“현황 및 계획 평가 지표”에는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행 실적 평가 지표”에는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 관련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가 구축되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서도 활용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현황 평가와 함께 다른 아동친화도시와의 비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OECD가 아동친화동네 국제 데이터 베이스를 마련하면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아동친화도시의 국제 비교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영역 1에 포함된 다수의 평가 요소가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에 해당한다. 일반 통계 현황에 포함된 “아동 안전사고 횟수”와 “아동 교통사고 횟수”는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 영역의 교통 안전에 포함된 “교통사고 부상” 지표와 관련이 있다. “아동 대상 범죄 횟수”와 “아동 대상 폭력 횟수”는 사회적 안전 영역에 포함된 “범죄율” 혹은 “동네에서의 안전감” 지표와 관련 있다. “대기 환경 오염 지수”는 공해 노출 영역에 포함된 “공해” 지표와 관련 있다. “0~3세 모유 수유율”은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건강 성과” 지표에 해당된다. “16~18세 학교 밖 아동 청소년 비율”은 동료 성과 영역의 지표에 해당한다.

영역 1의 표준 조사 결과의 평가 요소들은 객관적인 현황이라기보다 주관적인 인식과 관련한 사항으로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에 주관적인 자료를 활용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놀이 문화 영역의 인식에 대한 내용은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 관련 지표와 연관성이 있다. 대중교통 이용 평가 요소는 교통사고 효과성에 해당되는 지표이다. 문화·레저·스포츠 활동 및 참여 관련 내용은 지역사회 참여에 해당되는 지표이다. 안전 보호에 대한 인식 내용은 사회적 안전에 해당되는 지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처는 기후 회복력과 관련한 지표이다. 따돌림·괴롭힘 경험에 대한 내용은 사회적 결함과 관련한 지표이다.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인식 내용은 아동 대상 서비스 영역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영역 5에 포함된 시설 조성 실적과 환경 개선 실적에도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시설 조성 실적에서 “놀이터와 녹지 수”는 녹지와 관련된 지표이며, “자전거 길 길이”는 교통 안전과 관련한 지표이다. “안전과 보호 관련 시설 조성 실적”은 교통 안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보건과 복지 관련 시설 조성 실적”은 아동 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이다. 환경 개선 실적에 포함된 평가 요소 중에서 “놀이와 문화 관련 환경 개선 건수”는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 “참여와 존중 관련 환경 개선 건수”는 지역사회 참여, “안전과 보호 관련 환경”은 교통 안전, 보건과 복지 관련 환경 개선 건수는 아동 대상 서비스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6〉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의 “이행 실적 평가 지표”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1	일반 통계 현황	아동 안전사고 횟수, 아동 교통사고 횟수, 아동 대상 범죄 횟수, 아동 대상 폭력 횟수, 연평균 대기환경 오염지수, 0~3세 모유 수유율, 16~18세 학교 밖 아동청소년 비율
	표준 조사 결과	놀이문화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놀이문화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대중교통 이용, 문화·레저·스포츠 활동, 참여존중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참여존중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아동권리 인식, 아동의 의사결정 참여, 참여를 통한 자존감·자신감 배양, 안전보호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안전보호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아동의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 따돌림·괴롭힘 경험, 보건복지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보건복지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보건 서비스 이용 편의성, 교육환경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교육 환경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가정환경 영역의 아동 척도 전반적 인식, 가정환경 영역의 도시 척도 전반적 인식, 보호자와의 가치 있는 시간, 가족과 고민 나눔
2	사업 예산 추진	놀이 문화 영역 사업 수, 놀이 문화 영역 예산액, 문화 활동 지원받은 아동 비율, 아동 신체활동 촉진 사업 수, 스포츠시설·프로그램에 지원 받은 아동 수, 참여와 존중 영역 사업 수, 참여와 존중 영역 예산액, 아동권리 인식 개선 사업 수, 안전과 보호 영역 사업 수, 안전과 보호 영역 예산, 대기오염 저감 사업 수, 아동학대 및 폭력 예방 사업 수, 교통안전 향상 사업 수, 따돌림·괴롭힘 근절 사업 수, 보건과 복지 영역 사업 수, 보건과 복지 영역 예산, 취약계층 아동 지원 사업 수, 균형 있는 영양 섭취 사업 수, 아동 청소년 영양 섭취 사업 예산, 모유 수유 지원 사업 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 예산, 정신건강 증진 사업 수, 교육환경 영역 사업 수, 교육환경 영역 예산액, 진로와 직업교육 지원 사업 수, 영유아 발달 예산액, 영유아 발달 사업 수, 가정환경 영역 사업 수, 가정환경 영역 예산액, 보호자 지원 사업 수
	추진계획 이행 실적	놀이와 문화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참여와 존중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안전과 보호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보건과 복지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교육환경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가정환경 영역 중점사업 이행 실적
3	참여기구 의견수렴	놀이와 문화 주제의 의견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의견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의견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의견 수, 교육환경 주제의 의견 수, 가정 환경 주제의 의견 수
	정책 개발과 정책 제언	놀이와 문화 주제의 의견 수, 놀이와 문화 주제의 정책 반영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의견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정책 반영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의견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정책 반영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의견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정책 반영 수, 교육환경 주제의 의견 수, 교육환경 주제의 정책 반영 수, 가정환경 주제의 의견 수, 가정환경 주제의 정책 반영 수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4	참여 피드백과 결과보고회	놀이와 문화 주제의 정책 제안의 의견 수, 놀이와 문화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정책 제안의 의견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정책 제안의 의견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교육환경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교육환경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가정환경 주제의 정책 제안 의견의 반영 수
	참여 관련 교육 홍보 캠페인	참여와 관련된 교육 사업 수, 참여와 관련된 교육 사업의 아동 참가자 수, 참여와 관련된 교육 사업의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참여와 관련된 홍보·캠페인 활동 수, 참여와 관련된 캠페인 아동 참가자 수, 참여와 관련된 캠페인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아동 관련 협의체 운영 및 참여	놀이와 문화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놀이와 문화 주제의 안전 반영 수, 참여와 존중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참여와 존중 주제의 안전 반영 수, 안전과 보호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안전과 보호 주제의 안전 반영 수, 보건과 복지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보건과 복지 주제의 안전 반영 수, 교육환경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교육환경 주제의 안전 반영 수, 가정환경 영역의 협력 기구 활동 수, 가정환경 영역의 안전 반영 수
4	교육 실적	놀이와 문화 관련 교육 사업 수, 놀이와 문화 관련 교육 사업의 아동 참가자 수, 놀이와 문화 관련 교육 사업의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안전과 보호 관련 교육 사업 수, 안전과 보호 관련 교육 사업의 아동 참가자 수, 안전과 보호 관련 교육 사업의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따돌림 방지 프로그램 아동 참가자 수, 보건과 복지 관련 교육 사업 수, 보건과 복지 관련 교육 사업의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교육환경 관련 교육 사업 수, 교육환경 관련 교육 사업 아동 참가자 수, 교육환경 관련 교육 사업 이해 관계자 참가자 수, 가정환경 관련 교육 사업 수, 가정환경 관련 교육 사업의 아동 참가자 수, 가정환경 관련 교육 사업의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홍보 캠페인	놀이와 문화 관련 홍보 캠페인 활동 수, 놀이와 문화 관련 캠페인 활동 아동 참가자 수, 놀이와 문화 관련 캠페인 활동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안전과 보호 관련 홍보 활동 수, 안전과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아동 참가자 수, 안전과 보호 관련 캠페인 활동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보건과 복지 관련 홍보 활동 수, 보건과 복지 관련 캠페인 활동 아동 참가자 수, 보건과 복지 관련 캠페인 활동 이해관계자 수, 교육환경 관련 홍보 활동 수, 교육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 아동 참가자 수, 교육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 이해 관계자 참가자 수, 가정환경 관련 홍보 활동 수, 가정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 아동 참가자 수, 가정환경 관련 캠페인 활동 이해관계자 참가자 수
5	도시 기본 계획	놀이와 문화 관련 도시 기본 계획 실적, 놀이와 문화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참여와 존중 관련 도시 기본 계획 실적, 참여와 존중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안전과 보호 관련 도

평가 영역	평가 지표	평가 요소
		시 기본 계획 실적, 안전과 보호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보건과 복지 관련 도시 기본 계획 실적, 보건과 복지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교육환경 관련 도시 기본 계획 실적, 교육환경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가정환경 관련 도시 기본 계획 실적, 가정환경 관련 도시 기본 계획에 아동 참여 건수
	시설 조성 실적	놀이터와 녹지 수, 자전거 길 길이, 놀이와 문화 관련 시설 조성 실적, 놀이와 문화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참여와 존중 관련 시설 조성 실적, 참여와 존중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안전과 보호 관련 시설 조성 실적, 안전과 보호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보건과 복지 관련 시설 조성 실적, 보건과 복지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교육환경 관련 시설 조성 실적, 교육환경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가정환경 관련 시설 조성 실적, 가정환경 관련 시설 조성에 아동 참여 건수
	환경 개선 실적	놀이와 문화 관련 환경 개선 건수, 놀이와 문화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참여와 존중 관련 환경 개선 건수, 참여와 존중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안전과 보호 관련 환경 개선 건수, 안전과 보호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보건과 복지 관련 환경 개선 건수, 보건과 복지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교육환경 관련 환경 개선 건수, 교육환경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가정환경 관련 환경 개선 건수, 가정환경 관련 환경 개선에 아동 참여 건수

출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c,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p.30-35.

OECD 아동친화동네는 아동 웰빙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아동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본 장에서 OECD의 아동 웰빙과 UN의 아동 권리 내용을 살펴본 결과, 두 개념은 모두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의 다각적인 측면을 지원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독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실제적인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OECD 아동친화동네는 지역사회를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건설함에 있어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와 자료를 활용하는 등 두 이니셔티브가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추진될 때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는 대부분 기초 지자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초 지자체가 이행 실적을 제출할 때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와 자료를 원을 기반으로 한다면 대표성 있는 양질의 자료를 기반으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OECD 아동친화동네의 자료는 권역 혹은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바, 실제적인 아동친화동네 구현을 위해서 OECD는 지역 단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의 세부 지역 단위 자료 개발은 국내 지자체 자료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도 고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제5절 소결

OECD 아동친화동네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 아동이 실제 생활하면서 직면하고 있는 근접 환경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단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지역 간 노정된 사회경제적 격차는 아동이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사회 전반에 걸친 격차와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줄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OECD 아동친화동네의 핵심적인 개념이다.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지역의 환경이 날로 열악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의 특징 중의 하나는 아동 웰빙이 가지고 있는 다차원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아동친화동네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인구 변화에 따라 가족 구성이 달라져서 새로운 가족 유형이 등장하고 있고, 디지털화가 수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아동 발달에 영향을 주며, 기후 변화로 인해 아동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서비스 공급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아동 정책에서 자연과 건축 환경 그리고 사회적 연계성까지 정책의 영역을 확장한 것은 현대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는 개인화와 심리적인 고립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와 OECD 아동친화동네가 연계되어 추진될 경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지표와 자료를 기반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평가 및 지역 간 비교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아동친화도시 사업이 실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추진되어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에 보다 기여할 것으로 본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유용한 자료들이 많이 수집되면, 국내 아동친화도시 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 비교 연구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해 본다. OECD가 제시한 지표 이외에도 아동친화동네의 모습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표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가용한 국내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비교를 위한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정교한 분석 방법론을 개발하여 우수한 비교 연구 성과를 도출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를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차원적인 특성을 가진 아동친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에 더 주목해야 하는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제3장

###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OECD 지역 데이터 베이스와 공간 구획 단위 설정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

제4절 소결



## 제 3 장

#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OECD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지역 아동친화 특성을 비교 고찰하고, 향후 아동친화적 특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본 연구의 기본적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주요 생활환경 현황에 대한 특수적, 종합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 생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전국적 및 지역적 실정을 고려한 정책 수요와 정책 공급 여건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및 관련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과 같이, 수도권(Seoul Metropolitan Area(SMA), Seoul Capital Region (SCR))과 비수도권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지역 간 아동친화 요인의 특성은 지역 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하게 관측될 개연성이 작지 않다. 구체적으로, OECD의 관련 자료에서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특광역시 지역[인구 50만 이상의 기능도시권역(functional urban area)]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 규모의 비중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OECD, 2020a). 이러한 특성은 한국의 관련 통계(통계청 집계자료)를 활용한 통시적 추세를 고려할 때 보다 심화되었을 개연성이 작지 않다. 2015년 이후 지역내 총생산(GRDP)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추월했고, 2020년 이후 인구 규모 추월 특성은 이러한 개연성을 직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는 OECD의 여느 국가와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가 수도권 서울을 비

못하여 광역시 같은 대도시권 중심의 도시 집중화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아동친화 특성 내지는 아동친화동네의 특성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아동친화동네의 특성은 권역 간 양극화 내지는 사회경제적 격차 심화 개연성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제2절 OECD 지역 데이터 베이스와 공간 구획 단위 설정

다음으로, 분석 자료와 방법을 포함한 본 장의 전반적인 구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과 관련한 본 장에서의 실증적 접근은 기본적으로 OECD 통계(OECD statistics) 내 지역, 농촌과 도시 개발 범주(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의 관련 자료를 활용한다. 이는 해당 자료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하여 일관된 기준하에서 체계적으로 구축된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는 약 60~70여 개의 사회정책 및 인구사회경제적, 집계적 특성의 세부 범주와 각 세부 범주별 세세부 범주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 내 지역/공간 단위(regional unit, spatial unit)는 각각의 세부 범주별로 다소 상이하다. <표 3-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OECD 통계(OECD statistics) 내 지역, 농촌과 도시 개발(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범주의 주요 자료 영역은 교통, 환경, 교육, 건강, 노동시장 등 경험적으로 이해되는 주요 사회정책 범주 이외에도 부양비, 인구 규모, 사망자 수 등의 주요 인구통계학적 특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세부 범주에는 세세부 범주 자

료도 구축되어 있는데, 가령, “Health care - Regions” 범주에는 의사 수, 실무 간호사 수, 병상 수, 퇴원 환자 수와 같이 네 개의 세부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Health statistics - Regions” 범주 내에는 활동 의사 수, 병상 수, 기대수명, 조사망률, 연령 표준화 사망률, 영아 사망률, 비만율 등의 13개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다만, 지역별 공간 단위와 관련하여, 범주별로 공간 구획 단위는 TL2, TL3, FUA 등이 혼재되어 적용되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OECD 국가의 모든 관련 자료를 일관성 있는 공간 단위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한계점에 기인하고 있을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각각의 공간 단위가 내포하는 특성에 따라 세부 자료의 영역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도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은 도시뿐 아니라 기능도시공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행정 구역을 넘어서는 통근권이라는 생활권을 바탕으로 집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표 3-1〉 OECD 통계(OECD statistics) 내 지역, 농촌과 도시 개발(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범주의 주요 자료 영역

항목 영문명	항목 국문명
Access to public transport - FUAs	대중교통 접근성 - 기능도시공간별
Adult training - Regions	성인교육 - 지역별
Aggregated municipal government finance	지방정부 재정
Aggregated subnational public employment	지역 단위 공공 노동시장
Air pollution - Cities and FUAs	대기오염 - 도시 및 기능도시공간별
Climate hazard statistics - Regions	기후 위험 통계 - 지역별
Deaths by 5-year age groups - Regions	5세 단위 연령대별 사망자 수 - 지역별
Demographic indicators by urban-rural typology	도시-농촌 유형별 인구통계학적 지표
Dependency ratio - Cities and FUAs	부양비 - 도시 및 기능도시공간별

항목 영문명	항목 국문명
Economic indicators by access to city typology	도시 유형에 따른 경제 집계 지표
Educational attainment - Regions	교육 수준 - 지역별
Employment by level of education - Regions	교육 수준별 고용 형태 - 지역별
Green areas - FUAs	녹지 공간 - 기능도시공간별
Health care - Regions	헬스케어 - 지역별
Health statistics - Regions	건강 통계 - 지역별
Income - Regions	소득 - 지역별
about indicators by access to city typology	도시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지표
Youth exclusion from education - Regions	교육에서의 청(소)년 배제 특성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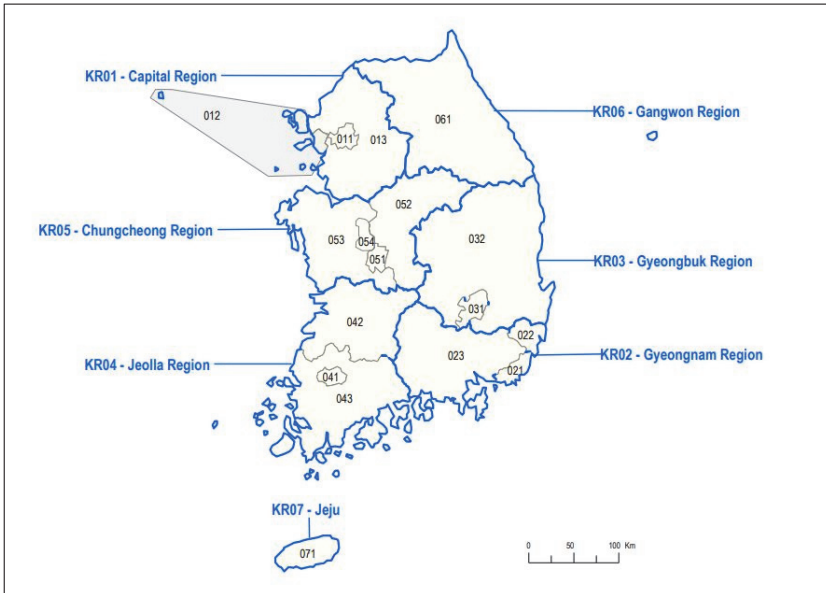
등 약 60~70개 항목

주: 지역별(Regions) 구분은 거의 대부분 TL2, TL3 구분 기준을 모두 적용한 자료를 모두 구축, 공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Data Explorer.

구체적으로, OECD에서 각각의 국가별 지역 특성을 비교하기 위한 지역 단위로서 TL2, TL3, FUA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각 세부 범주별로 지역 특성이 제시되고 있는데, OECD에 따르면, TL2는 보다 상위의 지역 구분 단위이고, TL3는 TL2보다는 하위의 지역 구분으로 해석할 수 있다(OECD, 2022). 이들 논의에 따르면, 대체로 두 개의 지역 구분은 OECD 국가의 행정 조직을 반영하는 두 가지 위계의 공간 구분 단위이며, 보다 세부적으로 TL2는 일국의 주(province) 같은 연방정부 계층을 의미하며, TL3는 소규모 지역으로서 호주, 캐나다, 미국처럼 영토가 상대적, 절대적으로 넓은 국가를 제외하였을 때, 일반적인 행정 구역에 해당한다(OECD, 2022). 이러한 구분은 동일한 영토 수준에서 지리적 단위의 비교 가능성 측면에서의 편의 제고를 포함하여, OECD 내 대부분 국가에서 지역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로 사용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OECD, 2022). 우리나라는 OECD(2022)가 제공하고 있는 자료에서 발췌한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TL2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경북권, 전라권, 경남권, 제주권의 7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TL3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단위인 17개 광역시도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추가로 FUA는 기능도시공간(Functional Urban Area)의 약자로서, 이 역시도 국가 간 도시 공간의 유형과 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통근 개념을 바탕으로 한 도시권역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3-1] TL2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공간 구획



출처: “OECD Territorial grids,”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2022, OECD, p. 33.

[그림 3-2] TL3 기준에 따른 우리나라 공간 구획

Territorial Levels 2 and 3	
TL2	7 Regions
TL3	17 Special city, metropolitan area and province
KR01	Capital Region
KR011	Seoul
KR012	Incheon
KR013	Gyeonggi-do
KR02	Gyeongnam Region
KR021	Busan
KR022	Ulsan
KR023	Gyeongsangnam-do
KR03	Gyeongbuk Region
KR031	Daegu
KR032	Gyeongsangbuk-do
KR04	Jeolla Region
KR041	Gwangju
KR042	Jeollabuk-do
KR043	Jeollanam-do
KR05	Chungcheong region
KR051	Daejeon
KR052	Chungcheongbuk-do
KR053	Chungcheongnam-do
KR054	Sejong
KR06	Gangwon Region
KR061	Gangwon-do
KR07	Jeju
KR071	Jeju-do

출처: “OECD Territorial grids,”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2022, OECD, p. 33.

기본적으로, 본 연구에서의 아동친화동네 특성의 국제 비교는 TL2 단위를 바탕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이견이 있을 개연성이 존재한다. TL2 단위는 우리나라의 광역시·도보다도 큰 상위의 개념으로서 권역을 의미하는데, 이 권역 내 차이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아동친화동네(child friendly neighborhood)라는 본 연구의 주제를 고려할 때, TL2는 동네의 개념보다는 권역의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미시적 단위에서의 동네 특성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흔히 동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읍면동 단위와 같이 소지역 격자 단위보다는 크지만, 가장 작은 행정구역 단위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TL2 단위를 국제 비교 분석의 공간적 단위로 고려한 이유는, 주요 비교 대상 국가 간 TL3 단위의 개수의 편차가 작지 않다는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TL3 기준은 우리나라로 한정할 때, 광역 지자체 단위의 행정 구역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100여 개 이상의 TL3가 존재하는 국가도 존재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 지역의 TL3는 우리나라의 광역 지자체 보다 작거나 클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를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광역 지자체의 구획은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 공급과 관련된 범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이 역시도 국가의 사회정치 체제나 기조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며, 동일한 TL3라도 각각의 기능적 특성이 다소 상이할 개연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TL3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추가로, 자료의 구득 가능성 등의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TL2 단위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요약하면, TL2는 아동친화동네라는 미시적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지역 특성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다는 목적에는 보다 부합하는 지역 구분 단위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아동친화동네 특성의 국제 비교는 우리나라와 7개 국가(의 TL2 단위)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비교 국가는 다음과 같이, 일본, 캐나다, 독일, 호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이다. 이들 국가는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아메리카에 고루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수준이 유사한 특징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상으로서 적절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향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어서도 상대적인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3-2〉 우리나라와 비교 분석 대상 국가의 TL2 단위의 수

국가	TL2 단위
한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등 7개 공간 단위
일본	도호쿠 등 10개 공간 단위
캐나다	온타리오 등 13개 공간 단위
독일	브레멘 등 15개 공간 단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등 8개 공간 단위
스웨덴	스톡홀름 등 8개 공간 단위
프랑스	일드프랑스 등 18개 공간 단위
이탈리아	롬바르디 등 21개 공간 단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

#### 1. 국가 및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 특성 고찰

먼저, 본 연구의 기본적인 정책 수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의 TL2 단위에서의 분포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의 아동은 OECD에서 적용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연령대인 0~14세(youth) 범주를 준용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유소년 인구 연령대와 정확하게 일치한다. 또한, 지역별 인구 규모가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국가 및 TL2 단위의 인구 규모 대비 비율로 정규화(normalization)한 수치를 기본적으로 활용한다. 즉, 지역 인구 규모 대비 0~14세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경우 상대적으로 아동친화 관련 정책 수요가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특정 국가 내에서만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해석에 대한 국가 간 비교는 국가적 인구변동 수준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올바른 비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간 비교는 국가 내

표준화된 지표를 산출하고, 이들 지표 수준을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각각의 분석 대상 국가에서 TL2 지역 단위로 아동인구 비율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때, 각각의 국가별 수치가 제공되는 기간이 상이하고, 종단적 특성을 관측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각 국가의 가장 최신 수치만을 제시한다. 종단적 특성은 대체적으로 모든 국가의 모든 지역에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각 인구 규모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어, 2022년 수치가 가장 최신 수치이다.

〈표 3-3〉 각각의 분석 대상 국가의 TL2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비율(2022년, 2023년 기준)

(단위: %)

국가	TL2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비율	기준연도
한국	Seoul Capital Area, TL2	11.02
	Gyeongnam Region, TL2	10.93
	Gyeongbuk Region, TL2	10.50
	Jeolla Region, TL2	10.91
	Chungcheong Region, TL2	11.84
	Gangwon Region, TL2	10.09
	Jeju, TL2	13.02
일본	Hokkaido, TL2	10.31
	Tohoku, TL2	10.70
	Northern-Kanto, Koshin, TL2	11.35
	Southern-Kanto, TL2	11.26
	Hokuriku, TL2	11.31
	Toukai, TL2	12.18
	Kansai region, TL2	11.61
	Chugoku, TL2	12.04
캐나다	Shikoku, TL2	11.22
	Kyushu, Okinawa, TL2	13.11
	Newfoundland and Labrador, TL2	12.73
	Prince Edward Island, TL2	14.37
	Nova Scotia, TL2	13.69
	New Brunswick, TL2	14.12
	Quebec, TL2	15.62
	Ontario, TL2	14.95

100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국가	TL2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비율	기준연도
	Manitoba, TL2	18.21
	Saskatchewan, TL2	19.09
	Alberta, TL2	18.01
	British Columbia, TL2	13.52
	Yukon, TL2	15.88
	Northwest Territories, TL2	19.21
	Nunavut, TL2	30.83
독일	Baden-Württemberg, TL2	14.48
	Bavaria, TL2	14.21
	Brandenburg, TL2	13.68
	Bremen, TL2	14.36
	Hamburg, TL2	14.58
	Hesse, TL2	14.38
	Mecklenburg-Vorpommern, TL2	13.05
	Lower Saxony, TL2	14.25
	North Rhine-Westphalia, TL2	14.37
	Rhineland-Palatinate, TL2	14.06
	Saarland, TL2	12.83
	Saxony, TL2	13.67
	Saxony-Anhalt, TL2	12.78
Schleswig-Holstein, TL2	13.67	
Thuringia, TL2	13.04	
호주	New South Wales, TL2	17.92
	Victoria, TL2	17.70
	Queensland, TL2	18.38
	South Australia, TL2	16.87
	Western Australia, TL2	18.64
	Tasmania, TL2	16.38
	Northern Territory, TL2	20.52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TL2	17.82	
스웨덴	Stockholm, TL2	17.89
	East Middle Sweden, TL2	17.42
	Småland with Islands, TL2	17.39
	South Sweden, TL2	17.75
	West Sweden, TL2	17.42
	North Middle Sweden, TL2	16.37
	Central Norrland, TL2	16.41
Upper Norrland, TL2	16.03	
프랑스	Île-de-France, TL2	18.59
	Centre-Val de Loire, TL2	16.88

국가	TL2 지역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비율	기준연도
프랑스	Bourgogne-Franche-Comté, TL2	16.13
	Normandy, TL2	16.97
	Hauts-de-France, TL2	18.32
	Grand Est, TL2	16.36
	Pays de la Loire, TL2	17.49
	Brittany, TL2	16.35
	Nouvelle-Aquitaine, TL2	15.29
	Occitanie, TL2	15.97
	Auvergne-Rhône-Alpes, TL2	17.48
	Provence-Alpes-Côte d'Azur, TL2	16.13
	Corsica, TL2	14.98
	Guadeloupe, TL2	16.89
	Martinique, TL2	15.34
	French Guiana, TL2	31.45
	La Réunion, TL2	21.49
	Mayotte, TL2	43.78
이탈리아	Piedmont, TL2	11.70
	Aosta Valley, TL2	12.12
	Liguria, TL2	10.66
	Lombardy, TL2	12.81
	Abruzzo, TL2	11.88
	Molise, TL2	10.78
	Campania, TL2	13.78
	Apulia, TL2	12.30
	Basilicata, TL2	11.27
	Calabria, TL2	12.83
	Sicily, TL2	13.29
	Sardinia, TL2	10.38
	Autonomous prov. Bolzano, TL2	15.38
	Autonomous prov. Trento, TL2	13.50
	Veneto, TL2	12.35
	Friuli-Venezia Giulia, TL2	11.34
	Emilia-Romagna, TL2	12.34
	Tuscany, TL2	11.58
Umbria, TL2	11.64	
Marche, TL2	11.84	
Lazio, TL2	1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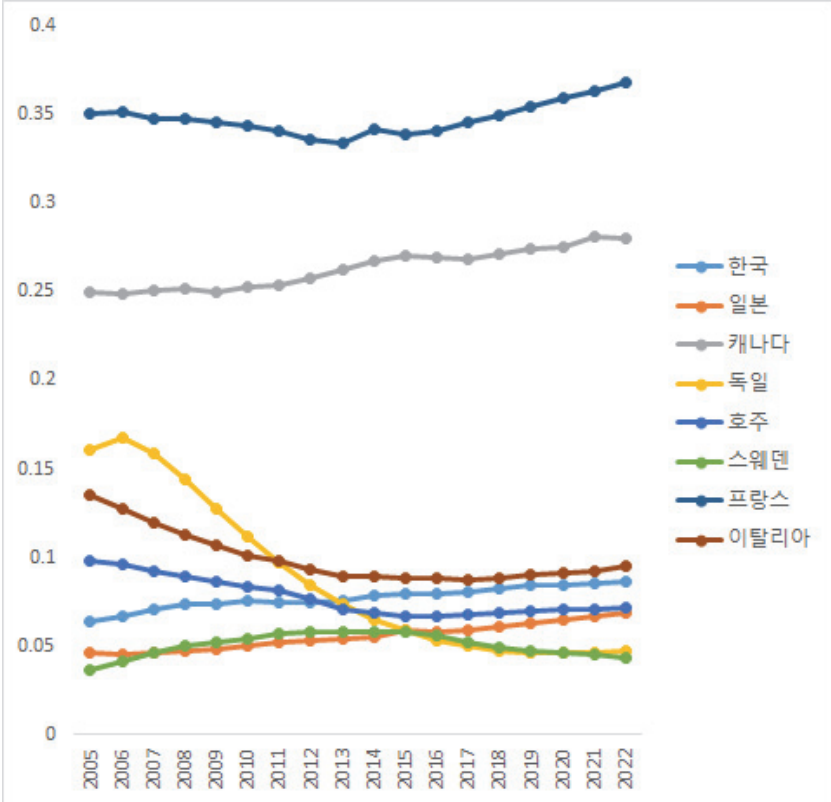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 그림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분석 대상 총 8개 국가의 TL2 단위에 서의 아동인구 비율의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국가 간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의 표준화된 지표로 변이계수를 활용하였는데, 이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서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로서, 평균치 내지는 측정 단위가 상이한 국가 간 관측 대상(아동인구 비율)의 분포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에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가령, 변이계수가 크다면, 평균 으로부터 흩어진 산포 정도가 더 높기 때문에 지역 간 차이가 보다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변이계수의 산출은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차이에 대하여 국가별로 표준화시켜 비교하기 위한 목적과 맞물려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8개 국가의 아동인구 비율을 보여주는 변이계수의 종단적 양상은 대략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대체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와 지속적인 증가 특성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한국, 일본, 캐나다, 스웨덴, 프랑스는 모든 국가의 표본을 확보할 수 있었던 2005~2022년의 기간 동안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가 대체적으로(기간 내 등락을 반복한 국가도 일부 존재) 증가한 반면, 독일, 호주, 이탈리아는 감소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측 기간 내 변이계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독일, 이탈리아, 호주는 각각 70.62%, 29.60%, 27.15% 감소하였고,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한국, 일본은 각각 5.15%, 12.08%, 17.76%, 34.07%, 48.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변이계수의 절대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하기 어렵지만, 관측 기간 내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아동인구 비율의 편중 현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경험적으로, 이는 젊은 층의 사회적 증감에 적지 않게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장인수 외, 2021), 지역의 아동친화 관련 정책 방향이 정책 수요에 보다 부합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상당

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3]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2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만, [그림 3-3]에서 보다 주목해야 할 특성 중 하나는 아동인구 비율 변이계수의 국가 간 격차가 비교적 크게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분석 대상 국가 중 해당 지표가 가장 큰 국가는 프랑스와 캐나다인데, 이 두 국가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해당 지표 수준이 뚜렷하게

높은 특징을 보인다.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격차가 큰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두 국가는 모두 통시적으로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격차가 보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탈리아 다음으로, 분석 대상 국가 중 네 번째로 변이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관측 기간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프랑스와 캐나다에 비하여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차이는 뚜렷하게 높지는 않지만,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차이가 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정책 대응 및 구체적인 사업 추진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절한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은 지역별 정책 수요를 고려한 정책 우선순위 설정, 이에 따른 예산 배분 결정, 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자원 활용과 관련된 논의를 두루 포함하고 있다.

〈표 3-4〉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 최신 수치  
(2022, 2023년 기준)

국가	지역 간 아동인구 비율의 변이계수	기준연도
한국	0.086481	2023년
일본	0.068475	2022년
캐나다	0.278328	2023년
독일	0.045988	2023년
호주	0.069379	2023년
스웨덴	0.041356	2023년
프랑스	0.373435	2023년
이탈리아	0.097232	2023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2. 아동친화동네 특성 변인 고찰

다음으로, 우리는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을 위하여 해당 변인을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을 고찰한다.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와 국제 기준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5개의 변인을 설정하였다. 이들 변인은 기본적으로 분석 대상의 모든 국가에 대한 표본 구득 가능성과 대표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것이며, 대체적으로는 OECD 아동친화동네의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를 준용한 것이다(OECD, 2021a; OECD, 2024). 먼저, 자연과 건축 환경 영역의 “공해 노출” 범주에서는 “Population exposure to PM2.5(이하 미세먼지 농도)” 변인을 활용한다. 이는 PM2.5 농도의 인구가중 평균(population-weighted average of PM2.5 concentr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고 해석하면 된다.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아동친화 관련 특성 중 자연과 건축 환경 영역에서는 아이들의 주거, 생활공간에 대하여,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쾌적하고 깨끗하게 조성된 환경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당 변인은 아동친화동네 특성으로서의 의미가 다분하다.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년실업률(youth unemployment rate),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per capita)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두 변인이 지역의 경제 발전 상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한 데 적지 않게 기인하고 있다. 특히, 아동 권리 증진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상기 변인은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 가능성과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지역 경제 발전과 대체적인 연관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보다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측면의 변인으로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active physicians per capita),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15 to 19 years Students enrolment) 변인을 구축하였다. 이는 아동에게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교육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는 데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표 3-5〉 아동친화 관련 특성 변인 구축

범주	변인
자연과 건축 환경	미세먼지 농도(Population exposure to PM2.5)
사회경제적 환경	청년실업률(youth unemployment rate)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per capita)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active physicians per capita)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15 to 19 years Students enrolment)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초 수준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데, 상관관계수 도출, 산점도 분석, 국가별 패널분석을 통한 계수 도출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변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본 장의 핵심적인 내용인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의 기본적 분석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표 3-6〉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 비교 분석 방법

구분	내용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분석 방법 2	산점도 분석
분석 방법 3	국가별 패널분석(계수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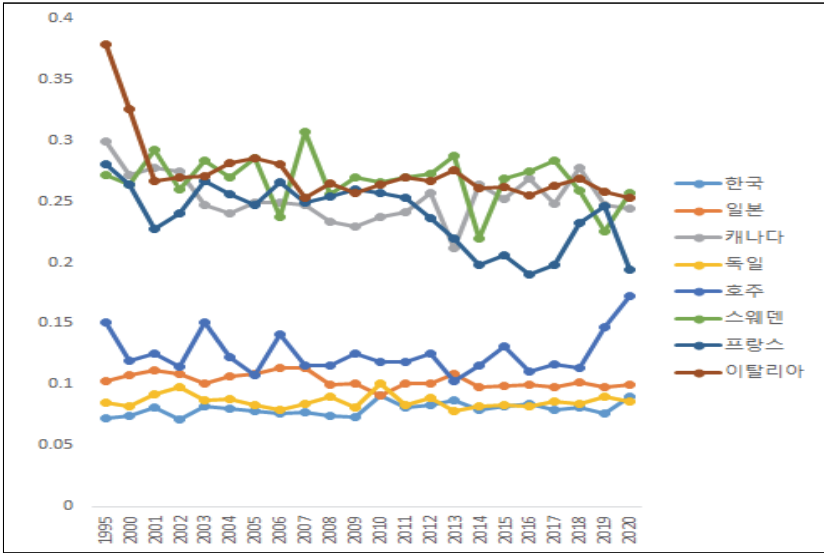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 3. 아동친화동네 특성과 아동인구 비율 간 연관성 분석

#### 가. 미세먼지 농도(Population exposure to PM2.5)

먼저, OECD에서 구축, 공표하고 있는 “Population exposure to PM2.5” 원시자료는 분석 대상 국가(TL2 단위)의 경우 모두 1995~2020년의 기간에 연간 자료(1995~2000년은 5년 단위)로 제공되고 있다. 이에 기간별 변이계수를 도출한 결과,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캐나다는 상대적으로 변이계수가 높고, 호주, 일본, 한국, 독일은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이 두 개의 그룹은 기간 간 변이계수가 대체로 상반된 추세를 보이는데, 전자인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경우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이, 후자의 경우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3-4]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미세먼지 농도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2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각각의 국가별 TL2 아동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간 연관성을 살펴본다.

먼저, 미세먼지 농도는 원시자료의 최신 수치가 국가별로 공통적으로 2020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각각의 분석 대상 국가 및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과의 연관성은 2020년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상관계수 도출은 각각의 국가별로 수행되는데, 이때 두 변인 기준 가장 최신 시계열인 2020년 기준 상관계수를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0.7482, 일본 0.6925, 캐나다 -0.3439, 독일 0.3236, 호주 0.1183, 스웨덴 0.8901, 프랑스 0.1881, 이탈리아 0.1630으로 도출되어, 부적(-) 상관관계가 도출된 국가는 우리나라와 캐나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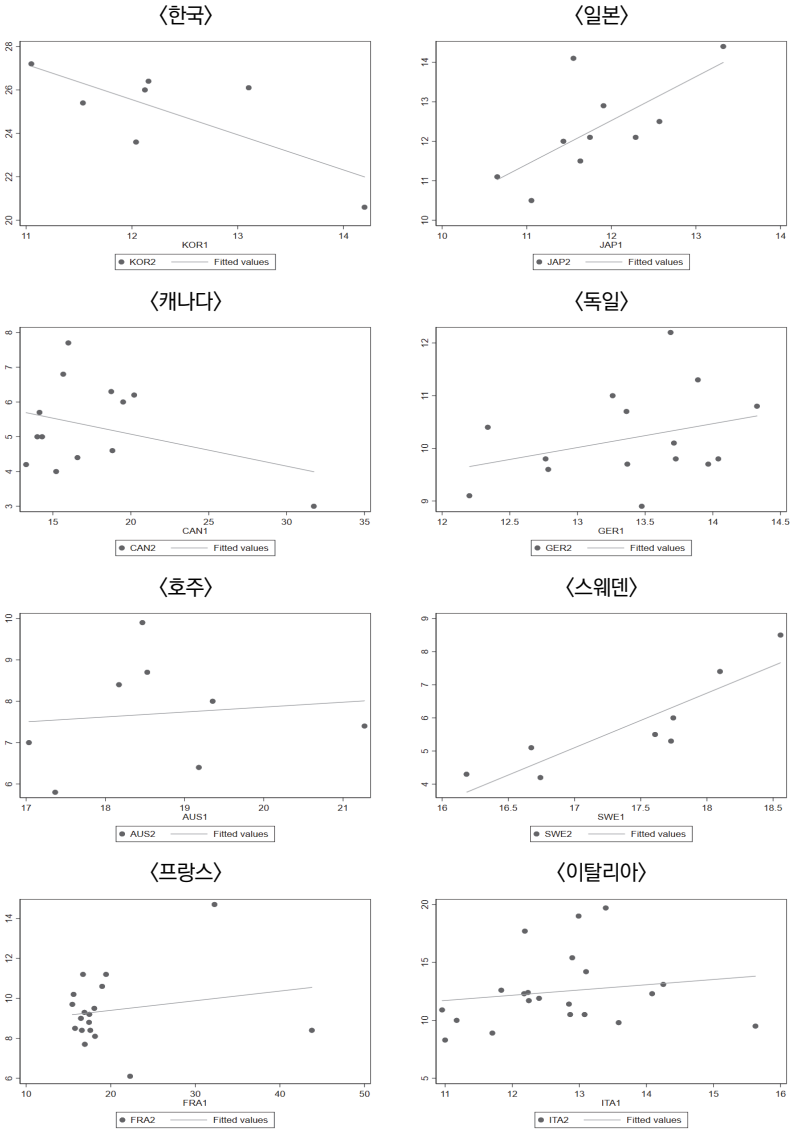
〈표 3-7〉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미세먼지 농도)

국가	상관계수	기준연도
한국	-0.7482	2020년
일본	0.6925	
캐나다	-0.3439	
독일	0.3236	
호주	0.1183	
스웨덴	0.8901	
프랑스	0.1881	
이탈리아	0.1630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이 두 국가는 2020년 기준,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이 높을수록 미세먼지 농도는 낮은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다른 여섯 개의 국가는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과 미세먼지 농도 간 정적 연관성을 띠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관계수의 부적(-)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가 낮은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대상 국가 중, 우리나라는 미세먼지 농도와 아동인구 비율 간 연관성 측면에서는 아동친화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다음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국가별 산점도와 핏라인(fit-line)을 통해서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의 절대적 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절대적 수준에서의 아동친화도 측면에서는 높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의 2020년 기준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25.0으로 독일 10.2, 스웨덴 5.8, 일본 12.3, 캐나다 5.3, 프랑스 9.4, 이탈리아 12.5, 호주 7.7 등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OECD Data Explorer, 2024).

[그림 3-5]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미세먼지 농도)



주: 국가별로  $x$  축이 아동인구 비율,  $y$  축이 미세먼지 농도를 의미하며, 직선은 추세선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기 특징은 전 국가적 아동친화동네 변인 특성의 절대적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인 간 연관성 분석 결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한국이 미세먼지 농도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아동인구 비율을 고려하였을 때, 아동친화적 특성이 관측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역별 비교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로 이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별 패널분석을 적용하여 도출된 계수값을 살펴본 결과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는 상관분석이 특정 연도를 횡단적으로 분석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패널분석에 따른 두 변인 간 연관성을 의미하는  $\beta$ (추정계수)는 앞에서 살펴본 상관계수 분석 결과와 대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은 관측 기간 내 두 변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연관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캐나다, 독일, 스웨덴, 프랑스, 이탈리아는 정적(+) 연관성이 도출되었다. 일본의 경우 상관계수와 패널분석의 추정계수가 서로 상반된 특성을 보이는데, 이는 횡단 및 종단 분석 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3-8〉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미세먼지 농도)

국가	$\beta$	P-val.	F-stat.	P-val.	region FE	분석 기간
한국(panel: A)	-.1589	0.000	25.52	0.000	Yes	2000~2020년
일본(panel: B)	-.5104	0.000	45.92	0.000	Yes	
캐나다(panel: C)	.4406	0.000	187.06	0.000	Yes	
독일(panel: D)	1.0861	0.000	92.50	0.000	Yes	
호주(panel: E)	-.0358	0.382	0.77	0.382	Yes	
스웨덴(panel: F)	.6069	0.000	21.90	0.000	Yes	
프랑스(panel: G)	.4661	0.000	20.40	0.000	Yes	
이탈리아(panel: H)	.7928	0.000	20.4	0.000	Yes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나. 청년실업률(youth unemployment rate)

다음으로, 청년실업률 변인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기 변인은 지역 노동 시장 특성을 포함하여 지역 경제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조금 더 확장하면 지역의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여건과도 맞물려 있는 변인이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해당 변인은 본 장에서 설정한 비교 국가의 TL2 단위에서의 수치가 누락치(missing value)가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는 한계점이 노정되었다.<sup>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기 언급한 논거에 주목하여 해당 변인을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비교 국가의 TL2 단위에서의 청년실업률 변이계수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변이계수가 크지 않은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지역 간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특징이 관측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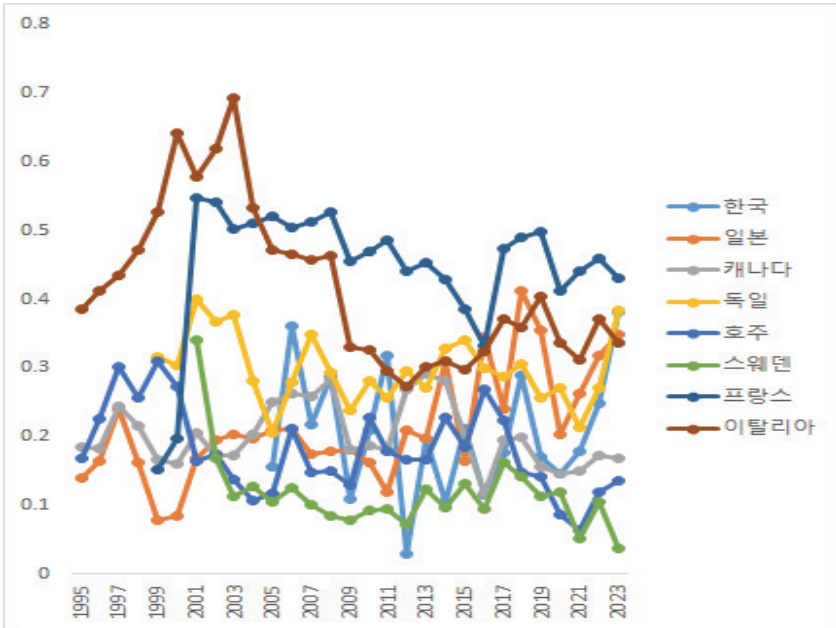
첫 번째 분석 방법인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0년을 기준으로, 각 지역 단위별 아동인구 비율과 청년실업률 간 상관계수를 도출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하여 뚜렷한 부적(-) 연관성이 도출되었다. 즉,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낮은 연관성이 관측된 것이다. 호주, 이탈리아,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적(-) 연관성이 도출된 반면, 스웨덴, 캐나다, 프랑스는 두 변인 간 정적(+) 연관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국가별 경향성은 하기 산점도 그림을 통해서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는 대체적으로 표본의 한계로 추정계수의 유의성이 확보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횡단 측면의 연관성 양상과는 일

7) 아동친화 특성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인 중 적지 않은 변인의 원시자료의 경우 상기 결측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부 국가에서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가령, 일본 등).

[그림 3-6]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청년실업률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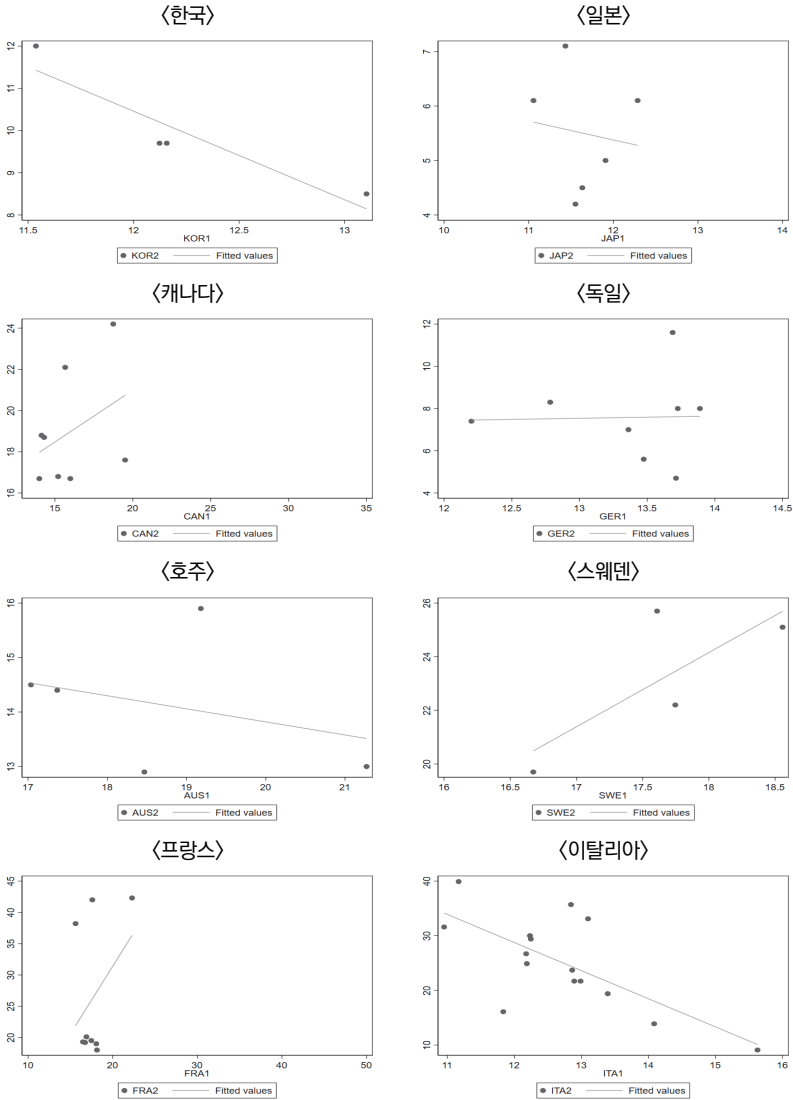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청년실업률)

국가	상관계수	기준연도
한국	-0.928385	2020년
일본	-0.130205	
캐나다	0.3800126	
독일	0.0294516	
호주	-0.327691	
스웨덴	0.7689901	
프랑스	0.3769434	
이탈리아	-0.696707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7]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청년실업률)



주: 국가별로  $x$  축이 아동친구 비율,  $y$  축이 청년실업률을 의미하며, 직선은 추세선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0〉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청년실업률)

국가	$\beta$	P-val.	F-stat.	P-val.	region FE	분석 기간
한국(panel: A)	.0902	0.580	0.31	0.5800	Yes	2005~2020년
일본(panel: B)	.2467	0.000	82.25	0.0000	Yes	
캐나다(panel: C)	.0219	0.289	1.13	0.2886	Yes	
독일(panel: D)	-.0056	0.819	0.05	0.8186	Yes	
호주(panel: E)	-.0332	0.413	0.68	0.4133	Yes	
스웨덴(panel: F)	-.0541	0.007	7.82	0.0067	Yes	
프랑스(panel: G)	.1547	0.000	136.18	0.0000	Yes	
이탈리아(panel: H)	.0174	0.000	15.80	0.0001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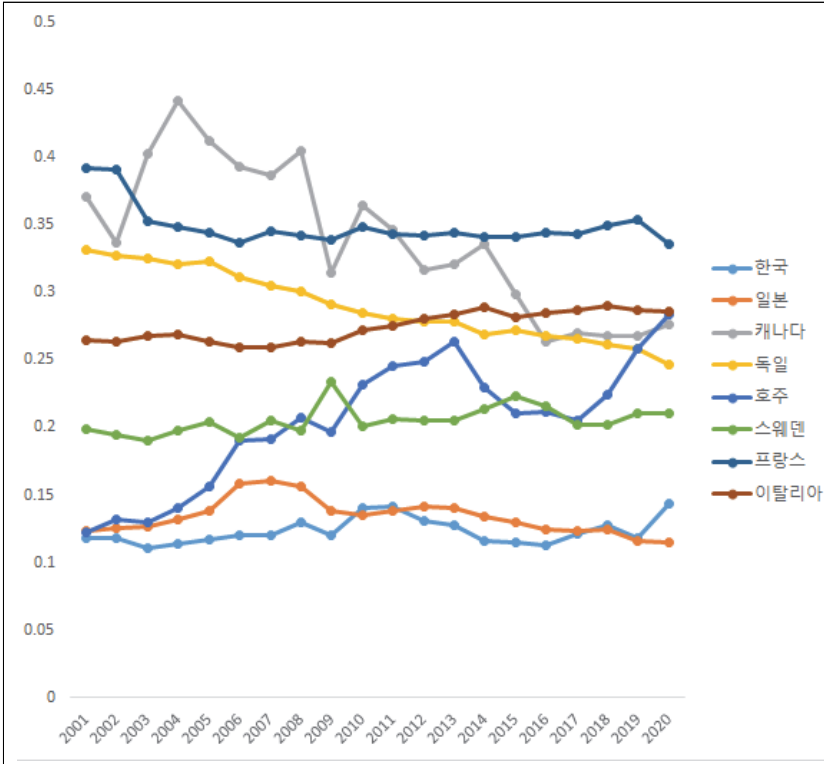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지역 경제력을 직접적으로 대리함과 동시에 지역의 아동 관련 정책 추진 여건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변인으로 판단하였다.

먼저,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이계수의 추세적 특징은 국가 간 일정한 격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변이계수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구분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와 프랑스는 변이계수가 큰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은 변이계수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8]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의 변이계수 추세(2005~2020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상관계수 및 산점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우 아동인구 비율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 간 정적(+) 연관성이 관측되었으며, 다만, 이러한 정적 연관성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캐나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는 정적 연관성의 정도가 높은 반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에는 정적 연관성이 크게 낮은 특징(연관성의 정도가 미미)이 도출되었다. 종단적 측면에서의

분석인 패널고정효과 모형 적용에 의하여 도출된 추정계수는 대체적으로 부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3-11〉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국가	상관계수	기준연도
한국	0.0576	2020년
일본	0.0044	
캐나다	0.8005	
독일	0.7554	
호주	0.6018	
스웨덴	0.5330	
프랑스	-0.5523	
이탈리아	0.40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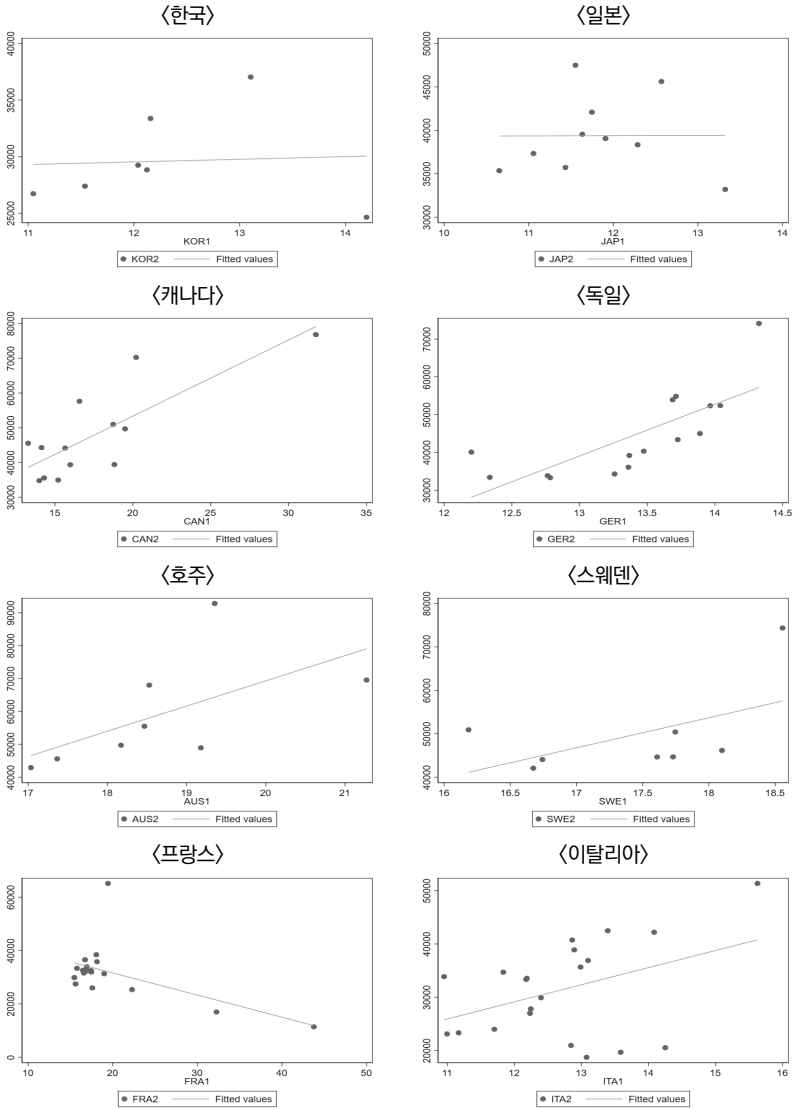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2〉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국가	$\beta$	P-val.	F-stat.	P-val.	region FE	분석 기간
한국(panel: A)	-.0005	0.000	530.11	0.0000	Yes	2005~2020년
일본(panel: B)	-.00002	0.025	5.11	0.0253	Yes	
캐나다(panel: C)	-.00002	0.000	30.27	0.0000	Yes	
독일(panel: D)	.00001	0.131	2.29	0.1310	Yes	
호주(panel: E)	-.00002	0.000	55.61	0.0000	Yes	
스웨덴(panel: F)	-.00002	0.000	6.95	0.0094	Yes	
프랑스(panel: G)	-.00003	0.063	3.48	0.0632	Yes	
이탈리아(panel: H)	.00004	0.000	13.89	0.0002	Yes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9]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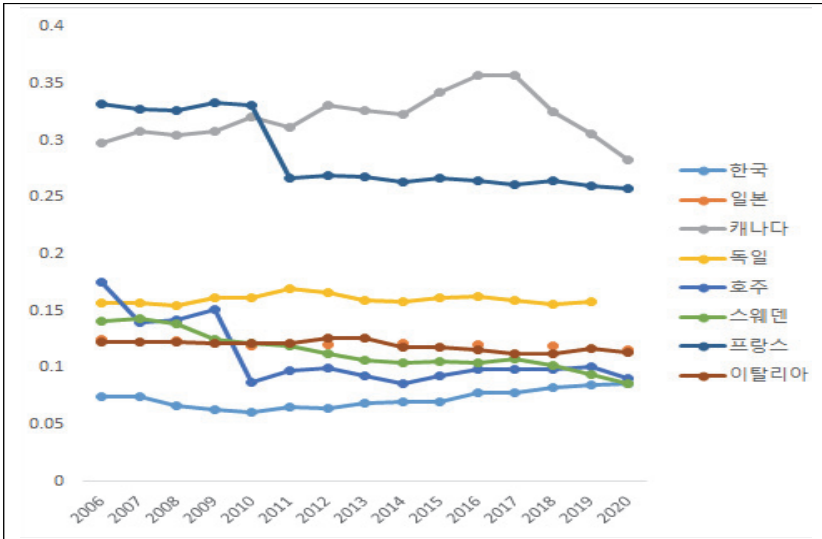
주:  $x$  축이 아동인구 비율,  $y$  축이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의미하며, 직선은 추세선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라.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active physicians per capita)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교 국가의 TL2 단위에서의 활동 의사 수를 지역 인구 1,000명으로 환산한 수치로 정규화(normalization)하였으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것은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측면의 주요 변인으로 아동의 삶의 질, 건강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 관련 인적 자원의 지역 특징을 반영한다.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의 변이계수 추세를 살펴본 결과, 캐나다와 프랑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3-10]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의 변이계수 추세 (2005~2020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상관분석과 산점도 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는 두 변인 간 부적(-) 연관성이 도출된 반면, 일본, 독일, 호주, 스웨덴은 정적(+) 연관성이 도출되었다.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 결과는 스웨덴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경우 두 변인 간 부적(-) 연관성이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부적(-) 연관성의 크기(magnitude)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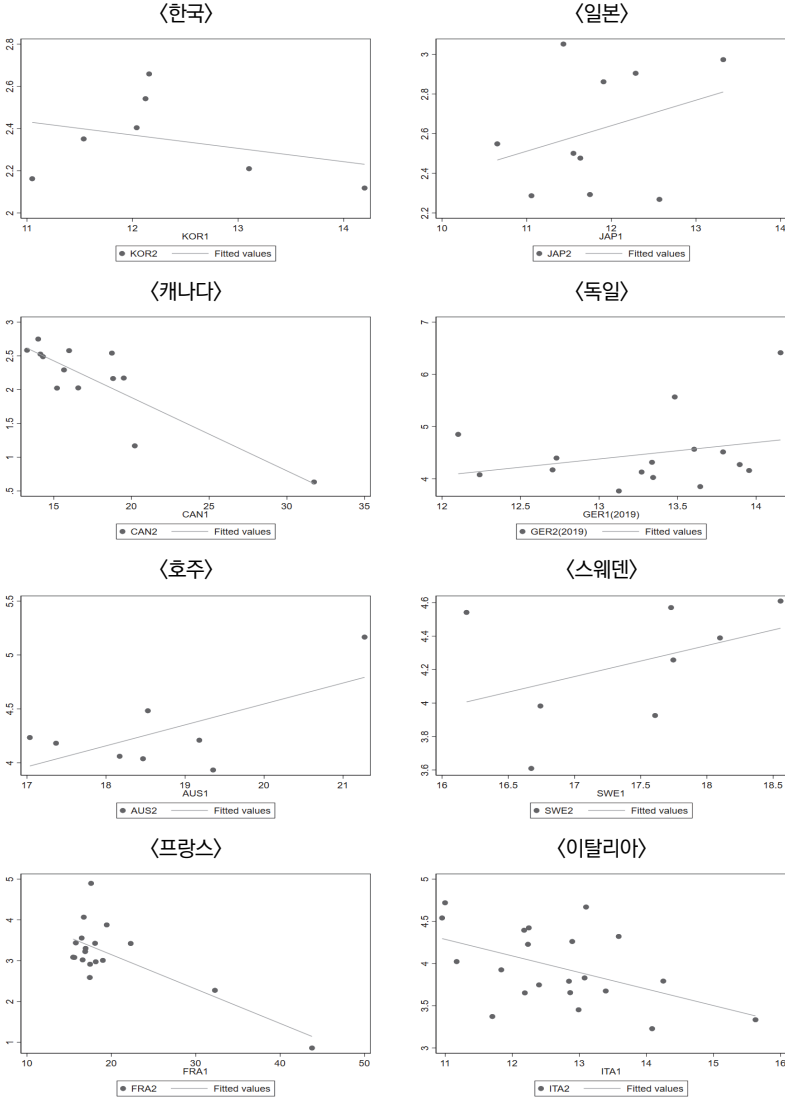
〈표 3-13〉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국가	상관계수	기준연도
한국	-0.3261	2020년
일본	0.3232	
캐나다	-0.8621	
독일	0.2794	
호주	0.6552	
스웨덴	0.4119	
프랑스	-0.7353	
이탈리아	-0.4949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1]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주: 국가별로  $x$ 축이 아동인구 비율,  $y$ 축이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수를 의미하며, 직선은 추세선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4〉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국가	$\beta$	P-val.	F-stat.	P-val.	region FE	분석 기간
한국(panel: A)	-8.7674	0.000	1973.40	0.0000	Yes	2005~2020년
일본(panel: B)	-3.6823	0.000	877.41	0.0000	Yes	
캐나다(panel: C)	-1.6756	0.000	66.98	0.0000	Yes	
독일(panel: D)	.1226	0.361	0.84	0.3612	Yes	
호주(panel: E)	-1.1550	0.000	188.60	0.0000	Yes	
스웨덴(panel: F)	.6186	0.000	27.21	0.0000	Yes	
프랑스(panel: G)	-5.9822	0.000	599.89	0.0000	Yes	
이탈리아(panel: H)	-2.8939	0.000	306.00	0.0000	Yes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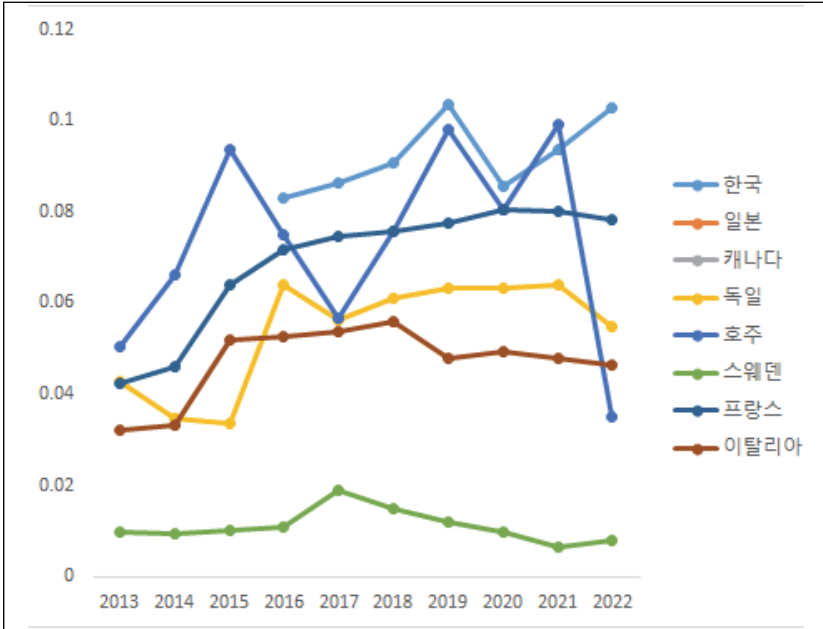
### 마.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15 to 19 years Students enrolment)

15~19세 취학률은 우리나라 기준 고등학교 취학률을 의미하는 변인으로,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측면의 주요 특징 중 아동의 교육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교육 서비스의 지역 특징을 반영하는 변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변인은 중요하고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국가 중 일본과 캐나다에 대한 원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두 국가를 제외한 다른 5개 국가와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그림 3-1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의 지역 간 고등학교 취학률 변이계수는 비교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계수와 산점도 특징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의 경우 대체적으로 두 변인 간 부적(-)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패널고정효과 모형의 추정계수는 횡단 측면의 연관성과는 상반된 특성이 나타났다.

[그림 3-12] 한국과 비교 국가의 TL2 지역 간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의 변이계수 추세 (2013~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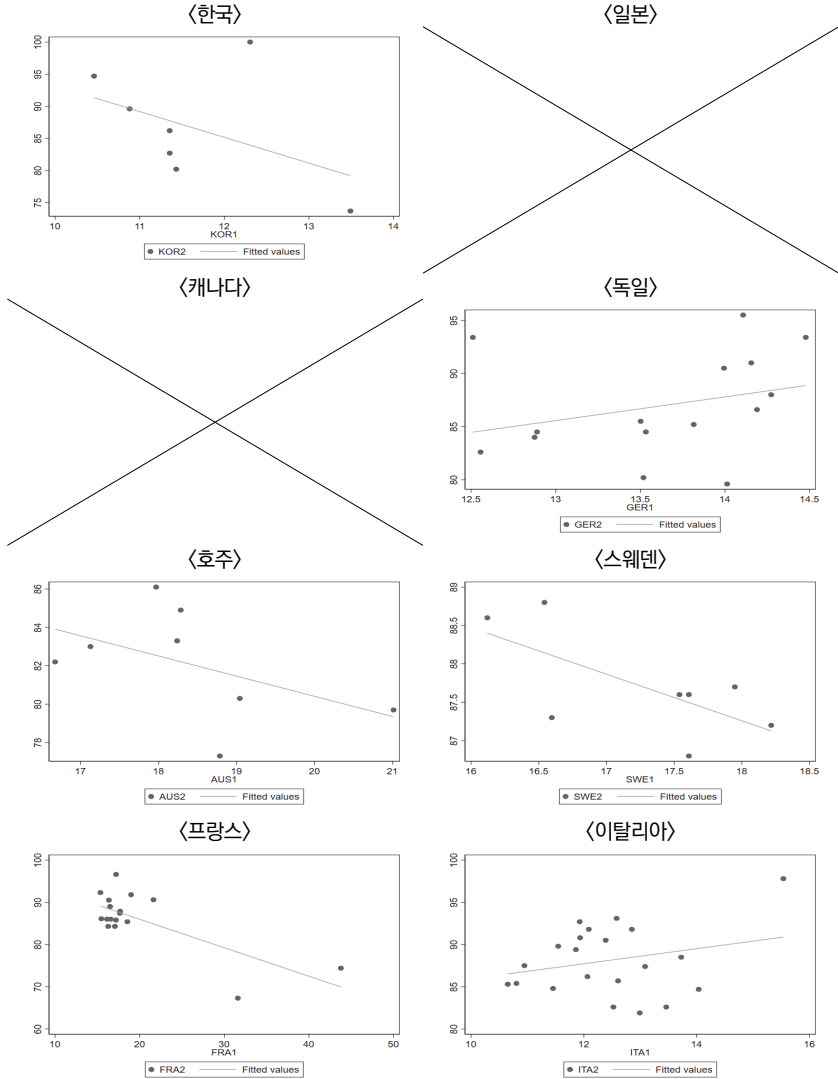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5> 분석 방법 1: 상관분석 결과(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국가	상관계수	기준연도
한국	-0.4513	2022년
일본	-	
캐나다	-	
독일	0.2956	
호주	-0.4818	
스웨덴	-0.6690	
프랑스	-0.7256	
이탈리아	0.2531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3] 분석 방법 2: 국가별 두 변인 간 연관성 도식(2020년 기준)(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주: 국가별로  $x$  축이 아동인구 비율,  $y$  축이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을 의미하며, 직선은 추세선임.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6〉 분석 방법 3: 패널분석 결과(15~19세(고등학교) 취학률)

국가	$\beta$	P-val.	F-stat.	P-val.	region FE	분석 기간
한국(panel: A)	.2262	0.000	18.89	0.0001	Yes	2016~2022년
일본(panel: B)	-				Yes	
캐나다(panel: C)	-				Yes	
독일(panel: D)	-.0553	0.000	14.14	0.0000	Yes	
호주(panel: E)	.0013	0.911	0.01	0.9114	Yes	
스웨덴(panel: F)	.1050	0.000	32.78	0.0000	Yes	
프랑스(panel: G)	-.1729	0.000	41.54	0.0000	Yes	
이탈리아(panel: H)	-.0643	0.000	113.68	0.0000	Yes	

출처: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OECD Data Explorer, 2024,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아동친화동네 특성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하고 향후 정책 개선 방안 및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세 가지 범주를 준용하고 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여러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섯 가지 아동친화 특성 변인을 구축하여, 아동 비율과의 연관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 구축한 다섯 가지의 아동친화 특성 변인은 자연과 건축 환경의 미세먼지 농도, 사회경제적 환경의 청년실업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내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15~19세 고등학교 취학률로 구성하였다. 이들 변인은 앞에서 살펴본 OECD 통계 내 지역, 농촌과 도시 개발 자료 내 관련 범주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7개 비교 국가의 TL2 단위의 자료를 구축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기본적으로 기초 수준의 통계 분석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별 TL2 단위의 아동인구 비율과 각각의 변인 간 상관계수 도출 및 산점도 구현,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한 추정계수 도출 방식이 바로 그것이다.

주요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는 특정 변인과 지역의 아동인구 비율 간 부적 연관성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령,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실업률이 낮은 양상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국가의 경향성과 비교할 때 그 특징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위 상대적 특성으로도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반면, 단위인구당 활동 의사 수,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과 아동인구 비율 간에는 부적(-) 연관성이 나타나고 있으며, 상대적 경향성 역시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 및 교육 등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변인은 개선 방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단위 인구당 활동 의사 수, 15~19세(고등학교) 취학률은 각각 작고,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우리나라 TL2 단위에서의 아동인구 특성에 대응하는 상기 변인의 지역 간 공급 및 불균형 특성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동인구 비율이 단순히 지역의 0~14세 연령대의 인구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들 연령대의 정책 수요를 집계적으로 보여주는 변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상기하면,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아동친화 특성은 이들의 정책 수요와 정적(+) 연관성을 형성하여야 할 필요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수행한 실증분석의 한계점은 국제 비교가 가능한 수준에서

의 여러 정합성을 고려한 자료 구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실증분석에서 고려한 다섯 가지 변인 이외에 아동친화 특성을 보다 다양하게 구축할 필요성이 다분하지만, 원시자료 미구축으로 구축 가능성이 낮아 활용하지 못한 변인이 적지 않다. 아동친화동네 비교 분석을 수행한다면, 우리나라의 광역시도 단위 내지는 시군구 단위 보다는 읍면동 단위 내지는 소지역 격자 단위로 비교 분석 및 논의를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자료의 구축 가능성 및 동일한 위계에서의 비교 분석 가능성이 공통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TL2 단위에서의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 점이 바로 본 실증분석의 한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별 TL2 단위의 수가 국가별 면적이나 인구 규모 등의 특징을 포함하여 행정 구역 설정 기준 등이 상이한 데 따라 각기 다른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경향성을 유의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 다만, 본 장의 실증분석 결과는 OECD 아동친화동네 국제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여러 기초 방법을 적용한 시초적 결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자료 구축 및 활용 가능성이 개선되어 보다 다양한 변인을 활용한 국제 비교 분석이 더욱 폭넓게 수행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 제4장

### OECD 아동친화동네 한국 자료 현황 분석

제1절 서론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자료 현황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현황 비교 분석

제4절 소결



## 제4장

# OECD 아동친화동네 한국 자료 현황 분석

### 제1절 서론

본 장에서는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 지표를 중심으로 한국 자료 현황을 살펴보고 지표별로 가능한 한국 자료를 구축한다. 이 자료를 기초로 국내 아동친화동네 현황과 지역 간 차이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라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아동이 직면한 지역의 환경과 지역 간 격차를 파악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의 지표를 중심으로 국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아동이 직면한 지역 현황 및 지역 간 격차를 살펴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 구축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필요하다.

첫째, 국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더 심화될 수 있다.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 보육 및 교육 시설 등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해당 지역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 환경이 열악해질수록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아질 수 있으며 이는 인구 집중에 따라 환경오염을 심화시키는 동시에 대도시에서의 과도한 경쟁을 부추겨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서로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의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기 위해

서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간의 격차를 파악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지역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 소멸을 막고 지역의 고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친화동네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국내 자료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 지역 간 비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지표의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출산율이 적정하게 유지되는 국가의 아동친화 환경 현황과 지역 간 격차를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회원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 정책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신력 있는 지표와 자료들을 생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OECD 회원 국가 간의 국제 비교를 통해 아동친화동네 구축을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OECD의 표준에 부합하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한국 자료를 생산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본 장에서는 OECD가 영역별로 제시한 지표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국내 자료를 검토하고, 그와 관련성 있는 국내 지표와 자료도 함께 소개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아동친화동네 특성의 지역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지역 간의 격차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동네의 주요 특성별로 지역별 점수를 산출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동네”를 측정할 수 있는 지역 단위를 17개 광역 지자체로 하였다. 아동의 일상적인 생활 범위는 광역 단위보다 훨씬 좁기 때문에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실제 환경은 광역 단위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

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영역별로 아동과 가족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지리적 단위의 동네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OECD도 지적하였듯이, 세부적인 단위의 지역 자료가 불충분하고 자료 수집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광역 단위의 자료는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의 대략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대리 변수(proxy)”로서 유용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통계 자료는 통계청 KOSIS 및 관련 행정 부처가 공개하는 공식적인 집계 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하였다. 제공되고 있는 자료가 지표의 정의에 맞는 경우는 제공되는 자료 그대로 사용하고, 인구 비중, 인구 천 명당의 수치와 같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기초로 연구진이 추가적인 작업을 하여 제공하였다.

이 밖에도 아동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내 조사 자료 중에서 OECD 아동친화동네의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함께 소개하였다. 이러한 국내 조사들은 전국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지역 변수가 제공되지 않거나 지역별 자료를 생산하기에는 충분한 지역 내 샘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서 대표성 있는 지역 자료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조사 항목을 소개한다. 향후에는 지역별로 충분한 샘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지역 변수를 제공하여 지역 자료의 산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검토한 국내 조사 자료는 2022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2021년 「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2021년 「아동종합실태조사」, 2020년 「청소년 주거권 실태」, 2019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2022년 「한국청소년패널조사」, 2021년 「한국아동패널조사」, 2018년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이다.

## 제2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자료 현황

### 1. 자연과 건축 환경

#### 가. 자연

자연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녹지, 공해 노출, 기후 회복력이다. 녹지와 관련된 지표는 “녹지 비중,” “녹지 규모,” “거주지에서 녹지까지 거리,” “녹지까지 도보 가능성”이다.

녹지 비중은 “인구 1명당 녹지 면적(평방미터)”으로 산출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지적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 면적<sup>8)</sup>을 계산한 후 전체 면적에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녹지 면적으로 보았다. 녹지 면적을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1인당 녹지 면적을 산출하였다. “인구 1명당 녹지 면적(평방미터)”은 녹지 비중 지표를 측정하는 데 적합한 데이터로 판단하였다.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도 녹지 비중을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도시계획현황」 자료가 제공하는 도시자연공원, 국가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 공원, 역사 공원, 문화공원, 수변 공원, 묘지 공원, 체육 공원 등의 면적을 합하여 지자체 인구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통계청 「사회조사」가 제공하는 “주관적인 녹지환경 상태”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녹지 면적이나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지만 주관적인 판단하에서 광역 지자체의 녹지환경 상태를 반영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8)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대지, 공장 부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등 시가지 조성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면적이다.

거주지에서 녹지까지 거리와 녹지까지 도보 가능성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 거리”와 “주제공원 평균 접근 거리”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생활권공원과 주제 공원은 전체 녹지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녹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녹지까지의 거리와 녹지까지 도보 가능성을 일부 반영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보았다.

공해 노출에 대한 지표는 “공해”와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이다. 공해와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은 환경부의 「환경통계포털」이 제공하는 “연평균 환산 미세먼지 PM 노출”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제공하는 “현재 체감 환경<sup>9)</sup>”은 주관적인 평가이기는 하지만 지역의 공해와 환경 독소 정도를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기후 회복력에 대한 지표는 “기후 관련 위험 노출”이며 이에 대하여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단위의 자료원은 찾지 못했다.

국내 조사 자료에서 녹지에 대한 항목을 포함한 조사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부모」가 “자연 환경(공원, 녹지 등)이 도보로 2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라는 항목을 포함한 것이 유일하다. 본 연구가 탐색한 다른 국내 조사에서는 녹지와 관련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공해 노출과 기후 회복력에 대한 조사 항목도 검토한 모든 조사에 설문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놀이터 및 지역사회 공간에 대해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부모」에 “놀이터가 창의적 및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에 “동네에 놀이 혹은 여가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충분”한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 여기에는 대기 상태, 하천 상태, 토양 상태, 소음·진동 상태, 빛 공해 상태, 전반적 생활 환경 상태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가 포함된다.

〈표 4-1〉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자연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자연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지 비중</li> <li>• 녹지 규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명당 녹지 면적(평방미터) -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지적통계」, 국토교통부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 「도시계획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적인 녹지환경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 환경(녹지환경,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주지에서 녹지까지 거리</li> <li>• 녹지까지 도보 가능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 거리 - 생활권공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제공원 평균 접근 거리 - 주제공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평균 환산 미세먼지 PM 2.5 노출 - 「대기오염도현황」, 환경부</li> </ul>	○	
공해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해</li> <li>• 환경 독소에 대한 노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체감환경(대기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대기,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현재 체감환경(하천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하천,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현재 체감환경(토양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토양,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현재 체감환경(소음·진동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소음·진동,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현재 체감환경(빛 공해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빛 공해,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현재 체감환경(전반적 생활환경 상태) 보통 이상 - 현재 체감환경(전반적인 생활환경, 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ul>	△	
기후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 관련 위험 노출</li> </ul>		×	

출처: 저자 작성.



## 나.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교통 안전, 교통 효과성, 지역 환경 청결도이다. OECD는 교통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교통사고 부상”과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제시하였다. 교통 안전에 해당하는 지표인 교통사고 부상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한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자동차 천 대당)”도 적합한 자료로 생각된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는 적합한 국내 자료원을 찾지 못했다.

교통 효과성과 관련한 지표인 “여러 정거장/출퇴근 및 환승”을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인터체인지, 고속·고속화 철도, 주차장이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경우 교통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가 제공하는 “IC 평균 접근 거리,” “고속·고속화 철도 평균 접근 거리,” “주차장 평균 접근 거리” 자료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을 통해서 관심 장소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가 제공하는 보건 시설(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문화 시설(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 녹지(생활공원, 주제 공원)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 환경 청결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를 찾지 못했다.

국내 조사 자료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이 “안전모 착용” 여부와 “승용차 탑승 시 안전벨트 착용 여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교통 안전과 관련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통 효과성에 대해서 「아동종합실태조사: 부모」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이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이용 가능”한지, 그리고 “걸어서 10분 거리에 버스 정류장 혹은 전철역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다. 지역환경 청결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에서 “거주 동네 환경”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다.

〈표 4-2〉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도로·교통지역·대중교통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도로, 교통 지역, 대중 교통	교통 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부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청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li> <li>• 교통사고 발생 건수(자동차 천 대당) - 자동차 천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한 자전거 도로</li> </ul>		×
	교통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러 정거장/출퇴근 및 환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C 평균 접근 거리 - IC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고속·고속화 철도 평균 접근 거리 - 고속·고속화 철도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주차장 평균 접근 거리 - 주차장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 자가용을 통해서 관심 장소(학교, 병원, 오락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기관으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보건기관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의원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li> </ul>	○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녹지)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p>(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의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병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종합병원으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종합병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응급의료시설으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약국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약국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어린이집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인구 비율 - 어린이집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유치원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영유아인구 비율 - 유치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초등학교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초등학교인구 비율 - 초등학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공연문화 시설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공연문화 시설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공공체육 시설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공공체육 시설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li> </ul>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지리정보원 •도서관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도서관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생활권공원으로부터 도보 이동 10분 거리(750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생활권 공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주제 공원으로부터 차량 이동 20분 거리(10km)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 생활권 공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지역환경 청결도	-		x

출처: 저자 작성.

## 다. 주거

주거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주거의 질과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이다. 주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주거 밀집도”와 “불결한 주거 환경”이다. 주거 밀집도는 통계청의 「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택당 거주 인원수”로 측정할 수 있다. 「주택총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주택당 방 수를 주택당 거주인 수로 나눈 “1인당 방 수”도 주거 밀집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불결한 주거 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에 대한 지표는 “거주 불안정”과 “주택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자료는 찾지 못했다.

집계 자료를 통해서 주거 환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국내 조사들은 주거 환경에 대해 상당 부분 자세한 설문

을 하고 있다. 주거 밀집도와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거실태조사」는 청소년이 “방을 혼자 사용하고 있는가 여부”를 질문하고 있으며, 「한국아동패널(보호자)」은 “아동의 개별 방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불결한 주거 환경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주거실태조사」가 “부엌, 화장실 및 욕실”이 설치되어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사들이 “입주 형태,” “주택 종류(가계금융복지조사),” “주택의 소유 형태(보육실태조사: 가구),” “집의 유형,” “집 점유 상태,” “거주하는 집 형태(아동종합실태조사,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를 조사하고 있어서 이러한 설문 문항을 활용하여 거주 불안정성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 비용과 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는 “집의 가격,” “지불하는 월세액”을 조사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조사」는 “집세 부담으로 이사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조사 항목을 활용하여 주택 비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 4-3〉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주거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주거	주거의 질	•주거 밀집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당 거주 인원수 -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 수별 주택, 「주택총조사」, 통계청</li> <li>• 1인당 방 수-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 수별 주택, 「주택총조사」, 통계청</li> </ul>	○
		•불결한 주거 환경(주요 설비 부재, 심하게 어두운 실내, 실내 습기, 곰팡이, 추위, 납 등 환경 독성 물질)		×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주 불안정</li> <li>•주택 비용</li> </ul>		×

출처: 저자 작성.

## 라. 기술 인프라

OECD는 기술 인프라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을 인터넷 접근성으로 보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광대역 접속”을 제시하였다. “광대역 접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유선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무선랜 접속 가구 비율,” “모바일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 TV, 태블릿 PC 등 정보화 기기 보유 상태도 광대역 접속을 측정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을 통해 아동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화 기기 보유 여부는 온라인 학습에 대한 아동의 접근성을 측정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 자료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 부모」와 「청소년의 주거권실태조사」가 “인터넷 연결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표 4-4〉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자연과 건축 환경의 주요 특징: 기술 인프라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기술 인프라	인터넷 성 접근	●광대역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유선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무선랜 접속 가구 비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li> <li>• 모바일 인터넷 접속 가구 비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li> </ul>	○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정보통신부 •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보유 가구 비율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데스크탑)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노트북)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스마트 TV)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태블릿 PC) -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출처: 저자 작성.

## 2. 사회경제적 환경

### 가. 인구사회학적 구성

인구사회학적 구성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이다. 사회경제적 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동네 빈곤,”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 “한부모가족 빈도”가 포함된다. 국내에서 “동네 빈곤”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별 빈곤율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을 통해 동네 빈곤 상태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은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이 제공하는 지역별 기초생활 수급자 수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인구로 나누어 산출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비중”은 통계청 「인구총조사」의 “고등학교 졸업 이

하 비중” 혹은 “대학교 졸업 이상 비중”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한부모 가족 빈도”는 가능한 지역 자료를 찾지 못했다.

경제적 연계성과 관련한 지표에는 “동네 영향력,”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 연계”가 포함된다. 두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어느 정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내 자료는 부재한 실정이다. 그 대안으로 동네에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 비중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역의 경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경제적 연계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sup>10)</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 「지역 소득」이 제공하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1인당 지역총소득,” “1인당 개인소득,” 그리고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복지조사」가 제공하는 가구당 경상소득, 가구당 자산, 가구당 부채, 가구당 순자산액을 통해 동네 영향력과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고용률”과 “실업률,” 그리고 통계청 「사회조사」가 제공하는 주관적인 소득 상태도 동네 영향력과 상위 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사회경제적 구성과 관련하여 가구 소득을 질문하는 조사 자료는 「한국 아동패널(보호자)」이 유일하다.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은 대부분의 조사가 “가구주의 교육 정도,” “부모의 학력”을 파악하고 있어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한부모 가족 빈도에 대해서는 「가계금융복

10) 하지만 동네에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이 많이 거주한다고 해서 반드시 연계가 잘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 아동)」가 “한부모 가족 여부” 혹은 “한부모 차상위”를 질문하고 있다. 조사 항목에 포함한 부모의 “혼인 상태,” “가족 유형,” “결혼 상태” 정보를 가지고 한부모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경제적 연계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조사가 관련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표 4-5〉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인구사회학적 구성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인구 사회학적 구성	사회경제적 구성	• 동네 빈곤	•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시도별, 특성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
		• 고등교육 졸업자 비중	•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중 - 성, 연령 및 교육상태별 인구(6세 이상, 내국인), 시군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 대학교 졸업 이상 비중-성, 연령 및 교육상태별 인구(6세 이상, 내국인), 시군구, 「인구총조사」, 통계청	○
		• 한부모가족 빈도		×
	경제적 연계성	• 동네 영향력 • 상위 사회경제적 집단과 네트워크 연계	• 1인당 지역내총생산 - 「지역소득」, 통계청 • 1인당 지역총소득 - 「지역소득」, 통계청 • 1인당 개인소득 - 「지역소득」, 통계청 • 가구당 경상소득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가구당 자산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가구당 부채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가구당 순자산액 - 「가계금	△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용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고용률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실업률 -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소득 만족도: 보통 이상 비율 - 소득 만족도(15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 • 주관적 소득 수준: 적정 이상 여유 - 주관적 소득 수준(19세 이상 가구주), 「사회조사」, 통계청	

출처: 저자 작성.

## 나.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은 사회적 결합과 지역사회 참여이다. 사회적 결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동네·지역사회 소속감,” “집단적 효능,” “타인에 대한 신뢰”가 포함된다. “동네·지역사회 소속감”과 “집단적 효능”은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조사한 “일 평균 교류 현황”에서 “교류하는 사람 있음”과 “교류하는 평균 인원수”를 가지고 측정할 수 있다. 또한 「사회조사」에서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조사한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타인에 대한 신뢰”는 통계청의 「사회조사」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지역사회 참여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과외 활동 참여,” “봉사 활동과 클럽 멤버십”이 포함된다. 이러한 지표를 측정하기 위해서 통계청 「사회조사」의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비율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이 제공하는 “국회의원 투표율”도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 자료에서는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가 타인에 대한 신뢰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는 우리 동네와 관련하여 “술 취한 사람을 쉽게 본다,” “싸움이 쉽게 일어난다,” “떠나고 싶지 않다,”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공손하거나 그릇된 행동을 하면 바로 잡아 준다,” “서로 협동한다,” “서로 믿을 수 있다,” “학교와 선생님을 믿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과 사이좋게 지낸다”를 질문하고 있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는 부모, 친구, 학교 선생님, 이웃, 처음 만난 사람, 다른 나라 사람, 우리나라 전체, 사이버공간, 대중매체 등 주변인 혹은 주변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질문하고 있다.

과외 활동 참여에 대해 아동과 청소년 관련 조사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는 “문화/예술 활동,” “과학/정보 활동,” “모험/개척 활동,” “직업/진로 활동,” “국제교류 활동,” “건강/보건 활동,” “환경보존 활동”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는 “건강 보건 활동,” “과학정보 활동,” “교류 활동,” “모험 개척 활동,” “문화예술 활동,”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활동,” “환경보존 활동,” “자기(인성) 계발 활동”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봉사 활동과 클럽 멤버십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는 “봉사 활동 참여 정도”를 질문하고 있으며,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는 “자원봉사 활동,” “학교 내 동아리,” “학교 이외 청소년 시설/종교 동아리,” “인터넷/sns 통한 온

라인 동아리”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조사」도 봉사 활동과 참여 활동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표 4-6〉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사회적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네·지역사회 소속감</li> <li>• 집단적 효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류하는 사람 있음(가족 또는 친척/가족 또는 친척 이외) - 사회적 관계망(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교류하는 평균 인원수(가족 또는 친척/가족 또는 친척 이외) - 사회적 관계망(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 사회적 관계망(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li>•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있음 - 사회적 관계망(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인에 대한 신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 -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13세 이상 인구), 「사회조사」, 통계청</li> </ul>	○
	지역사회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외 활동 참여</li> <li>• 봉사 활동과 클럽 멤버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비율 - 「사회조사」, 통계청</li> <li>• 국회의원 투표율-중앙선거관리위원회 통계시스템</li> </ul>	○ △

출처: 저자 작성.

## 다.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영역에서 동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퇴학,” “청소년 임신,”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이 포함된다. “퇴학”에 대한 지자체 현황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의 「한눈에 보는 시도 교육」의 “중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과 “고등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 자료를 활용하여 제공하였다.

청소년 임신 현황에 대한 자료가 부재한 국내 현실에서 본 연구는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의 “시도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10대 출산율(15~19세 여자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을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경찰청이 제공하는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 검거 건수” 자료를 토대로 제공하였다.

‘사회적 안전’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는 “범죄율”과 “동네에서의 안전감”이 포함된다. “범죄율”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에서 제공하는 “범죄 발생 건수(인구 천 명당)”로 측정할 수 있으며,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에서 제공하는 “타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도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동네에서의 안전감은 통계청 「사회조사」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자료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건축물·시설물, 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교통사고, 화재·산불 위험에 대한 안전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의 경찰서, 소방서, 지진옥외대피소에 대한 평균 접근 거리 자료를 가지고서도 동네에서의 안전감 정도를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1)</sup>

조사 자료에서는 「아동패널조사(보호자)」가 자녀의 미진학 여부를 조사하고 있어 퇴학과 관련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청소년 범죄 및 비행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가 “무단 결석 여부,” “가출 여부,” “담배 경험,” “음주 여부”를, 「한국청소년패널조사」가 “규율/규범/비행 경험”을 조사하고 있다. 사회적 안전과 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가 “안전 우려 여부” 및 “안전 만족도,”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조사」가 “지역사회 환경의 질에 대한 만족도,” “지역사회 환경 인식” 및 “생활 전반 및 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표 4-7〉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사회경제적 환경의 주요 특징: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동료 성과	• 퇴학	• 고등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 「한눈에 보는 시도 교육」,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
		• 청소년 임신	• 10대 출산율-시도/합계 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인구동향 조사」,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
		• 청소년 범죄 및 비행	• 소년 천 명당 소년 범죄 검거 건수(시도) - 경찰청(아동청소년과 청소년보호계)	○
사회적 안전	• 범죄율(폭력 범죄, 약물 남용)	• 범죄 발생 건수(인구 천 명당) -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 타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11) 이는 안전 관련 공공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동네에서의 안전감이 크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동네에서 안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전반적인 사회안전) - 「사회조사」, 통계청</li> <li>•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건축물·시설물) - 「사회조사」, 통계청</li> <li>•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태풍·지진 등 자연재해) - 「사회조사」, 통계청</li> <li>•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화재·산불) - 「사회조사」, 통계청</li> <li>•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교통사고) - 「사회조사」, 통계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찰서 평균 접근 거리, 소방서 평균 접근 거리, -지진옥외대피소 평균 접근 거리 -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

출처: 저자 작성.

### 3.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 가.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포함되는 지표는 “건강 성과,”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 “비용지불 가능성,” “서비스의 질,” “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 “예방적 보건 서비스,” “아동의 집에서 서비스까지 거리”이다.

건강 성과는 통계청의 「생명표」가 제공하는 “기대여명”과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의 “조사망률” 및 “표준화 사망률”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역별 의료이용통계」가 제공하는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 수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sup>12)</sup>

비용지불 가능성, 서비스의 질, 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 예방적 보건 서비스에 대한 가용한 국내 집계 자료는 찾기 어려웠다.

아동의 집에서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까지의 거리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가 제공하는 “보건기관 평균 접근 거리,” “의원 평균 접근 거리,” “병원 평균 접근 거리,” “종합병원 평균 접근 거리,” “응급의료 시설 평균 접근 거리,” “약국 평균 접근 거리”로 측정할 수 있다.

조사 자료에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가 “주 방문 의료 기관 여부,” “주 방문 의료 기관 유형,” “주치의 여부”를 파악하고 있으며, 「한국아동패널(보호자)」이 “응급실 치료 여부,” “입원 치료 여부,” “만성질환 상담 및 치료 여부,” “심리사회적 질환 상담 및 치료 여부”를 질문하고 있다. 비용지불 가능성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가 “병원비 부담으로 진료 못 받은 경험”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건강 성과와 관련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아동)」가 “건강 상태”와 “건강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아동패널(보호자)」이 보호자가 인식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있다.

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별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치과 의사, 한의사(일반의, 일반 수련의, 전문 수련의, 전문의), 간호사, 약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 수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의료 인력을 일반의, 전문의, 치과 의사, 한의사만으로 구성된 의료 인력,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모든 의료 인력을 포함한 인력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4-8〉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보건의료 서비스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아동 대상 서비스	보건의료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 성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대여명-시도별 간이생명표(5세별), 「생명표」, 통계청</li> <li>• 조사망률, 표준화 사망률 (인구 1,000명당)-시도/성/연령(5세)별 사망률, 「인구동향조사」, 통계청</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의료 서비스 및 의사 이용 가능성 (소아과 및 기타 아동 관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1,000명당 의료 인력 수-시도별 의료인력현황,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용지불 가능성(예를 들면 건강보험 적용률)</li> <li>• 서비스의 질</li> <li>• 지역 아동의 필요에 근거한 공급과 수요의 조화(의료 및 치과 치료의 미충족률)</li> <li>• 예방적 보건 서비스: 정기적인 예방 접종 및 건강 검진, 정기적으로 의사와 치과의사를 방문하는 아동 비중</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집에서 서비스까지 거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기관 평균 접근 거리 - 보건기관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의원 평균 접근 거리 - 의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병원 평균 접근 거리 - 병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종합병원 평균 접근 거리 - 종합병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li>• 응급의료시설 평균 접근</li> </ul>	○

동네 차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거리 -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국 평균 접근 거리 - 약국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li> </ul>	

출처: 저자 작성.

## 나.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아동 대상 서비스’ 영역에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 “재정적 부담 가능성,” “보육 및 교육의 질, 2차 및 2차 이후 교육,” “아동 집으로부터 보육·교육 시설까지 거리,” “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 “지리적 접근 가능성(통학 거리)”이다.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은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의 어린이집 현원 수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연보」의 유치원 원아 수를 합하여 0~6세 아동인구로 나눈 값인 보육 및 교육 시설 등록률로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교육부의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가 제공하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도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공급률 현황을 일부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재정적 부담 가능성, 보육 및 교육의 질(2차 및 2차 이후 교육)과 관련된 지역 자료는 구하기 어려웠다.

아동 집으로부터의 거리, 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 지리적 접근 가능성은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의 「2021 국토조사」가 제공하는 공공 체육 시설, 보육교육 시설, 문화 시설까지의 평균 접근 거리 혹은 도보 이동 10분 거리 및 차량 이동

20분 거리 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로 측정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조사 자료에서는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등록률과 관련하여 「보육실태조사(아동)」가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유치원 등 보육교육 기관 이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재정적 부담 가능성에 대해 「보육실태조사(아동)」가 “보육기관에 내는 비용에 대한 생각”을 질문하고 있으며,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가 양육 비용 부담을 조사하고 있다. 아동 집으로부터의 거리 및 지리적 접근 가능성에 대해 「보육실태조사(아동)」가 “등원에 소요되는 시간”을 질문하고 있다. 공공 도서관 및 아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 교육 자원 이용 가능성에 대해 「아동종합실태조사(부모)」는 문화체육 시설, 사회복지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공공기관 이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한국아동패널(보호자)」이 “공공 여가 공간 및 시설 접근 편의성 및 이용 만족도,” 「청소년 활동 참여 실태 조사」가 “시설 이용 경험 및 빈도”를 조사하고 있다.

〈표 4-9〉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기본 서비스의 주요 특징: 교육 및 보육 서비스

동네 지원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특징	가능한 지표	국내 집계 자료	데이터 적합성
아동 대상 서비스	교육 및 보육 서비스	•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이용률 및 공급률	•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 - 전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보건복지부,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및 교원 수(성/시도별) 「교육 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
			•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비율 - 「어린이집 및 이용자 통계」, 교육부	△
		• 재정적 부담 가능성 • 보육 및 교육의 질, 2차 및 2차 이후 교육		×
		• 아동 집으로부터의 거리 • 공공 도서관 및 아 동이 이용 가능한 기타 동네 교육 자 원 이용 가능성 • 지리적 접근 가능성 (통학 거리)	• 공공체육 시설 평균 접근 거리 - 공공체육 시설 접근 성, 「2021 국토조사」, 국 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어린이집 평균 접근 거리 - 어린이집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유치원 평균 접근 거리 - 유치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 토지리정보원 • 초등학교 평균 접근 거리 - 초등학교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공연문화 시설 평균 접근 거리 - 공연문화 시설 접 근성, 「2021 국토조사」, 국 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도서관 평균 접근 거리 - 도서관 접근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출처: 저자 작성.

## 제3절 OECD 아동친화동네 국내 현황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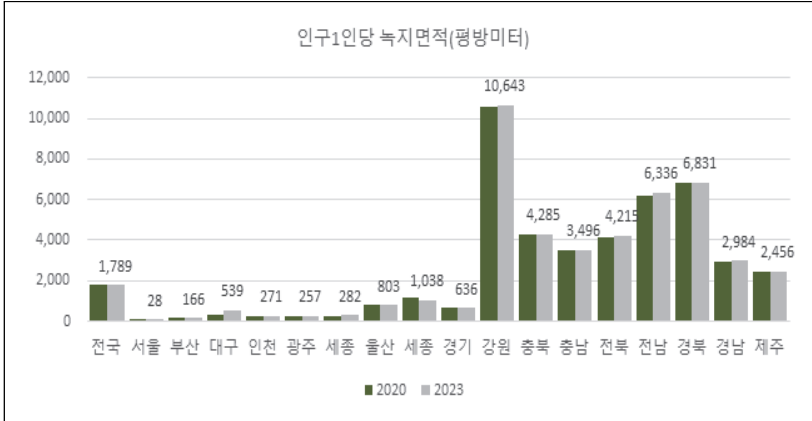
### 1. 자연과 건축 환경

#### 가. 자연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은 대도시 지역이 도농통합지역보다 좁은 것으로 나타나며, 도농통합지역 중에서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넓고, 다음으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의 순서로 넓다. 반면에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세종시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넓고, 그다음으로 전북과 전남이 넓다. 서울은 모든 지자체 중에서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이 가장 좁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녹지 면적이 좁은 서울, 부산, 대전, 광주 등 대도시가 생활 공원과 주제 공원과의 평균 접근 거리가 가까워서 녹지와와의 접근성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전국 및 광역 지자체의 인구 1인당 녹지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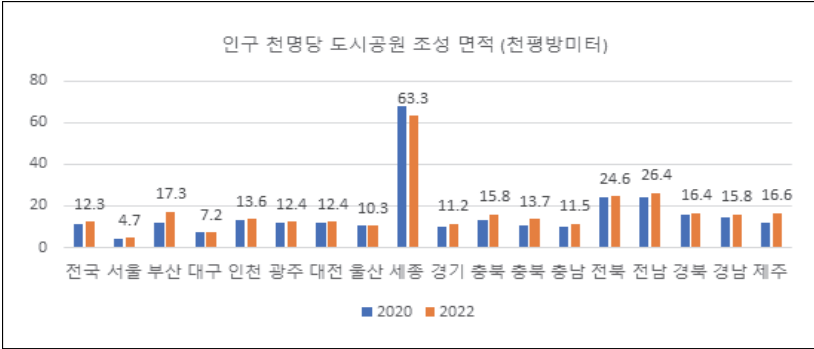
(단위: 평방미터)



주: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은 해당 지자체 전체 면적에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뺀 값에 주민 등록인구로 나눈 값으로, 인위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는 대지, 공장 부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등 시가지 조성 목적으로 이용되는 토지 면적으로 보았다.  
출처: “지적통계,” 국토교통부,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I2\\_8%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MLTM\\_1246%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16%26](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MT_ZTITLE%26list_id%3DI2_8%26obj_var_id%3D%26seqNo%3D%26tblId%3DDT_MLTM_1246%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16%26);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두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그림 4-2]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단위: 천 평방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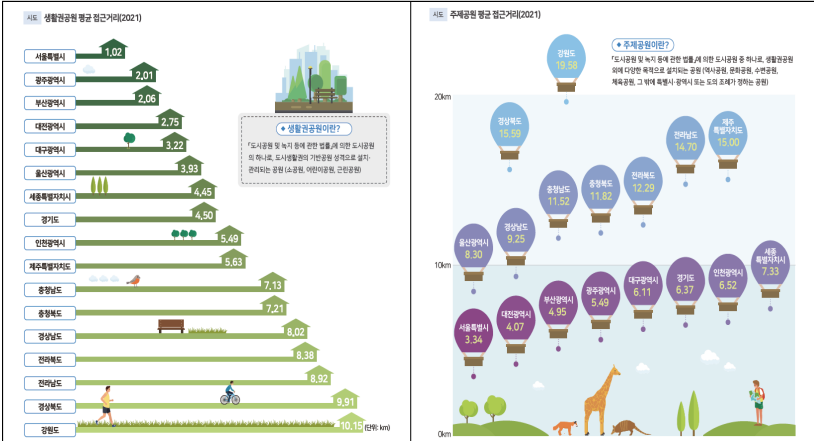


주: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은 도시자연공원, 국가도시공원,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의 면적을 합하여 지자체 인구조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출처: “도시계획현황,”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2022,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_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300&vw\\_cd=MT\\_ZTITLE&list\\_id=I2\\_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300&vw_cd=MT_ZTITLE&list_id=I2_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안전부,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두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 계산.

[그림 4-3] 생활 공원 및 주제 공원 평균 접근 거리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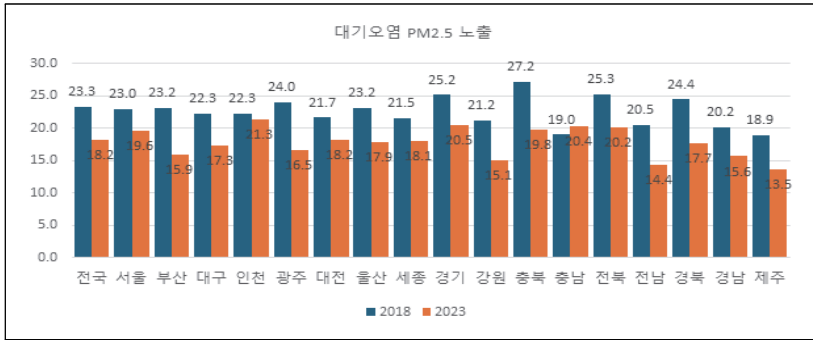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생활권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주제공원 평균 접근거리(2021),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46. p. 50.

160 OECD 지표를 활용한 「아동친화동네」 국제 비교 연구

연평균 환산 미세먼지에 대한 노출은 인천이 가장 높고 경기도가 그다음으로 높다.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고 있는 체감 환경도 다른 지자체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연평균 환산 미세먼지 PM 2.5 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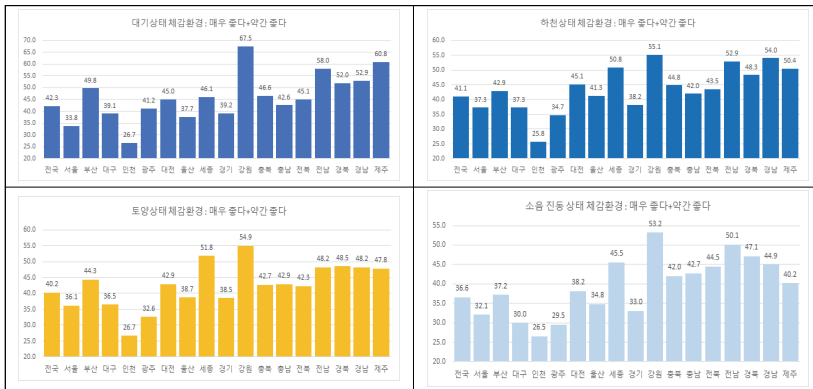
(단위:  $\mu\text{g}/\text{m}^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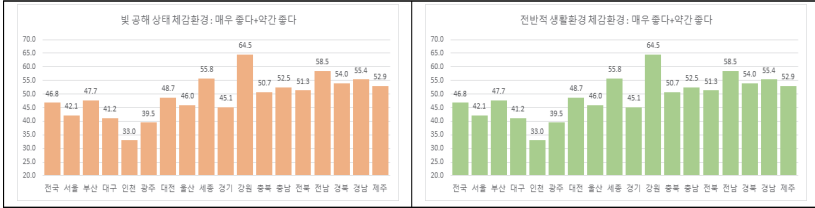
주: 월별 자료를 합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연평균 자료로 환산함  
출처: “대기오염도 현황,” 환경부, 2018, 2023, 국가통계포털, 미세먼지(PM2.5) 월별 대기오염도 (측정망별, 시도별, 도시별, 측정지점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76&conn\\_path=12](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76&conn_path=12)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그림 4-5] 현재 체감 환경: 대기·하천·토양·소음진동, 빛공해·전반적 생활환경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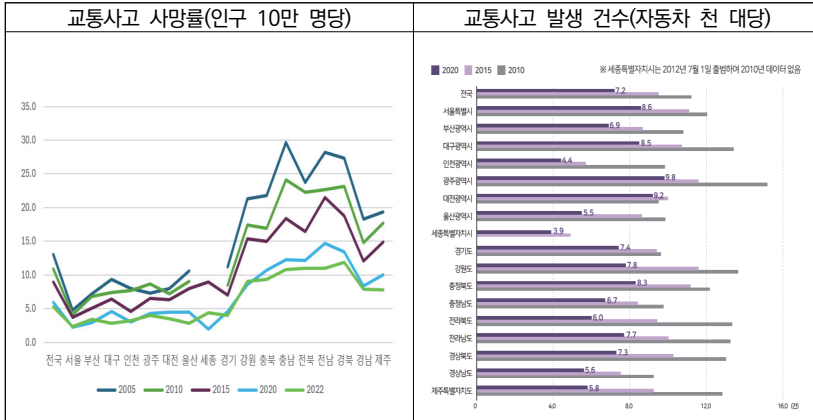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2a,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대기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사회조사,” 통계청, 2022b,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하천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사회조사,” 통계청, 2022c,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토양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3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사회조사,” 통계청, 2022d,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소음 진동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4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사회조사,” 통계청, 2022e,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빛 공해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7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7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사회조사,” 통계청, 2022f, 국가통계포털, 현재 체감환경-전반적인 생활환경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6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6R&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나. 도로·교통, 지역·대중교통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대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낮다. 수도권 집중이라는 인구 과밀화 현상에 따라 교통사고가 서울 등 대도시에서 많이 발생하지만 의료 시설 접근성이 좋아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초,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4-6] 교통사고 사망률(인구 10만 명당)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자동차 천 대당)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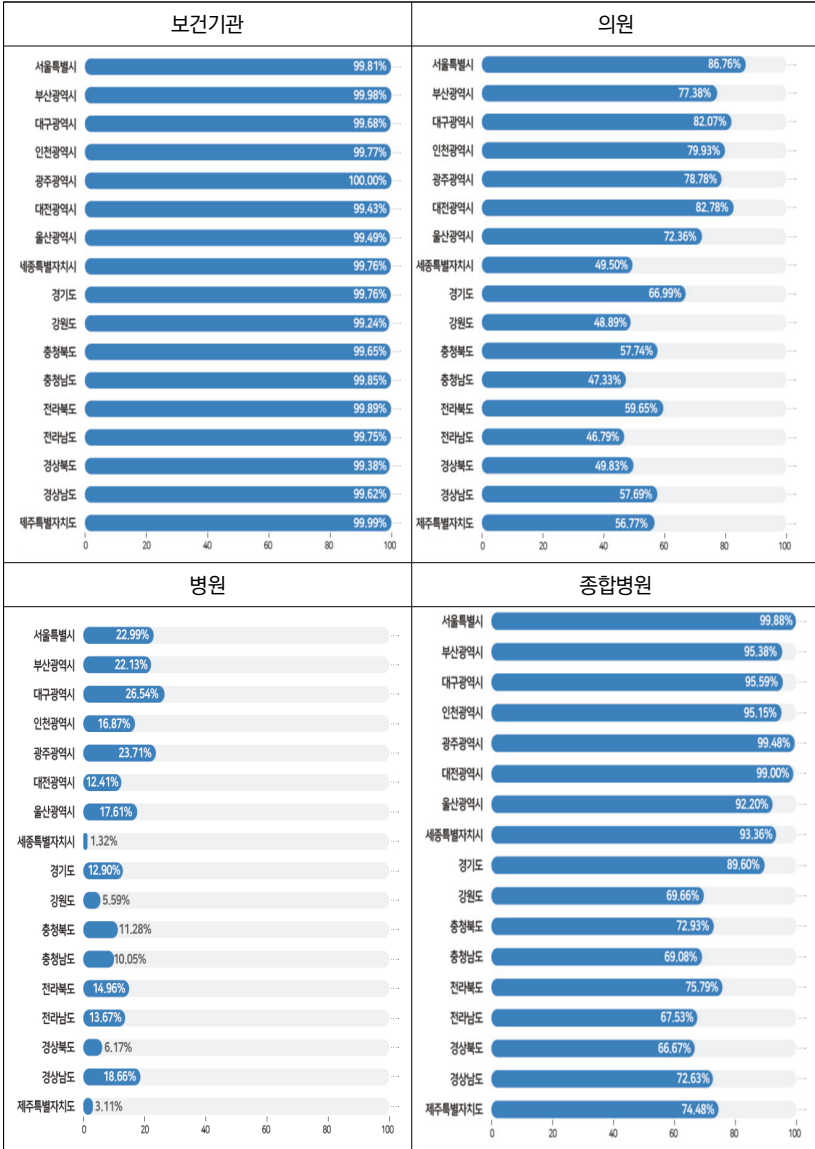
출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경찰청, 2005-2022,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교통사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13);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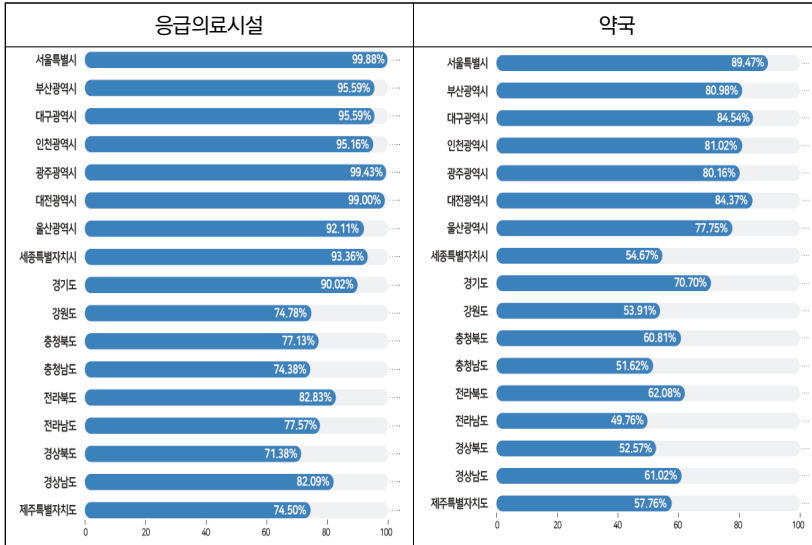
모든 지역에서 사람들이 보건기관<sup>13)</sup>으로부터 차량 이동으로 20분 이내(10km)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은 서울을 포함한 대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주민의 비중이 더 높았다. 이는 국가가 운영하는 보건소 등 보건 진료소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지역에서 양호한 수준이지만, 민간 중심의 의원과 병원 등 의료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대도시가 도농 지역보다 좋아서 지역 간의 편차가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13) 보건기관이란 「지역보건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소, 보건의원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및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말한다(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그림 4-7] 보건 시설(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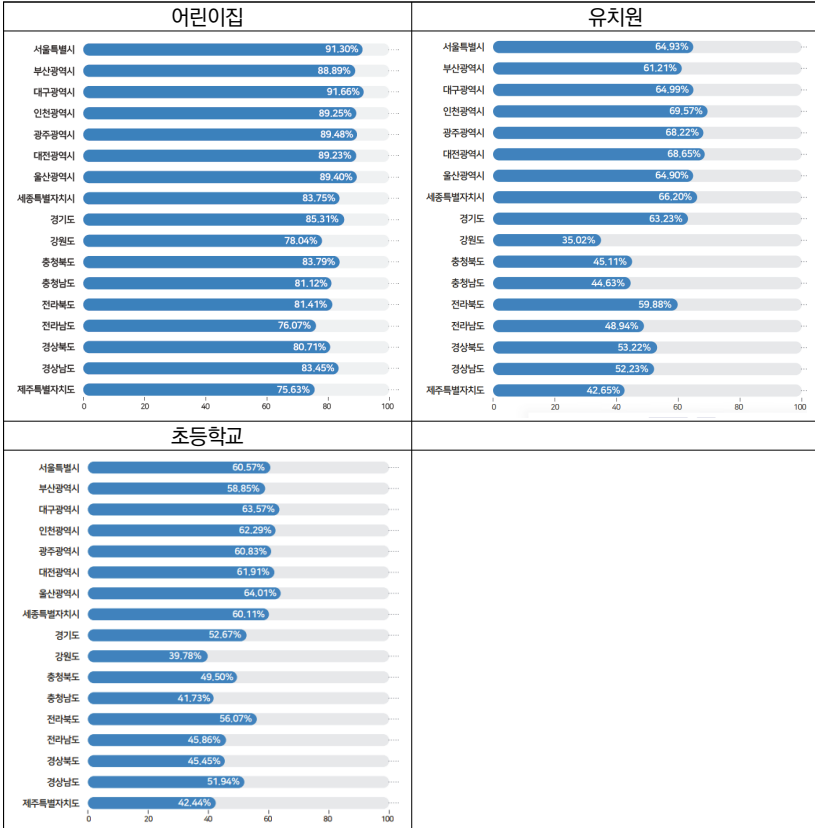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93, 99, 105, 111, 117, 123.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80% 내외 주민들이 어린이집까지 도보로 10분 걸리는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은 전국적으로 크게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비중이 대도시 이외의 지역이 대도시보다 낮아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8]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까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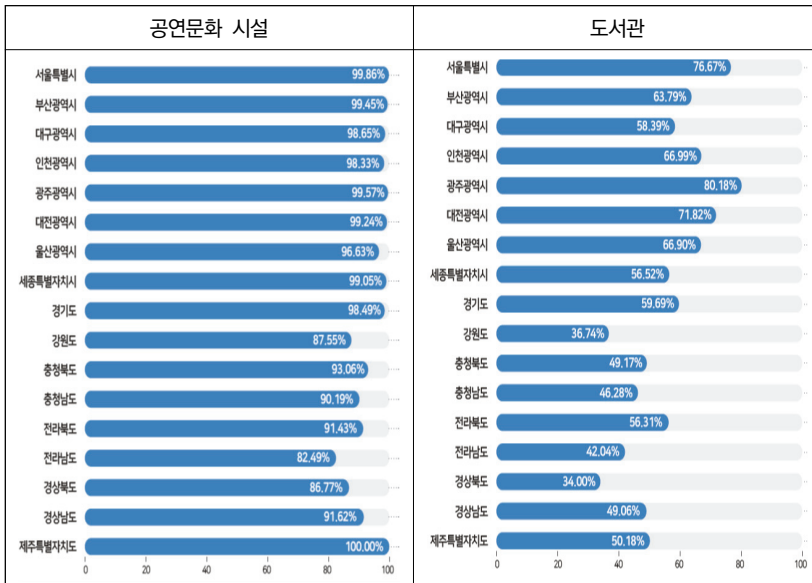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61, 65,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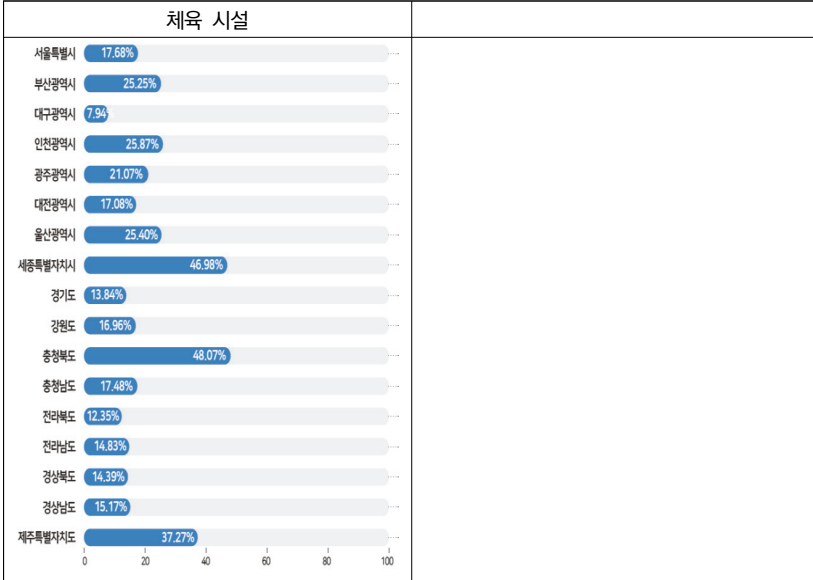
모든 지역에서 주민들이 차량으로 20분 이내에 공연문화 시설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연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도서관에 대한 접근성은 서울, 광주, 대전 등 대도시에서는 좋지만 강원, 경북에서는

35% 내외의 주민들만이 걸어서 도서관에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지방이 대도시와 비교하여 도서관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세종, 충북, 제주에서 상대적으로 높으며 그 외 지자체에서는 부산, 인천, 울산은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볼 때 약 15% 내외의 주민들만이 공공체육 시설에 걸어서 약 10분 걸리는 곳에 거주하고 있어, 대도시와 지방 모두 공공 체육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 문화 시설(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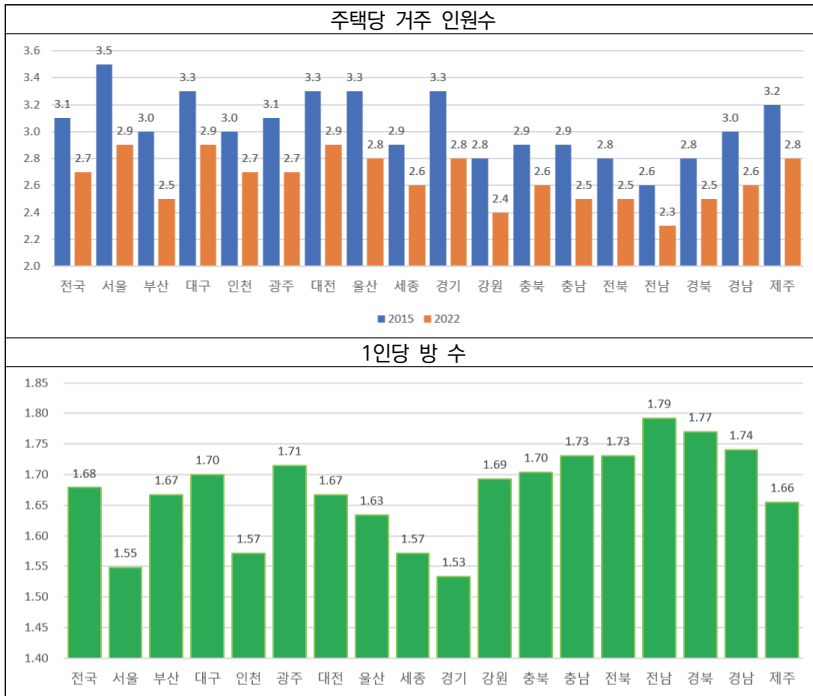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73, 77, 57.

## 다. 주거

주택당 거주 인원수는 서울과 대구가 가장 많고 전반적으로 볼 때 대도시가 지방에 비해 많아서 주거 밀집도는 대도시가 지방보다 높은 것으로 보인다. 1인당 방 수를 보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적어서 대도시가 전반적으로 지역보다 방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주거 밀집도는 대도시가 지방보다 높기 때문에 주거 밀집도 측면에서 주거 환경이 대도시가 지방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말한다.

[그림 4-11] 주택당 거주 인원수와 1인당 방 수

(단위: 명, 개)



출처: “주택총조사,” 통계청, 2015-2022, 국가통계포털,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수별 주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3&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503&conn_path=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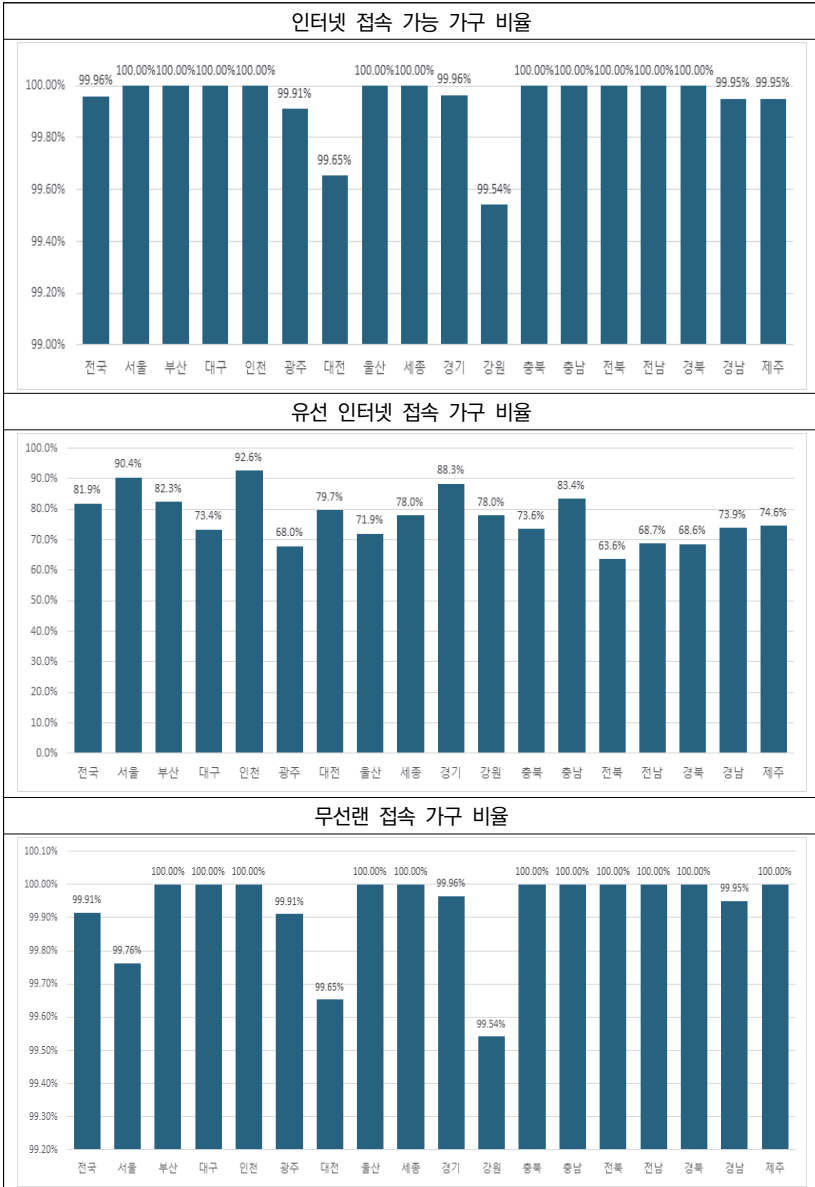
## 라. 기술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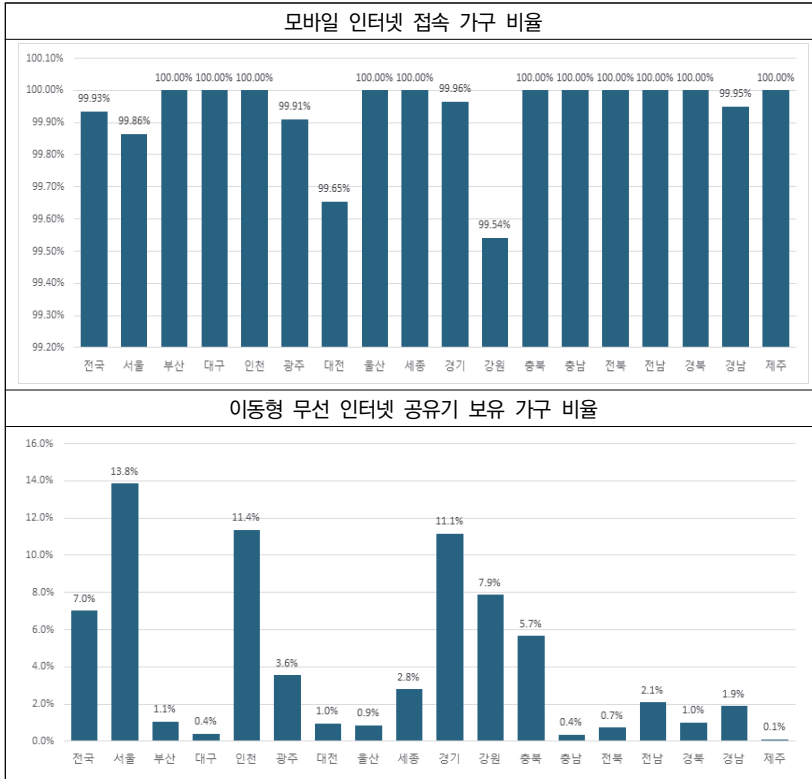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 비율은 전국이 모두 약 100%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선 인터넷보다는 무선랜을 사용하고 있다. 이동형 무선 인터넷 공유기 보유 비율은 서울, 인천, 경기 등 대도시가 다른 지자체보다 높다.



[그림 4-12] 인터넷 접속 가능 가구 비율(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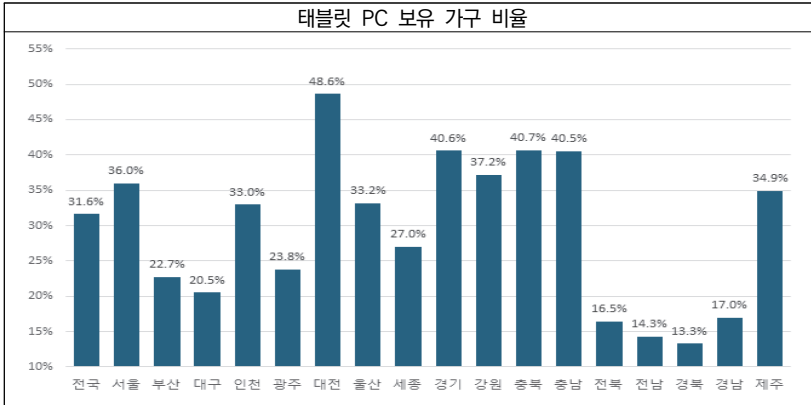
출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데이터 세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통계청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2024. 7. 16. 다운로드.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원자료 분석.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가구 비율이 전국적으로 약 100%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 TV 등 아동이 온라인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정보화 기기를 보유한 가구 비율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대도시가 도농 지자체보다 전반적으로 높다. 이는 인터넷 접근성은 모든 지역에서 크게 격차가 없으나, 지방에 거주하는 아동이 정보화 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온라인 학습 이용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 준다.

[그림 4-13] 정보화 기기 보유 가구 비율(2022년)

(단위: %)





출처: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데이터 세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통계청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2024. 7. 16. 다운로드.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원자료 분석.

## 2. 사회경제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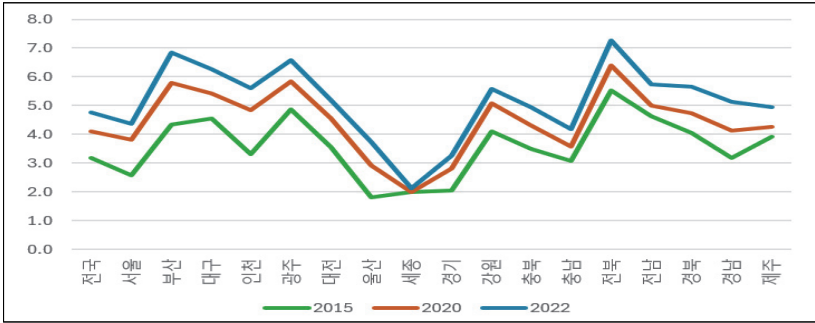
### 가. 인구사회학적 구성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은 전북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부산, 광주, 대구, 전남 순서로 높다. 세종이 가장 낮으며 경기, 울산, 충남, 서울 순서로 낮다.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은 세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2015년 이래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울산이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 충남, 서울, 전남 순서로 높다. 1인당 지역총생산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이며 광주, 제주, 부산 순서로 낮다. 1인당 지역총생산은 지역 내 총생산을 지역 인구수로 나눈 1인당 연간 생산액으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다는 것은 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중앙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14]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2015, 2020, 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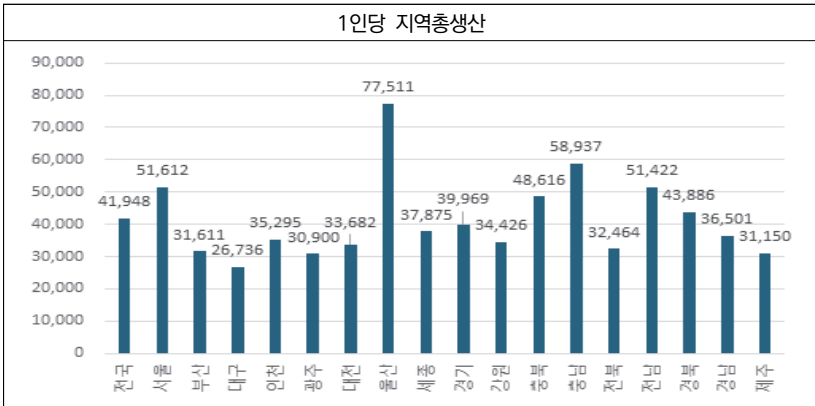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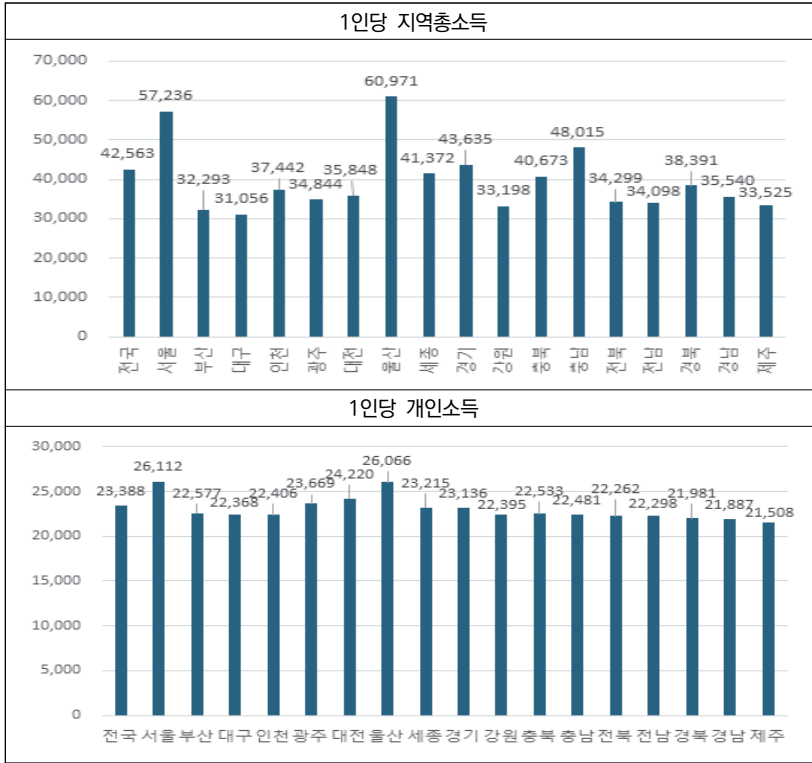
출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보건복지부, 2015, 2020, 2022,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4\\_N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_14_N004&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지역 자체적으로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외부로부터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4-15] 1인당 지역총생산·1인당 지역총소득·1인당 개인소득(2022년)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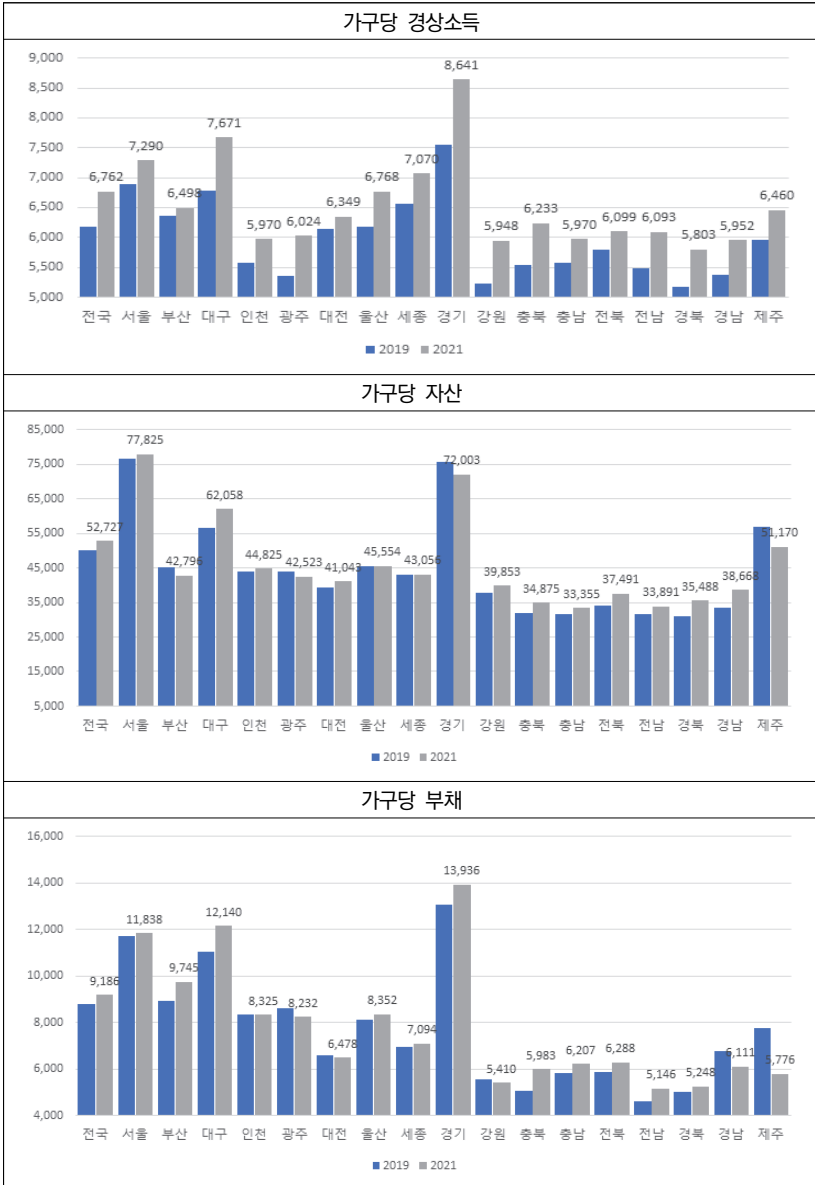
출처: “지역소득,” 통계청, 2022, 국가통계포털, 1인당 GRDP,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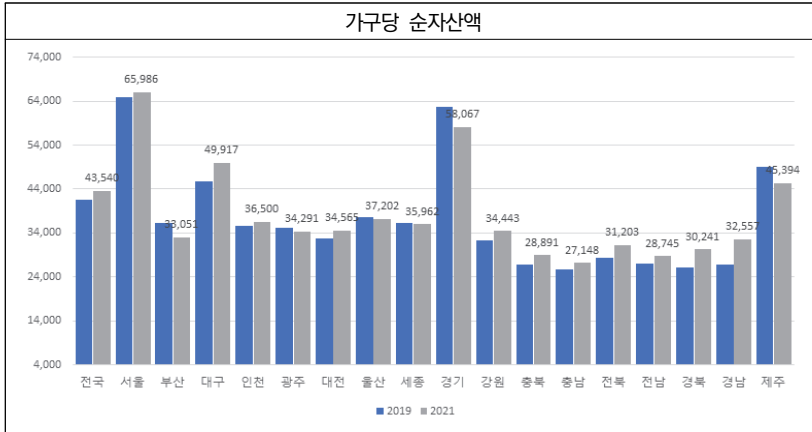
1인당 지역총소득도 1인당 지역총생산과 유사하게 울산, 서울, 충남 순서로 높고, 대구, 부산, 강원, 제주 순서로 낮다. 1인당 개인 소득은 서울, 울산, 대전, 광주 순서로 높고, 제주, 경남, 경북, 전북 순서로 낮다.

가구당 경상소득, 가구당 자산, 가구당 순자산액은 대도시인 경기, 서울, 대구가 높고, 도농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대도시인 인천과 광주도 낮은 편이다. 한편 가구당 소득 수준이 높은 지자체인 경기, 서울, 대구가 부채 수준도 높아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가 부채로 인한 부담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가구당 경상소득·가구당 자산·가구당 부채·가구당 순자산액(2022년)

(단위: 만 원)





출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19, 2021,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A01&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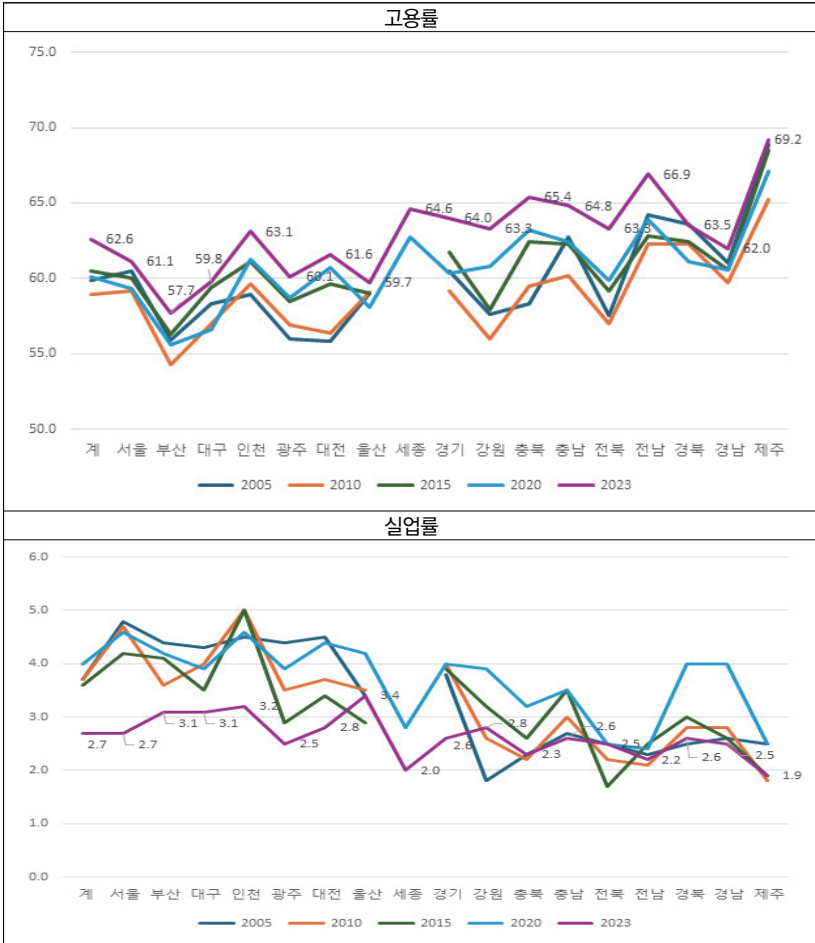
고용률은 2023년도에 제주, 전남, 충북 순서로 높고, 부산, 울산, 대구 순서로 낮다. 실업률은 울산, 인천, 부산 순서로 높고, 제주, 세종, 전남 순서로 낮다. 도농 광역 지자체 중에서 강원도가 실업률이 높고 다음으로 경기, 충남, 경북이 높다. 연도별로 보면 모든 지자체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고졸 이하 비중은 세종과 서울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경북, 충남, 전남 등 도농 지자체에서 고졸 이하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20세 이상 성인의 구성비는 세종과 서울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제주도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북, 충남, 전남 등 도농 지자체에서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은 성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4-17] 고용률 및 실업률(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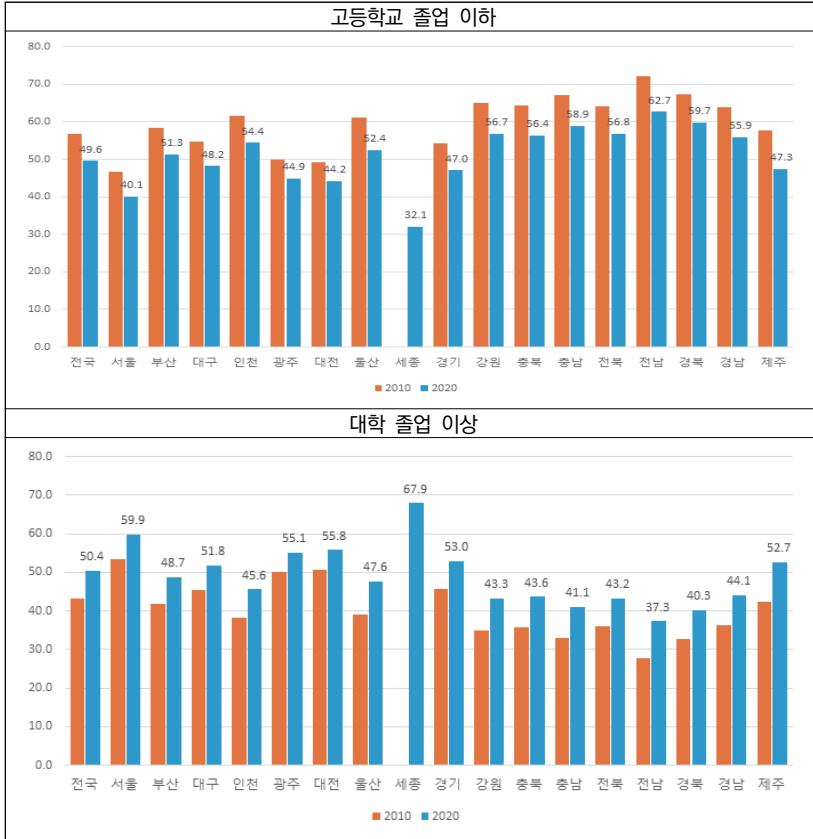
(단위: %)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2005, 2010, 2015,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2024. 6. 8. 검색,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

[그림 4-18] 고등학교 졸업 이하 및 대학교 졸업 이상(2010, 2020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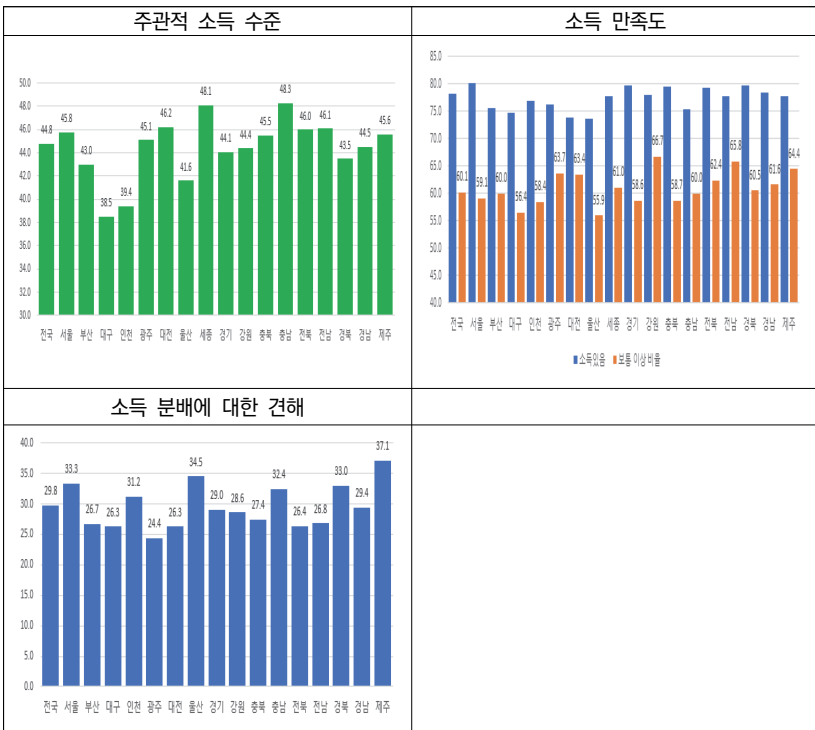
출처: “인구총조사,” 통계청, 2010,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이상)-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  
 “인구총조사,” 통계청, 2020, 국가통계포털, 성, 연령 및 교육정도, 교육상태별 인구(6세이상, 내국인)-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3)

소득 수준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충남, 세종, 대전, 전남 수준으로 높았고, 대구, 인천, 울산, 부산 등 대도시에서 적정 이상으로 여유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낮았다. 소득 수준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중은 강원, 전남, 제주, 광주, 대전 수준으로 높다. 소득 만족도는 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 정도와는 무관하게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울산 등 대도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주관적 소득 수준·소득 만족도 수준·소득 분배에 대한 견해

(단위: %)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3a, 국가통계포털, 주관적 소득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IC010R&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IC010R&conn_path=13)

인구사회학적 구성 지표를 전반적으로 볼 때 객관적인 소득 수준은 대도시가 지방보다 높으나 소득 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낮다. 이는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부채 수준도 높다는 결과와 무관하지 않은 현

상으로 보인다. 대도시의 물가와 소비 수준이 높고 주거비용도 높기 때문에 부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서울이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고용률이나 실업률 현황은 높은 학력 수준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월등하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는 서울이 높은 학력 구성에도 불구하고 고용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적지 않음을 반영해 준다.

1인당 지역총생산이 낮아서 지역 재정 자립도가 낮고, 기초생활 수급자 비중이 높아서 빈곤자 비중이 높은 지역에 대해 해당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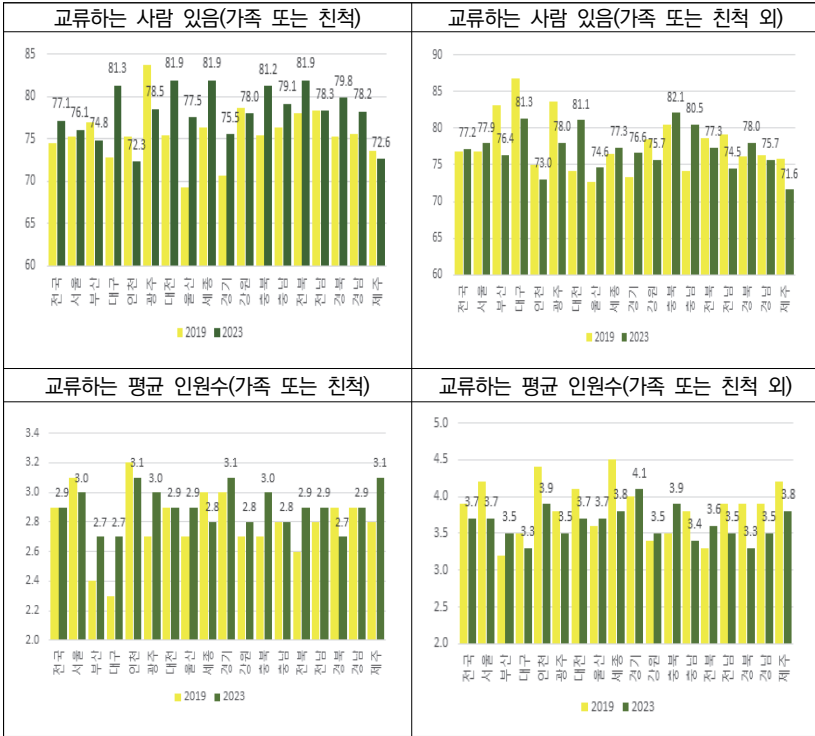
#### 나. 사회적 연계성과 지역사회 참여

교류하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서울이 다른 지자체보다 낮지만, 교류하는 평균 인원수는 서울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다. 이는 대도시의 특성상 다른 사람과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서울이 적지만 만남을 하고 있는 경우 서울이 다른 지자체보다 폭넓고 많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거나 “낙심하거나 우울해서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지역은 광주, 부산, 대구, 대전이며, 인천, 충남, 울산이 상대적으로 낮다. 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같은 지역은 오래 거주해 온 주민들이 많아서 사회적 관계망이 강한 반면에, 인천, 충남, 울산 등 새로이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의 정도가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20] 사회적 관계망 I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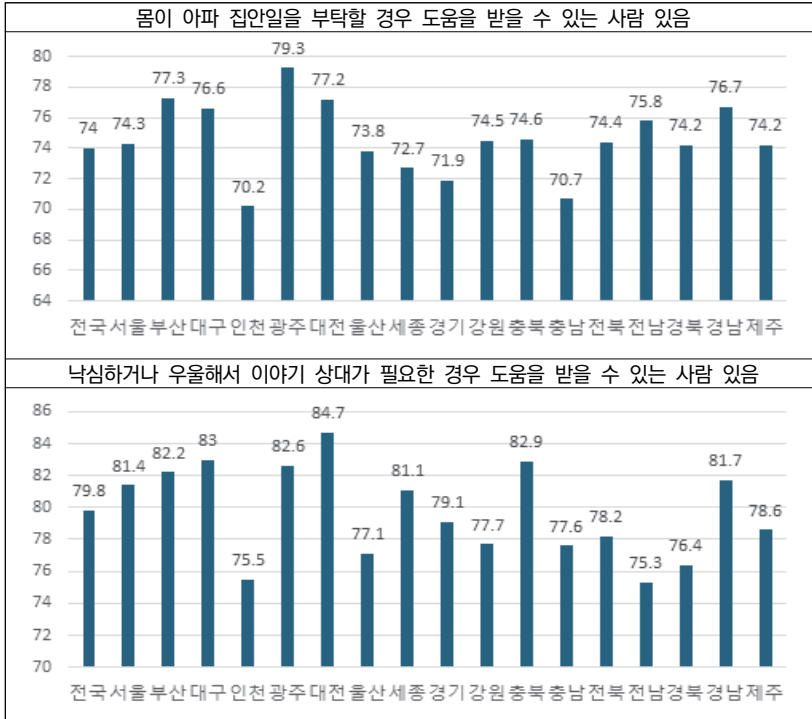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3b, 국가통계포털, 사회적 관계망 - 일 평균 교류현황(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5R&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5R&conn_path=13)

[그림 4-21] 사회적 관계망 II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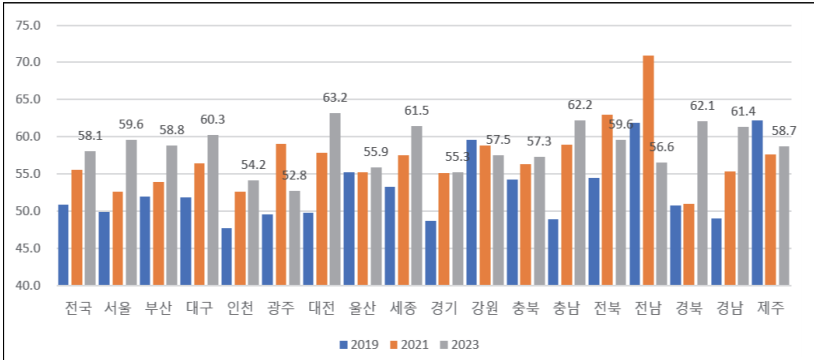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3c, 국가통계포털, 사회적 관계망(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SSSP04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SSSP041R&conn_path=I3)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대도시는 대전, 세종, 대구가 높으며, 도농 지자체는 충남, 경북, 경남이 높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대도시의 경우 광주, 인천, 울산이며, 도농 지자체의 경우 경기와 전남이 낮다.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연도 별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4-22]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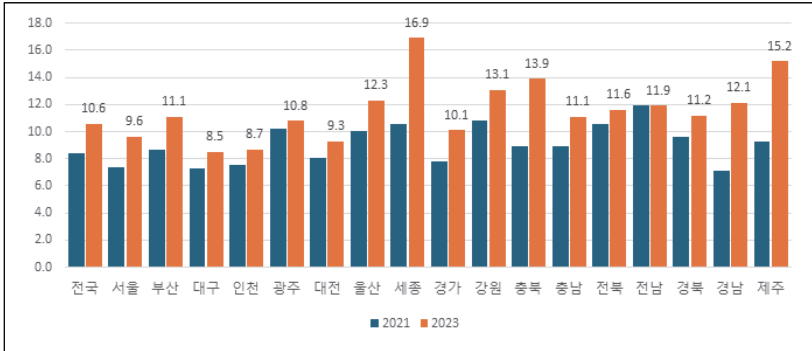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3d, 국가통계포털,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0R&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0R&conn_path=13)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비율은 세종, 제주, 강원, 충북 등 도농 지자체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보다 높다. 국회의원 투표율은 2024년도에 세종, 서울, 전남, 광주에서 높고 대구와 제주에서 낮다. 지역사회 참여 정도를 국회의원 투표율로 판단해 본다면 세종, 서울, 전남, 광주가 지역사회 참여율이 높고 대구와 제주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투표율은 2016년 이래로 높아지고 있어 투표율을 통해서 본 지역사회 참여 정도는 연도별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3] 자원봉사 활동의 경험 비율(2021, 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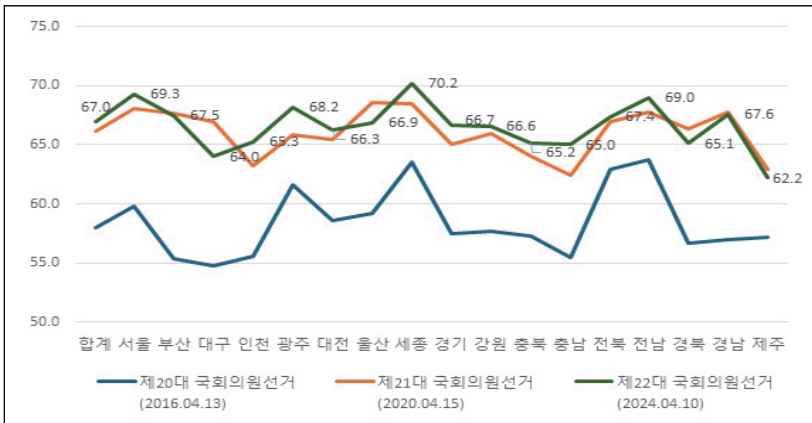
(단위: %)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21, 2023, 국가통계포털, 자원봉사활동 여부 및 참여하지 않은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0R&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180R&conn_path=13)

[그림 4-24] 국회의원 투표율(2016, 2020, 2024년)

(단위: %)



출처: “국회의원 투표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2016, 2020, 20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투표율 변동추이,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 다.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동료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는 퇴학, 청소년 임신,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이다. 퇴학은 “중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과 “고등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 청소년 임신은 “10대 출산율,” 청소년 범죄 및 비행은 “소년 천 명당 소년 범죄 검거 건수”로 측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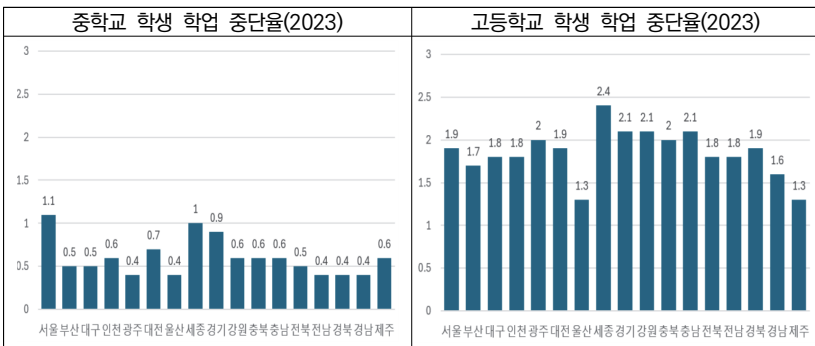
중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은 서울, 세종, 경기도가 1% 내외로 높고,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이 0.4%로 낮다. 고등학교 학생 학업 중단율은 세종이 2.4%로 가장 높고 경기, 강원, 충남이 2.1%로 그다음으로 높으며, 울산과 제주가 1.3%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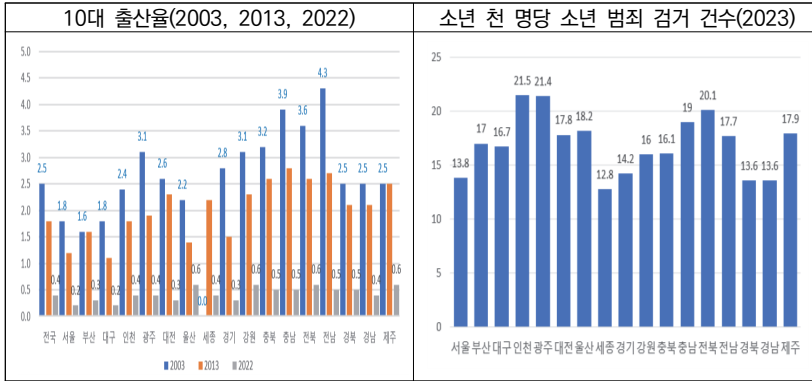
10대 출산율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0.6명으로 매우 낮으며 지자체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2003년도와 비교하여 10대 출산율은 상당 수준 하락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년 천 명당 소년 범죄 검거 건수는 인천과 광주가 21.5% 내외로 가장 높으며, 전북이 20.1%로 그다음 수준으로 높다. 세종이 12.8%로 가장 낮고 경북, 경남, 서울이 13.5% 내외로 그다음 수준으로 낮다.

[그림 4-25] 동료 성과 측정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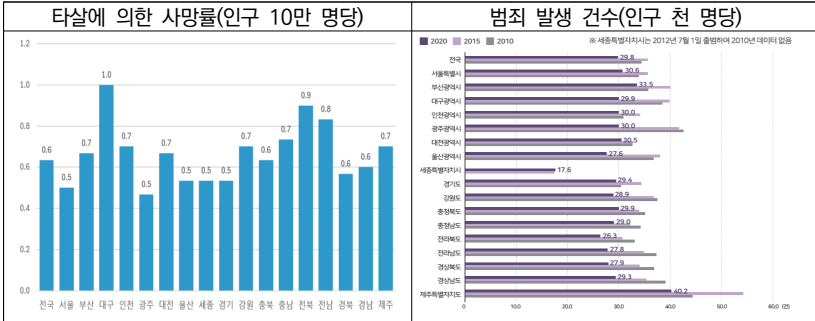


주: 10대 출산율은 15~19세 연령별 출산율로서 해당 연령 여성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말한다.  
출처: “유초중등통계,”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서비스, 학업중단률 및 중단 사유,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18&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18&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03, 2013, 2022, 국가통계포털,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  
“경찰통계연보,” 경찰청, 2023, 국가통계포털, 소년 천 명당 소년범죄검거건수(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path=I3)

타살에 의한 사망률은 대구, 전북, 전남, 인천, 대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범죄 발생 건수는 제주와 대도시인 부산, 서울, 대전, 인천이 상대적으로 높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타살에 의한 사망률과 범죄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낮아지고 있다.

[그림 4-26] 타살에 의한 사망률(2021~2023년 평균) 및 범죄 발생 건수  
(2010, 2015, 2020년)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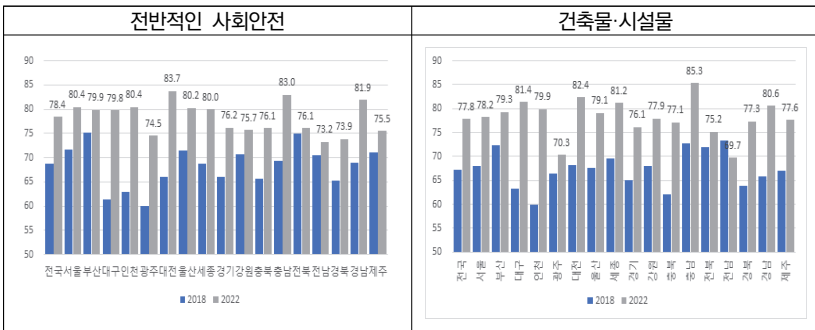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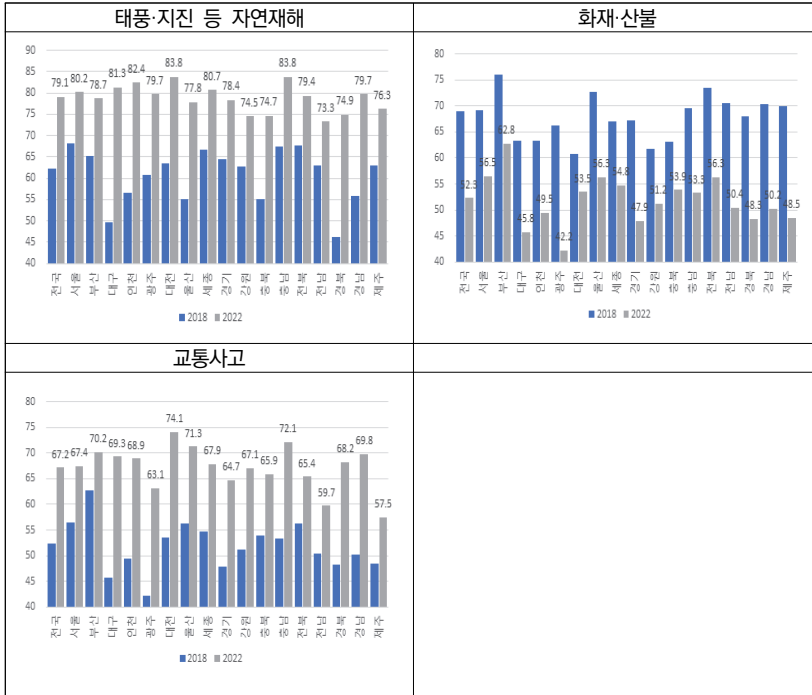
출처: “사망원인통계(시도편),” 통계청, 2021~2023, 시도 성별 사망자 수(일반사망요약분류표 : 104항목),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Word.do>,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천명당 범죄발생 건수 변화(2010, 2015, 2020),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142.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전반적으로 대전, 충남, 경남이 높고 광주를 제외한 대도시가 다른 도농 지자체보다 높다. 안전에 대한 인식도는 2018년에 비해 2022년이 더 높으나, 화재 및 산불에 대한 안전 인식은 2018년보다 2022년이 낮다.

[그림 4-27]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2018, 2022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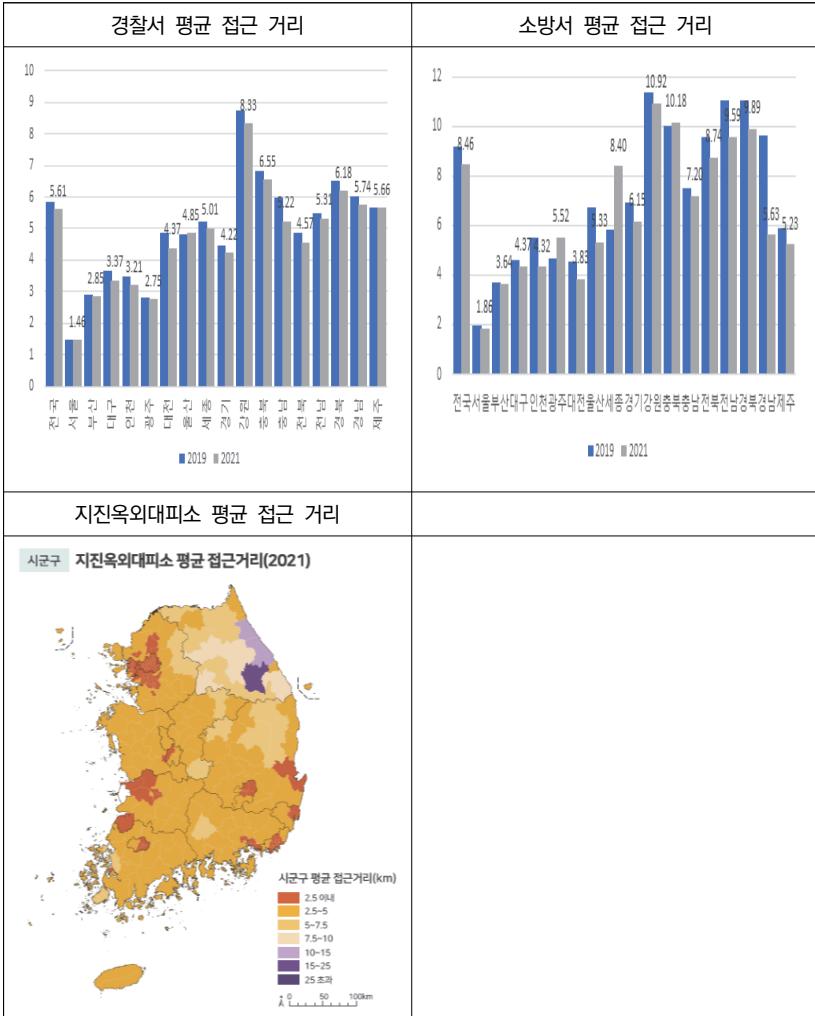


주: 전체 응답 중 보통 이상의 안전 인식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사회조사," 통계청, 2018, 2022, 국가통계포털,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A013R&conn_path=I3)

경찰서, 소방서, 지진옥외대피소까지 평균 접근 거리는 서울, 광주,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가 도농 지자체보다 더 가깝다.

[그림 4-28] 경찰서·소방서·지진옥외대피소 평균 접근 거리

(단위: km)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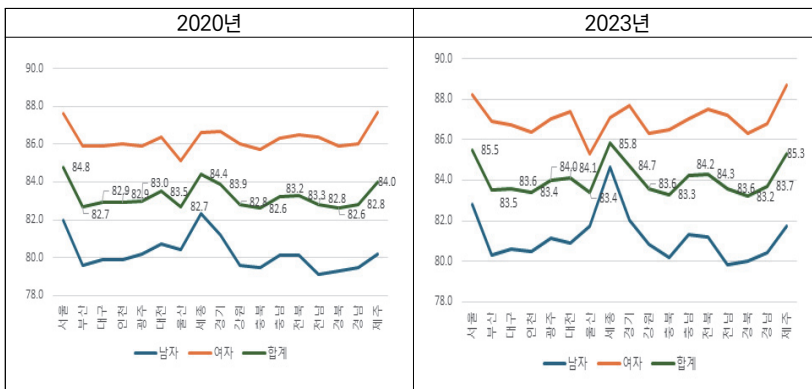
### 3.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 가. 보건의료 서비스

기대여명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20년과 확산 후인 2023년을 함께 비교해 보았다. 2020년과 2023년 모두 기대여명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 세종, 제주, 경기이며, 낮은 지역은 경북, 충북, 울산, 부산이다. 2023년 도 그래프는 2020년 그래프보다 높고 낮음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 19를 경험하면서 지자체 간 기대여명 격차가 심화되었음을 반영한다.

[그림 4-29] 기대여명(2020, 2023년)

(단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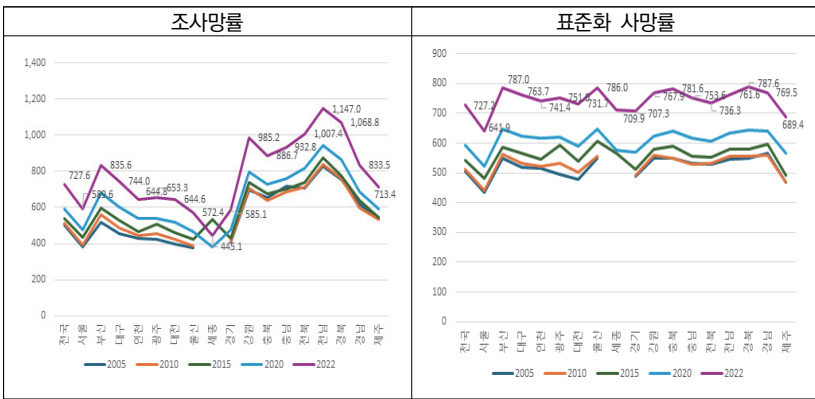
출처: “생명표,” 통계청, (2020, 2023)a,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간이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4&conn_path=I3)

조사망률은 대도시 지자체보다 도농 지자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국 인구를 기준으로 사용한 표준화 사망률에서는 지자체 간 차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전국 인구에 비하여 대도시 지자체는 다소 젊

은 편이고, 도농 지자체는 나이 든 편이라서 대도시 지자체에 비하여 도농 지자체의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인구를 기준으로 사용한 조사망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4-30] 사망률(2020,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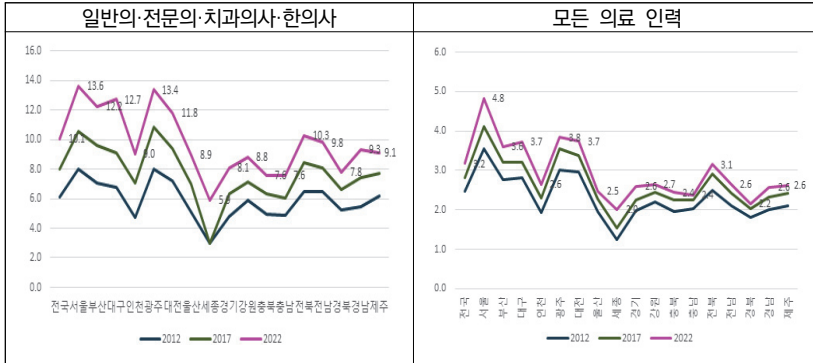


주: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이며, 조사망률은 기준 인구가 해당 지자체 인구이며, 표준화 사망률은 기준 인구가 전국 인구이다.  
 출처: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2020, 2023)b, 국가통계포털, 시도/성/연령(5세)별 사망률(196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7&conn\\_path=1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0A17&conn_path=13)

일반의,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성된 의료 인력과 모든 의료 인력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대도시가 많고 세종, 경북, 충남, 충북 등 도농 지자체가 적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모든 의료 인력을 포함할 때 의료 인력 수는 2012년 이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일반의,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로 구성된 의료 인력만으로 보면 과거 10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림 4-31] 인구 천 명당 의료 인력 수(2022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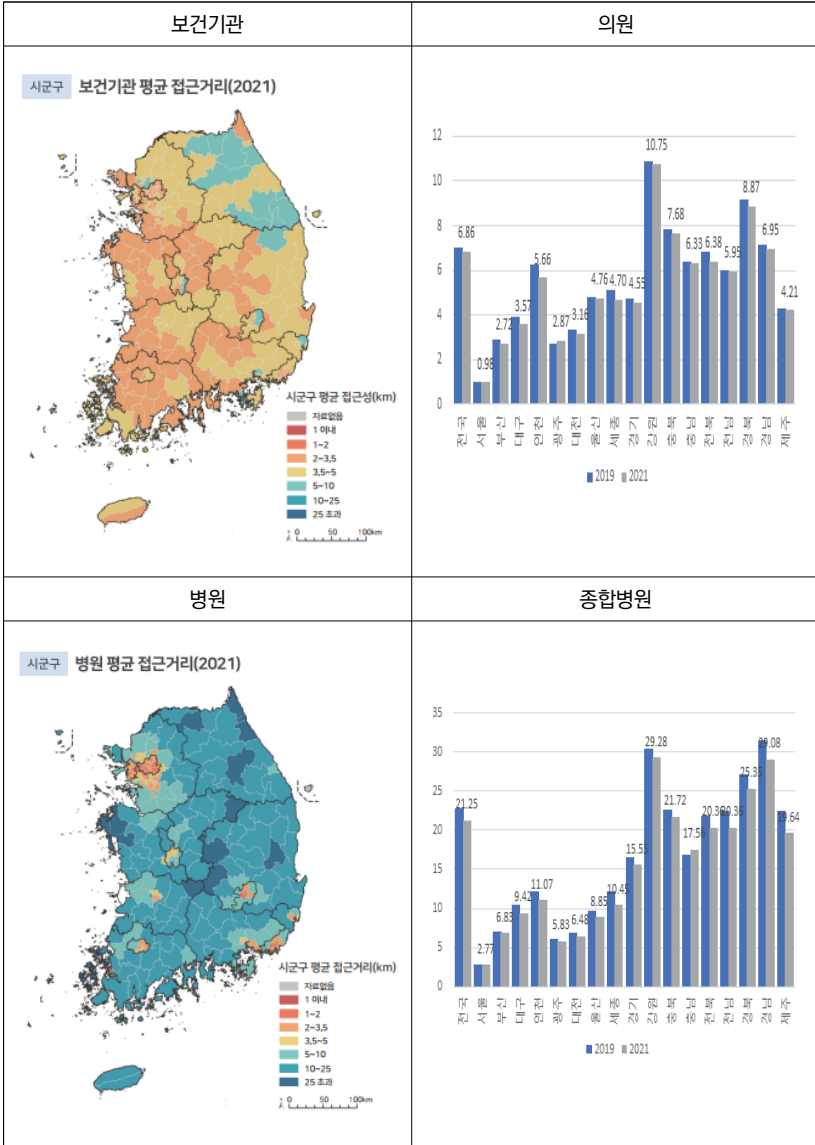
주: 모든 의료 인력은 의사(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일반의, 일반 수련의, 전문 수련의, 전문의), 간호사, 약사, 한약사, 물리치료사, 작업 치료사, 사회복지사를 포함  
출처: “지역별의료이용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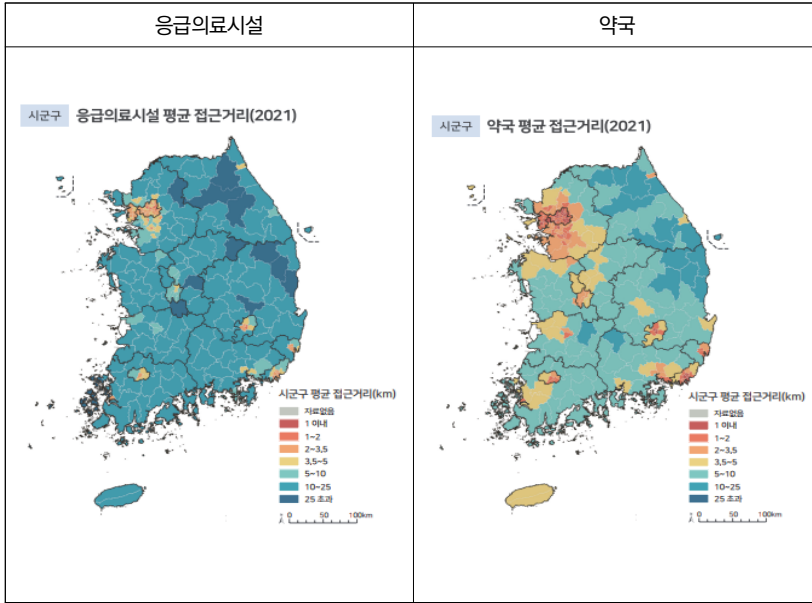
보건기관과의 평균 접근 거리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평균적으로 3~5km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 의료 시설, 약국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경기 등 대도시가 다른 도농 지자체보다 평균 거리가 더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의 교통 효과성 지표 분석에서 보건 시설까지 차량 이동으로 20분, 혹은 도보로 10분 거리 이내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이 대도시가 도농 지자체보다 높은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림 4-32] 보건 시설(보건기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응급의료 시설, 약국) 평균 접근 거리(2021년)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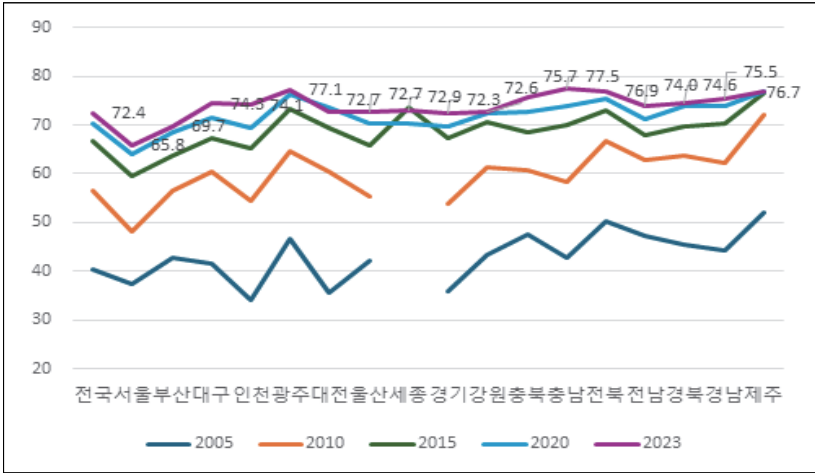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91, 96, 103, 108, 115, 121.

## 나. 보육교육 서비스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록률은 전국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며 대도시 지자체인 서울과 부산이 약간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33] 보육교육 시설 등록률(2005, 2010, 2015, 2020,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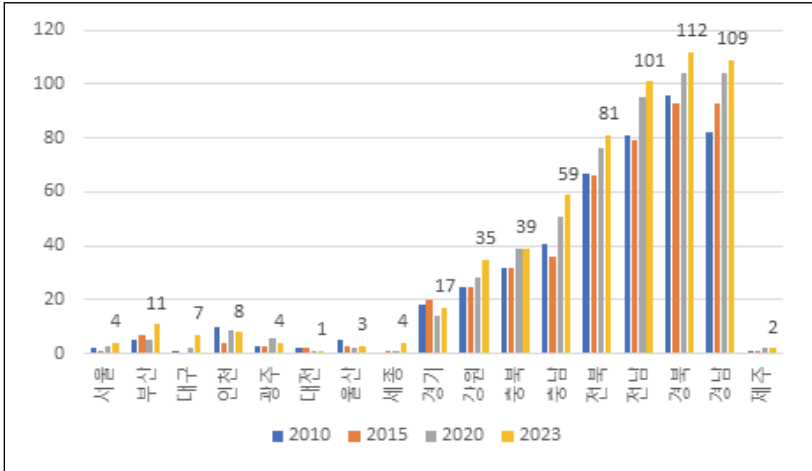


출처: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교육부, 2005, 2010, 2015,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전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I3)  
 “교육통계연보,” 한국교육개발원, 2005, 2010, 2015, 2020, 20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및 교원 수(성/ 시도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conn_path=I3)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진이 계산함.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같은 대도시 지역은 매우 적으나,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등 도농 지자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도농 지자체에서 증가 크기가 크다.

[그림 4-34]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2010, 2015, 2020, 2023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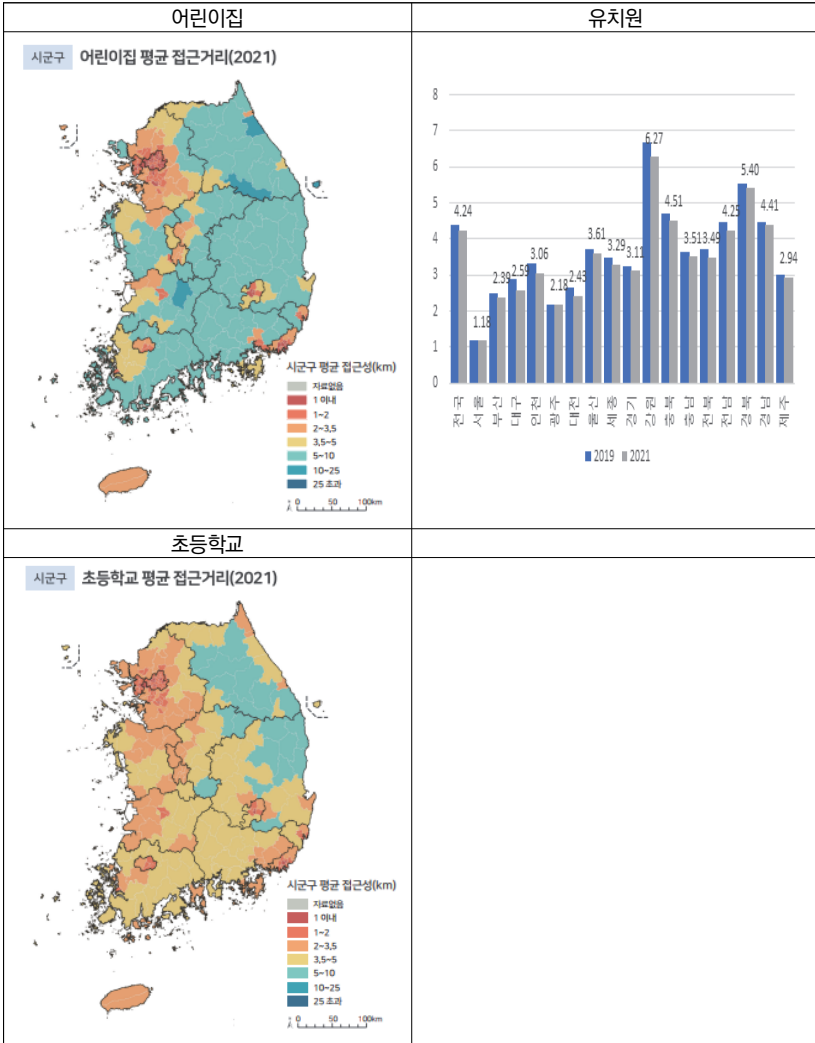
출처: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교육부, 2010, 2015, 2020, 2023, 국가통계포털,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

보육교육 시설 혹은 문화 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교통 효과성에서 도보로 10분 혹은 차량으로 20분 거리에 거주하는 인구 비율을 살펴보았으며 본 절에서는 평균 접근 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인천, 대구 등 대도시가 도농 지자체보다 평균 접근 거리가 짧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간 비교를 하면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대한 접근 거리가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 거리보다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35] 보육·교육 시설(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평균 접근 거리(2021년)

(단위: 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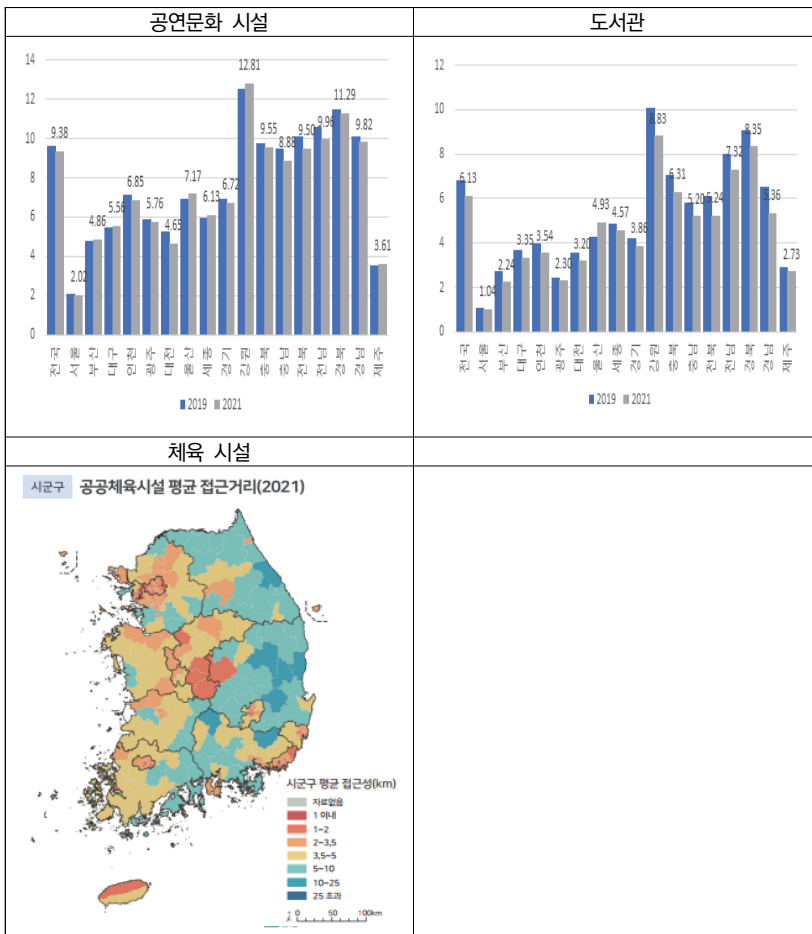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59, 62, 67.

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까지의 평균 접근 거리는 서울, 부산 등 대도시가 도농 지자체보다 짧다. 이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아동이 농촌 지역 거주 아동보다 도서관이나 체육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공연 문화에 대한 접근도가 높다는 것을 반영해 준다.

[그림 4-36] 문화 시설(공연문화 시설, 도서관, 체육 시설) 평균 접근 거리(2021년)

(단위: km)



출처: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p. 70, 74, 55.

#### 4. 영역별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앞 절에서 아동친화동네의 세 가지 영역에서 살펴본 각 지표들을 종합하여 주요한 지역의 아동친화동네의 특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한 지역에서 어떠한 특성들이 우수한 반면에 어떠한 특성은 부족한지, 그리고 지역 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자연과 건축 환경에 포함된 특성은 녹지, 공해 노출, 교통 안전, 교통 효과성, 주거의 질, 인터넷 접근성이며, 사회경제적 환경에 포함된 특성은 사회경제적 구성, 경제적 연계성, 사회적 결합, 지역사회 참여, 동료 성과, 사회적 안전이며,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에서의 특성은 건강 성과, 의사 이용 가능성, 보건 시설 접근 거리, 보육교육 시설 이용률 및 공급률, 보육교육 시설 접근 거리, 문화 시설 접근 거리이다.

영역별 비교 분석을 위하여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각각의 지표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였다. 지표별 점수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양호한 실적을 보이는 지역은 17점으로부터 하여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지자체는 1점까지 순위를 매겼다. 예를 들면, 인구 1명당 녹지 면적의 경우 가장 넓은 인구 1명당 녹지 면적을 가진 강원도가 17점이며, 가장 좁은 인구 1명당 녹지 면적을 가진 서울이 1점이다. 한 가지 특성에 하나의 지표만 포함된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지표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 각 특성에 포함된 지표들의 순위를 평균하여 해당 특성의 점수를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녹지에 대한 점수는 녹지 특성에 포함된 인구 1명당 녹지 면적, 인구 1,000명당 도시공원 조성 면적, 주관적인 녹지 환경 상태, 생활 공원 평균 접근 거리, 주제 공원 평균 접근 거리의 5개 지표의 순위들을 평균한 점수이다.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므로 특성별 점수는 해당 특성에 대한 지자체의 순위를 의미하며, 지표가 가지고

있는 양적인 특성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산출한 영역별 특성을 지역 간에 비교 분석하였으며, 주요한 특성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자연과 건축 환경

강원은 공해 노출 정도가 낮고 녹지 상태와 주거의 질이 좋아서 생활하기에 쾌적한 지역으로 보인다. 하지만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교통 안전성이 낮으며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져서 생활하기에 불편한 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자연과 건축 환경 영역에 포함된 지표들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순위를 보이지만 주거 밀집도 측면에서 주거의 질 수준<sup>14)</sup>은 상대적으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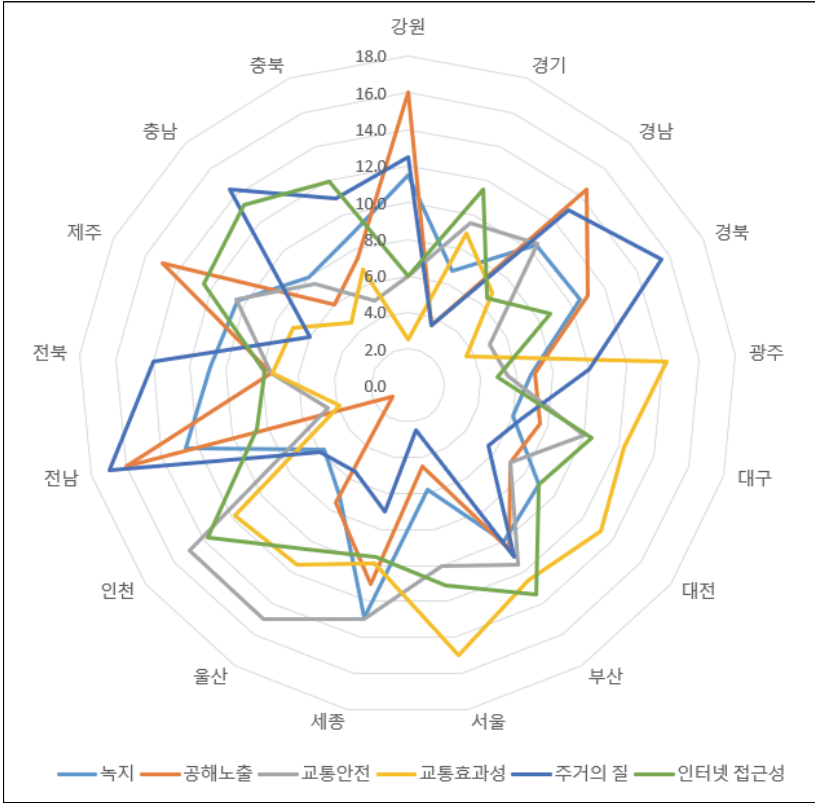
부산은 교통 효과성과 인터넷 접근성이 높아서 생활하기에 편리한 환경을 갖추었다. 녹지 수준, 공해 노출 정도, 주거의 질도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인다. 부산과 유사한 항구 도시인 인천도 교통 효과성 및 안전성, 인터넷 접근성은 좋지만, 공해 노출 정도가 심하고 녹지가 부족하며 주거의 질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교통 효과성에서는 매우 우수하지만 교통 안전과 인터넷 접근성은 중간 정도의 수준이고 녹지 상태가 부족하며 공해 수준이 높다. 특히 서울은 주거의 질이 모든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다. 같은 수도권 지역인 경기도는 교통 효과성과 교통 안전, 인터넷 접근성은 좋으나 공해 노출과 주거의 질 상태에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주거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는 주거 밀집도와 불결한 주거 환경이 포함되는데, 국내에서는 주거 밀집도에 해당하는 자료만 제공되고 있으며 불결한 주거 환경에 대한 자료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 측정된 주거의 질은 주거 밀집도 측면에서만 주거의 질을 의미하는 것에 주의하기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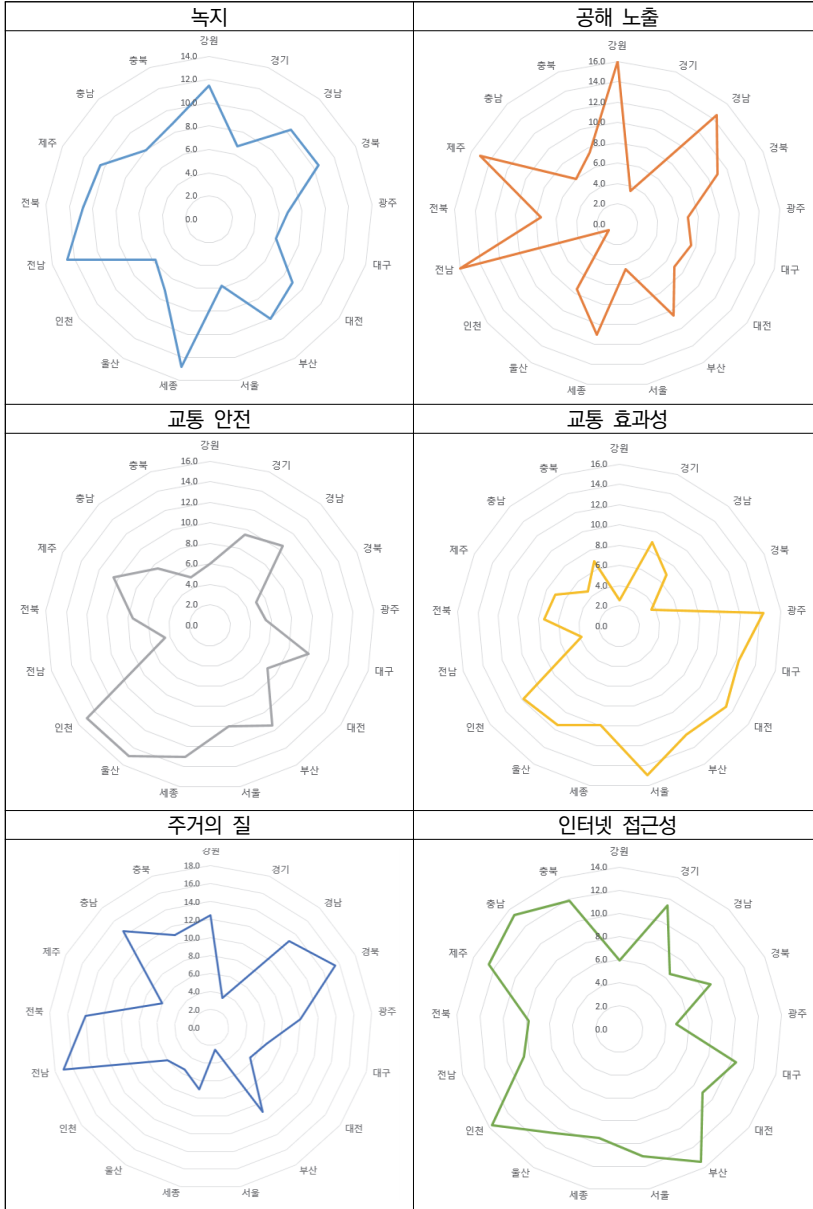


[그림 4-39] 자연과 건축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그림 4-38] 자연과 건축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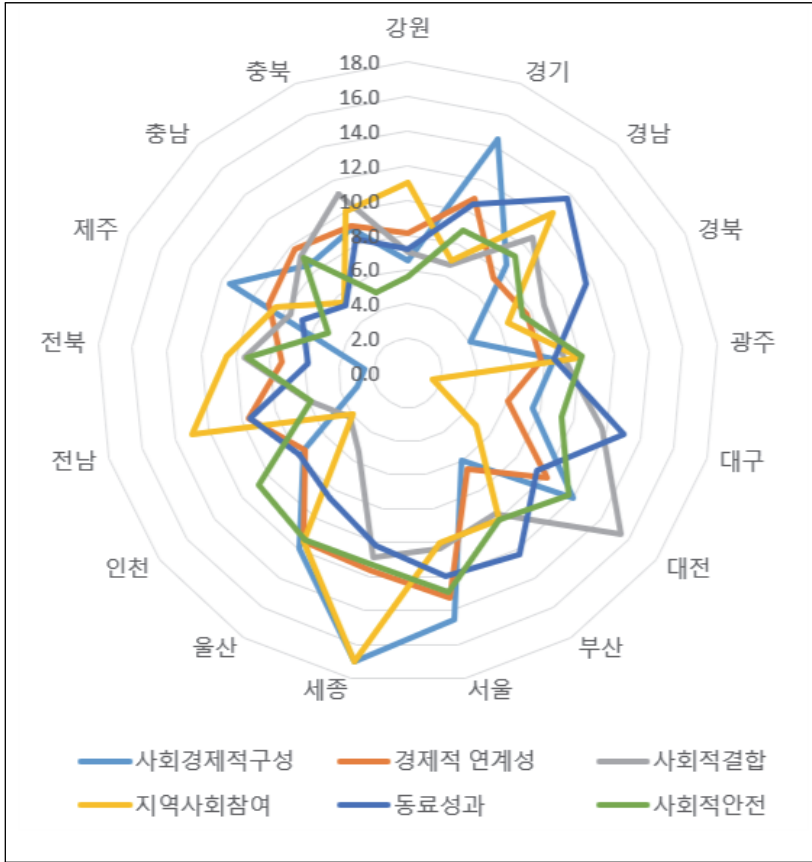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 나. 사회경제적 환경

사회경제적 구성 정도는 세종을 포함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이 좋고 울산과 대전도 높은 수준이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자체가 경제적 연계성에서도 높은 순위를 보여서 사회경제적 구성과 경제적 연계성이 높은 지역이 동료 성과와 사회적 안전 수준도 높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상위의 사회경제적 계층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력도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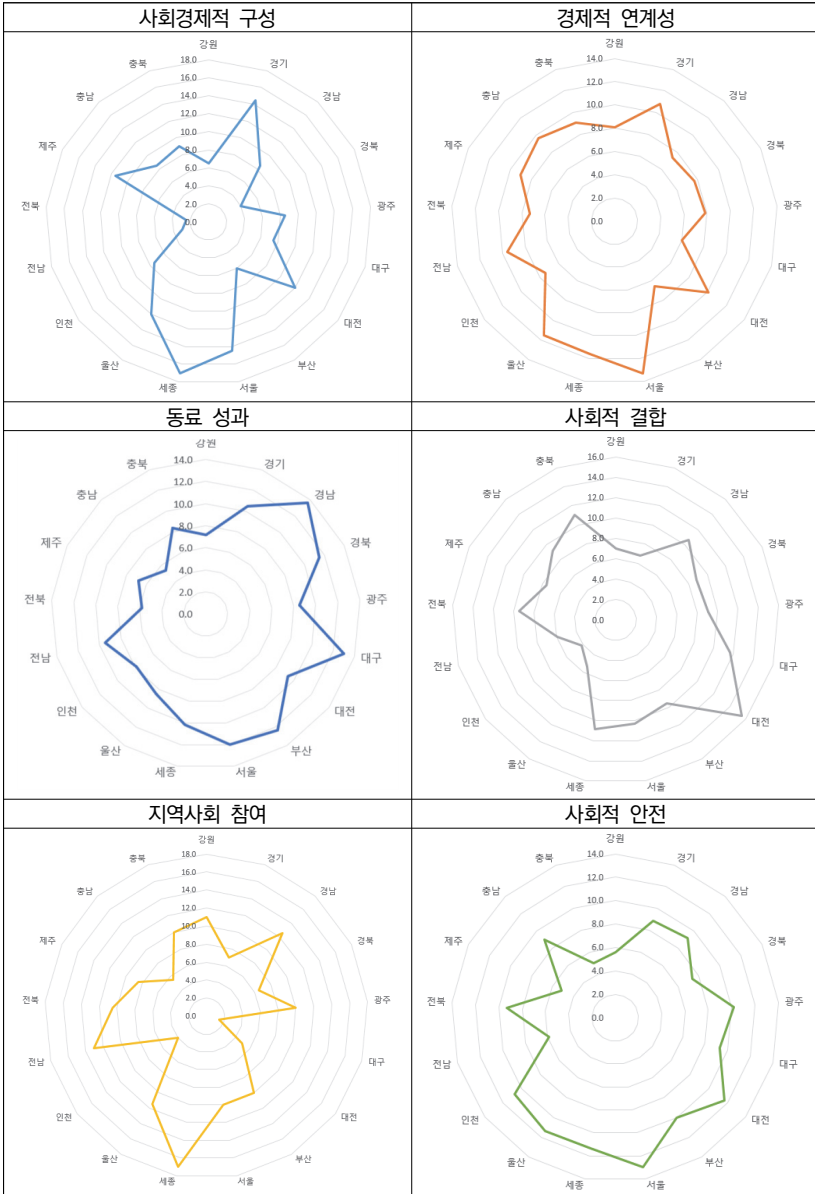
서울, 세종은 지역사회 결합도가 평균 정도 수준을 보이며, 경기도는 평균보다도 낮은 지역사회 결합도를 보인다. 지역사회 참여도는 세종은 높지만 서울은 평균 수준 그리고 경기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는 사회경제적인 수준은 높지만 지역사회 결합과 지역사회 참여도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심리적인 외로움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가 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 준다. 대전은 사회경제적 구성, 경제적 연계성, 동료 성과, 사회적 안전에서 평균 이상의 수준을 보이며 사회적 결합도 측면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인다. 따라서 대전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평균 이상을 보이면서도 지역 구성원들 간의 결합 정도도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그림 4-39] 사회경제적 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그림 4-40] 사회경제적 환경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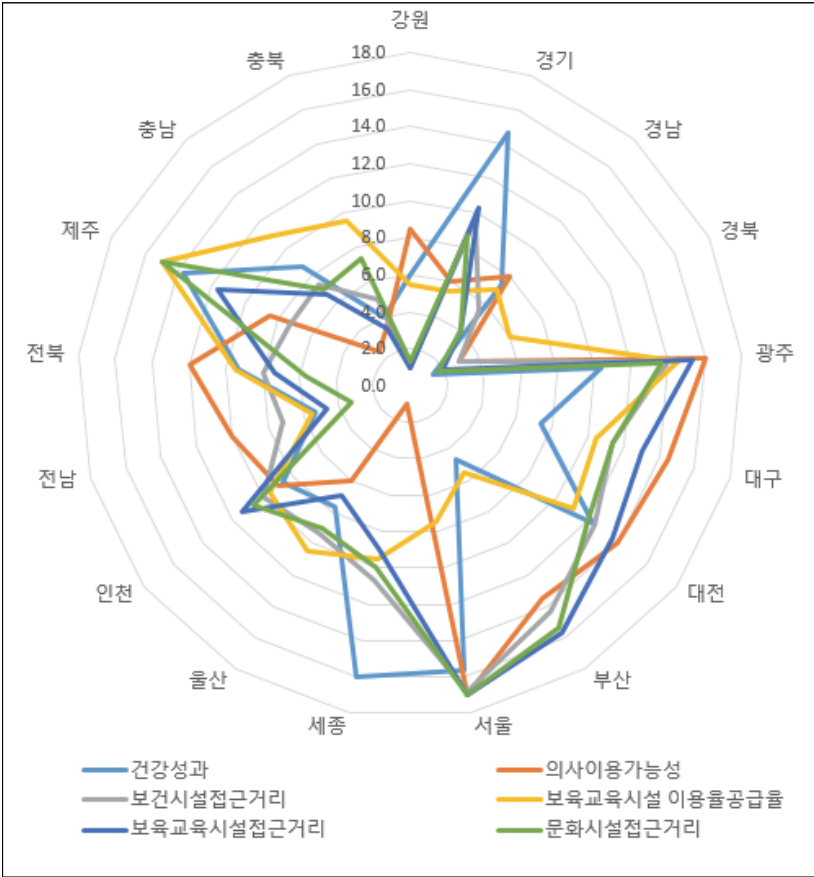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 다.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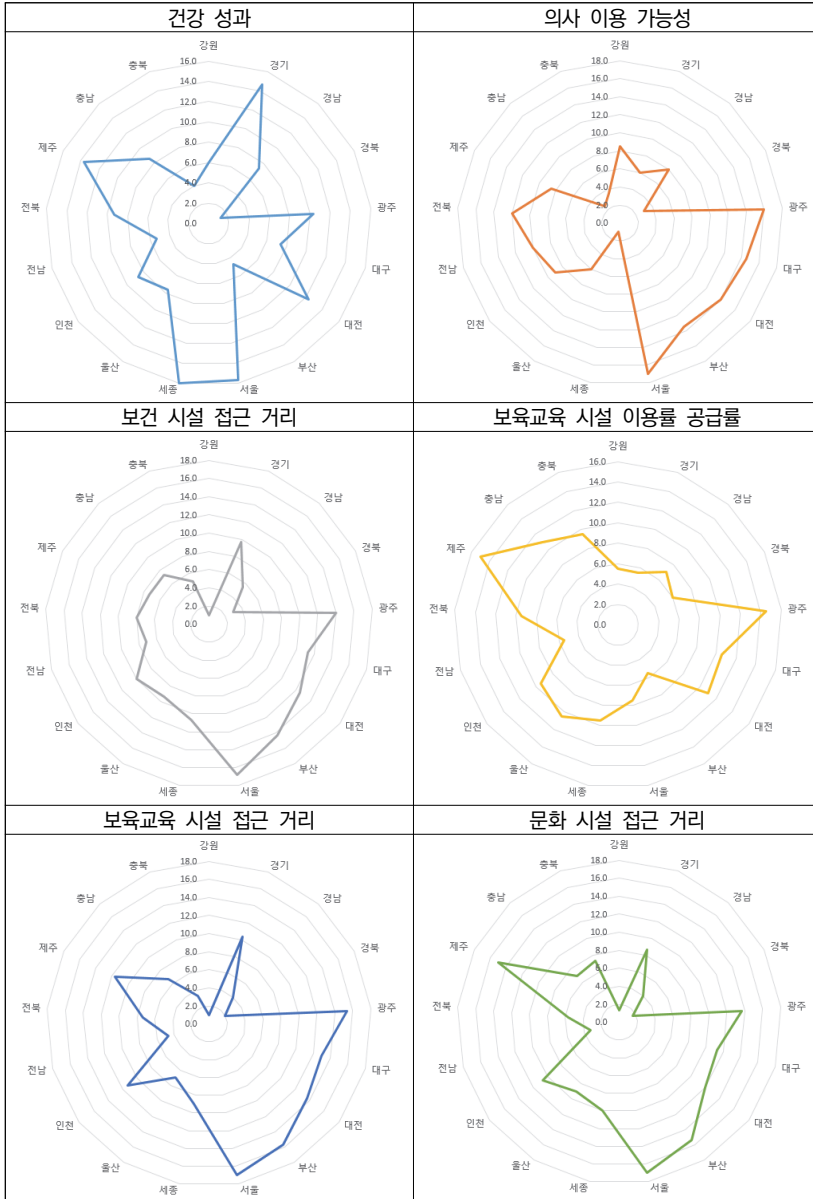
아동의 건강 성과는 세종, 서울, 경기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다. 하지만 보건 서비스 및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에서 세 지역은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서울은 의사 이용 가능성 및 보건 시설 접근성이 높아서 보건 서비스 공급과 접근성에서 매우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보육교육 시설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보육 시설 이용률, 공급률은 평균 정도 수준이다. 이는 서울에서 보육교육 시설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학원 혹은 개인 도우미 등 자원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의사 이용 가능성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낮아서 보건 서비스 공급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육 서비스 공급률과 이용률은 평균 정도 수준이며, 보건 서비스 및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평균 정도 수준을 보인다. 경기도는 보건 서비스와 보육교육 서비스 모두 공급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 서비스 및 보육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평균 정도 수준을 보인다.

[그림 4-41]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전체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그림 4-42]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 영역별 비교 분석 결과: 특성별 비교



출처: 연구진 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본 장에서는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에 대한 한국 자료를 수집하고 동 자료를 기초로 17개 광역 지자체의 현황을 살펴본 후, 아동친화동네의 주요 특성별로 지자체 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장의 분석 결과, 몇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국내 가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통계청 및 관련 행정 부서의 자료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양질의 우수한 자료를 OECD 측에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 회복력, 안전한 자전거 도로, 지역 환경 청결도, 불결한 주거 환경,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 한부모 가족 빈도에 대해서는 국내 지자체의 자료 수집 및 발굴이 요청된다. 특히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에서 비용 지불 가능성, 서비스의 질, 지역 아동 필요에 근거한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조화, 예방적 보건 서비스, 그리고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영역에서 재정적 부담 가능성과 보육 및 교육의 질에 해당하는 지자체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조사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사업 추진이 요청된다.

본 장의 분석 결과,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에서 17개 지자체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모든 영역에서 월등하게 아동친화성을 보여주는 지자체는 찾기 어려웠다. 전반적으로 볼 때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에서는 서비스 및 교통 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 경제적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지 못하고, 교통 연계성은 좋으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연계성이 낮았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우수하다고 해서 반드시 아동에게 필요

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예를 들면, 강원도의 경우 녹지와 공기 상태 등 자연 환경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높은 아동친화성을 보였지만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졌다. 서울은 사회경제적인 수준이 높고 아동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나, 녹지가 부족하고 공해가 심하며 지역사회 주민들과의 연계성이 낮았다. 세종은 전반적으로 자연 환경 측면에서 우수하고 사회경제적인 수준도 높지만 아동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7개 시도의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는 바, 향후에는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서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제5장

## 결론

제1절 연구 내용 종합

제2절 정책과제



## 제5장 결론

심각한 저출산 현상과 수도권 인구 집중은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 환경을 열악하게 하여 국내 인구 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서는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근접 환경이 중요하다는 시각하에 지역 단위에서 아동친화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지역의 아동친화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국내 지역 간 비교, 더 나아가서 국제 비교를 통해 국내 아동 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OECD가 최근에 착수한 아동친화동네 프로젝트의 내용을 기반으로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와 모니터링 지표를 살펴보고, 가용한 국내 자료를 수집하여 OECD 주요 국가 간 비교, 국내 지자체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고, 아동친화적인 지역사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1절 연구 내용 종합

제2장에서는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하고, 이에 기반하여 마련된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와 이를 측

정할 수 있는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를 소개하였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근접 환경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므로 지역 중심의 아동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환경에 직면한 아동들 간에는 성장한 이후의 삶에서 커다란 격차를 나타나게 되며 이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연결될 수 있다.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 아동이 직면한 지역 환경의 격차를 좁히는 것을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는 지향하고 있다. OECD 아동친화동네는 다차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사회경제적 환경과 서비스 인프라에 집중하였던 기존의 아동 정책 패러다임에서 확장하여, 자연 환경 등 생태학적 측면과 사회적 연계성 등 관계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OECD 아동친화동네는 기후 변화, 사회적 고립 등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OECD 아동친화 동네 모니터링 지표는 국내 많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하고 지역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지역사회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데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현재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에 가용한 국내 자료는 광역 지자체 단위의 자료이기 때문에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와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를 포함한 보다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제3장은 OECD 지역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미세먼지 농도, 청년실업률, 1인당 지역총생산, 단위당 활동 의사 수에 대해서 OECD 주요 국가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지표의 아동친화성 정도와 지역 아동인구 비율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아동친화동네 구현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

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낮고 청년실업률이 낮아서 우리나라 국가 전체로 볼 때 환경적인 측면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역의 아동친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동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단위인구당 활동의사 수가 적고, 15~19세 고등학교 취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지역의 아동친화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역의 아동인구 비중과 아동친화성의 관계에 대한 국가별 비교 결과는 각 국가의 행정구역 구분의 기준, 인구 규모와 분포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 결과는 OECD 주요 국가 간의 비교를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편중된 의료 시설과 보육교육 인프라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서, 이는 정책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제4장은 OECD 아동친화동네 3대 영역별 지표를 중심으로 가용한 국내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국내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친화적인 지역 간의 차이를 살펴본 후, 아동친화동네의 주요 특성별로 지자체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몇 가지 지표를 제외하고 OECD가 제시하는 아동친화동네 지표 중에서 많은 부분을 한국의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지자체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의 세 가지 영역 모두에서 월등하게 아동친화성을 보여주는 지자체는 없었다. 자연 환경이 좋은 지역은 서비스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회경제적인 수준도 낮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은 자연 환경적인 측면에서 쾌적하지 못하고, 교통 측면에서 연계성은 좋으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연계성은 낮았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아동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어떠한 아동친화적인 요소가 부족한지 파악하여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 제2절 정책 과제

### 1.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에서는 아동이 건강하고 자립적인 성인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위해서는 자연과 건축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아동을 위한 기본 서비스가 고루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세 가지 영역을 고르게 갖춘 지역 환경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자체는 세 가지 영역 중 한두 가지 특성에 편중되어 있어 아동이 전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아동친화적인 특성에서 부족한 부분을 파악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 요청된다. 지역의 아동친화성과 관련하여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슈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인구 이동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어, 지자체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특히 의료 시설 및 보육교육 시설과 같이 아동에게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공급과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지역의 필수 서비스 부족과 접근의 어려움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서 저



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그 문제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회경제적인 환경이 우수하고 기본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서 아동친화적인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다.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인 서비스가 잘 갖추어진 지역에서 자연과 접촉할 가능성이 작고 지역 주민과의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도 심리적인 고립감이나 우울증을 경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말해준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며, 아동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역사회 내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사회성과 연대성을 갖춘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 2. 아동친화적인 동네 구현을 위한 지역 자료 개발

OECD가 아동친화동네를 개념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지표를 제시하였지만, 실제적으로 아동이 살고 있는 미시적인 단위의 동네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OECD가 수행한 국제 비교 역시 광역 단위 혹은 권역 단위에서 분석이 수행되었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의 많은 부분이 국내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는 자료가 산출되고 있었으나, 읍면동 등 세부적인 지역 단위에서는 산출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본 연구에서도 17개 광역 단위를 중심으로 지역 자료를 제공하고 지역 간 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OECD도 지적하였듯이, 세부적인 지역 단위 자료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 단위의 자료가 아동이 살고 있는 동네의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대리 지표”로 활용될 수는 있다. 하지만 엄격하게 볼 때 광역 단위 자료가 아동이 실제로 살고 있는 “동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것이 OECD를 포함하여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일 것이다.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은 아동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 단위에서 측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자료 수집은 지역 단위 아동 정책을 추진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가 지역의 아동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정책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역 단위의 자료가 수집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단위에서의 자료 수집은 지자체의 아동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우수한 국제적인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데도 필요하다. 제3장의 국제 비교 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아동친화 환경에 대한 국제 비교 연구가 수행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단위의 한국 자료가 OECD 데이터베이스에 보다 많이 공개되어야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수준에서의 국내 자료가 꾸준히 생산되어야 한다.

기초 지자체가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 수행과 데이터 구축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과 모니터링 지표 측정 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공유가 필요하다. 중앙 정부는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를 포함한 전반적인 아동 관련 조사 및 데이터 수집에 대한 워크숍과 홍보 교육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지자체의 자료 수집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3. OECD 아동친화동네 지자체 시범 사업 추진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OECD 아동친화동네 개념을 적용하고 모니터링 지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친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초 지자체에서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 중에서 현재 자료 제공이 가능한 지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자료가 없는 지표에 대해서는 신규 조사를 추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OECD 사무국과 통계청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향후 시범 사업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시범 사업 결과를 OECD 회원 국가에게 홍보하고 국제 비교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여 해당 지자체의 아동정책을 실증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것을 도모해 볼 수도 있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아동정책시행계획에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하여 실증적인 자료에 기반한 정량적인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대부분의 평가 지표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성과 달성도 영역에서 계량화가 가능할 경우 정량 지표로 평가한다. 성과 달성도 평가 지표 중 특히 “3-3. 아동친화적인 놀이·여가·환경 조성 정도”는 OECD 아동친화동네의 자연과 건축 환경의 특성과 유사한 측면이

15) 아동복지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맞춰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평가 영역은 계획 수립의 적절성, 이행의 충실성, 성과 달성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달성도는 다음의 9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3-1. 아동 권리 실현 추진 체계 구축 정도, 3-2. 생활 속 아동의 참여권 보장 정도, 3-3. 아동친화적인 놀이·여가·환경 조성 정도, 3-4.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정도, 3-5.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정도, 3-6. 가정위탁 활성화 정도, 3-7. 온종일돌봄 이용률, 3-8.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정도, 3-9. 지자체 자율지표.

많아서 자연과 건축 환경 영역에 해당하는 지표(예를 들면 “녹지까지 거리”)를 활용하여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 4. OECD 아동친화동네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협력

OECD는 아동친화동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OECD 사무국은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적 체계와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 그리고 회원 국가에게 가용한 자료의 정보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다. OECD 아동친화동네의 개념을 국내 아동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계가 한국적인 상황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분석 결과, OECD 아동친화동네 지표 중에서 지자체의 자료를 활용하여 생산하기가 어려운 부분 - 기후 회복력, 안전한 자전거 도로, 지역 환경 청결도, 불결한 주거 환경, 거주 안정성 및 주거 비용, 한부모 가족 빈도 -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연구 수행을 통해 수집될 수 있는 지자체 자료 -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 지불 가능성, 서비스의 질, 지역 아동 필요에 근거한 서비스 공급과 수요의 조화, 예방적 보건 서비스, 교육 및 보육 서비스 재정적 부담 가능성과 보육 및 교육의 질 - 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기관의 연구 수행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 연구 결과와 아동 관련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OECD 아동친화동네 특성을 보다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와 이러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국내 자료를 OECD 회원 국가들에게 소개하여 회원 국가 간의 상호 정책 대화를 통해 OECD 아동친화동네 이니셔티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친화동네에 대한 국내 자료를 OECD 측에 제공하는 경우

자료를 어떠한 주체가 제공하였는지 제공 주체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자료 보고 체계를 수립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자료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 5.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자료 수집

아동친화동네의 대부분의 지표들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기존의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자료 이외에,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아동친화동네 구축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지역의 건축 환경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자료를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하는 것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료를 「2021 국토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는바, 향후 보다 많은 지역에 대한 특성이 유사한 방식으로 조사된다면 지역 특성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OECD 아동친화동네 특성 중에서 “놀이터 디자인 및 소재,” “공공 설치물(벤치, 공중화장실, 야외 식탁, 분수대, 그늘, 쉼터)에 대한 지표는 현재 OECD가 제시하지 못했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여러 정거장/출퇴근 환승 지표에 대해서도 가용한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이다. 한국의 우수한 공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련 지표를 구축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이러한 경험을 OECD 회원 국가들에게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강은진. (2017). 지역사회 육아공동체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사례 및 시사점. 이슈페이퍼, 2017-05. 육아정책연구소.
- 경찰청. (2023). 경찰통계연보: 소년 천명당 소년범죄검거건수(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YL3401&conn_path=I3)
- 경찰청. (2005~2022).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시도별 교통사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32&tblId=DT_V_MOTA_016&conn_path=I3)
- 교육부. (2010, 2015, 2020, 2023).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11&conn_path=I3)
- 교육부. (2005, 2010, 2015, 2020, 2023). 어린이집 및 이용자통계: 전국 어린이집 정현원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5407_NN004&conn_path=I3)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유치중등통계: 학업중단률 및 중단 사유.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18&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6818&survSeq=2023&itemCode=01&menuId=m_010109&uppCd1=010109&uppCd2=010109&flag=A)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2). 지역별의료이용통계: 시도별 의료인력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50&tblId=TX_35003_A003&conn_path=I3)
- 국토교통부. (2020, 2023). 지적통계: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26list\\_id%3DI2\\_8%26obj\\_var\\_id%3D%26seqNo%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sso=ok&returnurl=https%3A%2F%2Fkosis.kr%3A443%2FstatHtml%2FstatHtml.do%3Fconn_path%3D%26list_id%3DI2_8%26obj_var_id%3D%26seqNo%3)

D%26tblId%3DDT\_MLTM\_1246%26vw\_cd%3DMT\_ZTITLE%26itm\_id%3D%26language%3Dkor%26lang\_mode%3Dko%26orgId%3D116%26

-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2022). 2021 국토조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 인터넷이용실태조사 [데이터 세트]. 통계청 마이크로 통합서비스, [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https://mdis.kostat.go.kr/dwnlSvc/ofrSurvSearch.do?curMenuNo=UI_POR_P9240). 2024. 7. 16. 다운로드.
- 남승연, 이나련, 장미. (201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례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5, 2020, 202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4&conn_path=I3)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 편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a).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란? <https://childfriendlycities.kr/main/main.html>, 2024년 6월 1일 인출
-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b). 어린이의 표정을 밝히다. 어린이의 내일을 바꾸다.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10년: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10주년 성과보고서. <https://www.unicef.or.kr/data/upload/ebook/crc-publications/2024-ChildFriendlyCities-10years-achievement/> 2024년 6월 1일 인출
-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c).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업무 매뉴얼. 내부 자료.
- 사단법인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2024d).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 현황. 내부자료
- OECD 대한민국대표부. (2023). OECD WISE 센터 개요. 내부자료.
- 이태수. (2016). UNICEF의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와 한국의 아



- 동복지 발전. 국제사회복지학, 6, 2. p. 57-80.
- 장인수, 우해봉, 박종서, 정찬우. (2021). 2021년 인구변동 모니터링과 정책과제: 지역 인구 감소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만수, 김의정, 이현서, 홍성주, 이동렬.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2023-29. 한국은행.
- 정재훈, 배영미, 박지은, 윤수경, 이채민. (2020). 「아동이 행복한 동네」 지표 개발 연구. 연구 보고 2020-09.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6, 2020, 2024). 국회의원투표율: 투표율 변동추이. [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http://info.nec.go.kr/main/main_previous_load.xhtml)
- 통계청. (2005, 2010, 2015, 2020,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 행정구역(시도)별 경제활동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DA7004S&conn_path=I3)
- 통계청. (2023a). 사회조사: 주관적 소득수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IC01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IC010R&conn_path=I3)
- 통계청. (2023b).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 - 일 평균 교류현황(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5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5R&conn_path=I3)
- 통계청. (2023c). 사회조사: 사회적 관계망(시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SSSP04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SSSP041R&conn_path=I3)
- 통계청. (2023d). 사회조사: 우리사회에 대한 신뢰도(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P040R&conn_path=I3)
- 통계청. (2022a).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대기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1R&conn_path=I3)
- 통계청. (2022b).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하천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2R&conn_path=I3)

- 통계청. (2022c).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토양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3R&conn_path=I3)
- 통계청. (2022d).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소음 진동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4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4R&conn_path=I3)
- 통계청. (2022e).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빛 공해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7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 N017R&conn_path=I3)
- 통계청. (2022f). 사회조사: 현재 체감환경-전반적인 생활환경 상태(13세 이상 인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6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EN016R&conn_path=I3)
- 통계청. (2022). 지역소득: 1인당 GRDP.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C86_02&conn_path=I3)
- 통계청. (2021, 2023). 사회조사: 자원봉사활동 여부 및 참여하지 않은 이유.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 P180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S P180R&conn_path=I3)
- 통계청. (2021~2023). 사망원인통계(시도편): 시도 성별 사망자 수(일반사망요약분류표 : 104항목).  
<https://kosis.kr/publication/publicationWord.do>
- 통계청. (2015~2022). 주택총조사: 주택의 종류, 연면적 및 거주인수별 주택.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 50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U1 503&conn_path=I3)
- 통계청. ((2020, 2023)a). 생명표: 시도별 간이생명표.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44&conn_path=I3)
- 통계청. ((2020, 2023)b).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5세)별 사망률(196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 0A17&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 0A17&conn_path=I3)

- 통계청. (2020).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 교육상태별 인구(6세이상, 내국인)-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2001&conn_path=I3)
- 통계청. (2018, 2022). 사회조사: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A013R&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SSA013R&conn_path=I3)
- 통계청. (2010). 인구총조사: 성, 연령 및 교육정도별 인구(6세이상)-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IN1004&conn_path=I3)
- 통계청. (2003, 2013, 2022). 인구동향조사: 시도/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1A21&conn_path=I3)
-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2019,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국가통계포털, 시도별 자산, 부채, 소득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A01&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AAA01&conn_path=I3)
- 한국교육개발원. (2005, 2010, 2015, 2020, 2023). 교육통계연보: 유치원 수, 유치원 원아 수 및 교원 수(성/시도별). [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conn\\_path=I3](https://gsis.kwdi.re.kr/statHtml/statHtml.do?orgId=338&tblId=DT_1LCB011&conn_path=I3)
- 한국국토정보공사. (2020, 2022). 도시계획현황: 행정구역별·지목별 국토이용 현황\_시군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300&vw\\_cd=MT\\_ZTITLE&list\\_id=I2\\_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6&tblId=DT_MLTM_2300&vw_cd=MT_ZTITLE&list_id=I2_8&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path=%252FstatisticsList%252FstatisticsListIndex.do)
- 행정안전부. (2020, 2023). 주민등록인구현황: 행정구역(시군구)별, 성별 인구 수.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040A3&conn_path=I3)
- 환경부. (2018, 2023). 대기오염도 현황. 미세먼지(PM2.5) 월별 대기오염도(측정망별, 시도별, 도시별, 측정지점별). <https://kosis.kr/statHtml/stat>

- Html.do?orgId=106&tblId=DT\_106N\_03\_0200176&conn\_path=I2
- Adrian, N., Barnett, B., Bunn, L., Galecki, M., Ginn, J., & Plumley, B. (2020). *Climate Change, & Child Poverty in OECD Countries Prepared for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https://lafollette.wisc.edu/research/climate-change-child-poverty-in-oecd-countries/>
- Agostinelli, F., Doepke, M., Sorrenti, G., & Zilibotti, F. (2020). *It Takes a Village: The Economics of Parenting with Neighborhood and Peer Effect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7050>
- Ainsworth, J. (2002). *Why Does It Take a Village? The Mediation of Neighbo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 *Social Forces*, 81(1), 117-152. <https://doi.org/10.1353/sof.2002.0038>
- Akela, D., & Jordan, M. (2014). *Impact of Social and Cultural Factors on Teenage Pregnancy*. *Journal of Health Disparities Research and Practice*, 8(1), 41-61. <https://digitalscholarship.unlv.edu/jhdrp/vol8/iss1/3>
- Alderton, A., Villanueva, K., O'Connor, M., Boulangé, C., & Badland, H. (2019). *Reducing Inequities in Early Childhood Mental Health: How Might the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Help Close the Gap? A Systematic Search and Critic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9), 1516. <https://doi.org/10.3390/ijerph16091516>
- Almeida, V., Hoffmann, C., Königs, S., Monroy, A. M., Salazar-Lozada, M., & Terrero-Dávila, J. (2024). *Geographic inequalities in access to essential servic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307. OECD.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geographic-inequalities-in-accessibility-of-essential->

services\_12bab9fb-en.html

-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017). Gangs and Children. Facts for Families Guide No 98. [https://www.aacap.org/AACAP/Families\\_and\\_Youth/Facts\\_for\\_Families/FFF-Guide/Children-and-Gangs-098.aspx](https://www.aacap.org/AACAP/Families_and_Youth/Facts_for_Families/FFF-Guide/Children-and-Gangs-098.aspx)
- Astell-Burt, T., Feng, X., Mavoa, S., Badland, H. M., & Giles-Corti, B. (2014). Do low-income neighbourhoods have the least green space? A cross-sectional study of Australia's most populous cities. *BMC public health*, 14, 1-11. <https://doi.org/10.1186/1471-2458-14-292>
- Astell-Burt, T., Mitchell R., & Hartig, T. (2014). The association between green space and mental health varies across the lifecourse.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8(6), 578-583. <https://doi.org/10.1136/jech-2013-203767>
- Avdeev, S., Ketel, N., Oosterbeek, H., & van der Klaauw, B. (2023). Spillovers in Fields of Study: Siblings, Cousins, and Neighbors. IZA Discussion Paper, No. 16453. <https://ssrn.com/abstract=4578416>
- Ayllón, S., Holmarsdóttir, H., & Lado, S. (2023). Digitally Deprived Children in Europe. *Child Indicators Research*, 16(3), 1315-1339. <https://doi.org/10.1007/s12187-022-10006-w>
- Baldwin, J., Arundell, L., & Hnatiuk, J. (2022). Associations between the neighbourhood social environment and preschool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nd screen time. *BMC Public Health*, 22, 1-10. <https://bmcpublichealth.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889-022-13493-2>
- Balkin, S. (1979). Victimization Rates, Safety and Fear of Crime. *Social*

- Problems, 26, 343-358. <https://doi.org/10.2307/800458>
- Balseviciene, B., Sinkariova, L., Grazuleviciene, R., Andrusaityte, S., Uzdanaviciute, I., Dedele, A., & Nieuwenhuijsen, M. J. (2014). Impact of Residential Greenness on Preschool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1(7), 6757-6770. <https://doi.org/10.3390/ijerph110706757>
- Baron, E., Hyman, J., & Vasquez, B. (2022). Public School Funding, School Quality, and Adult Crim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9855>
- Barrios-Fernández, A. (2022). Neighbors' Effects on University Enrollment. *American Economic Journal: Applied Economics*, 14(3), 30-60. <https://doi.org/10.1257/app.20200360>
- Barry, M. (2009). Addressing the Determinants of Positive Mental Health: Concepts, Evidence and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Promotion*, 11(3), 4-17. <https://doi.org/10.1080/14623730.2009.9721788>
- Baum, A., Garofalo, J., & Yali, A. (1999). Socioeconomic Status and Chronic Stress: Does Stress Account for SES Effects on Health?.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896(1), 131-144. <https://doi.org/10.1111/j.1749-6632.1999.tb08111.x>
- Beasley, R., Semprini, A., & Mitchell, E. (2015). Risk factors for asthma: Is prevention possible?. *The Lancet*, 386(9998), 1075-1085. [https://doi.org/10.1016/S0140-6736\(15\)00156-7](https://doi.org/10.1016/S0140-6736(15)00156-7)
- Bronfenbrenner, U. (1979). Contexts of child rearing: Problems and prospects. *American Psychologist*, 34(10), 844-850. <https://doi.org/10.1037/0003-066X.34.10.844>
- Bozick, R., & DeLuca, S. (2010). Not Making the Transition to College:

- School, Work, and Opportunities in the Lives of Contemporary American Youth. RAND Working Paper Series WR- 760. <https://doi.org/10.2139/ssrn.1625528>
- Brandén, M., Haandrikman, K., & Birkelund, G. E. (2022). Escaping one's disadvantage? Neighbourhoods, socioeconomic origin and children's adult life outcom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9(4), 601-614. <https://doi.org/10.1093/esr/jcac063>
- Buyukkececi, Z. (2022). Neighbourhood effects on early adulthood family life courses: A trajectory-based approach. *Population, Space and Place*, 29(2), 1-17. <https://doi.org/10.1002/psp.2609>
- Byrnes, H., & Miller, B.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Parenting Behaviors. *Journal of Family Issues*, 33(12), 1658-1687. <https://doi.org/10.1177/0192513x12437693>
- Calvó-Armengol, A., Patacchini, E., & Zenou, Y. (2009). Peer Effects and Social Networks in Education. *Review of Economic Studies*, 76(4), 1239-1267. <https://doi.org/10.1111/j.1467-937x.2009.00550.x>
- Canfield, C., O'Connell, L., Sadler, R. C., Gutierrez, J., Williams, S., & Mendelsohn, A. L. (2022). Not built for families: Associations between neighborhood disinvestment and reduced parental cognitive stimul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3:933245, 1-13. <https://doi.org/10.3389/fpsyg.2022.933245>
- Chapple, K. (2006). Overcoming Mismatch: Beyond Dispersal, Mobility, and Development Strateg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72(3), 322-336. <https://doi.org/10.1080/01944360608976754>
- Chetty, R., Friedman, J. N., Hendren, N., Jones, M. R., & Porter, S. R.

- (2018). The Opportunity Atlas: Mapping the Childhood Roots of Social Mobility.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5147>
- Chetty, R., & Hendren, N. (2018). The Impacts of Neighborhoods on Intergenerational Mobility I: Childhood Exposure Effec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3(3), 1107-1162. <https://doi.org/10.1093/qje/qjy007>
- Chetty, R., Hendren, N., & Katz, L. (2016). The Effects of Exposure to Better Neighborhoods on Children: New Evidence from the Moving to Opportunity Experi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6(4), 855-902. <https://doi.org/10.1257/aer.20150572>
- Chetty, R., Jackson, M. O., Kucher, T., Stroebel, J., Hendren, N., Fluegge, R. B., Gong, S., Gonzalez, F., Grondin, A., Jacob, M., Johnston, D., Koenen, M., Laguna-Muggenburg, E., Mudekereza, E., Rutter, T., Thor, N., Townsend, Wl, Zhang, R., Bailey, M., Barberá, P., Bhole, M., & Wernerfelt, N. (2022a). Social capital I: measurement and associations with economic mobility. *Nature*, 608, 108-121. <https://doi.org/10.1038/s41586-022-04996-4>
- Chetty, R., Jackson, M. O., Kucher, T., Stroebel, J., Hendren, N., Fluegge, R. B., Gong, S., Gonzalez, F., Grondin, A., Jacob, M., Johnston, D., Koenen, M., Laguna-Muggenburg, E., Mudekereza, E., Rutter, T., Thor, N., Townsend, Wl, Zhang, R., Bailey, M., Barberá, P., Bhole, M., & Wernerfelt, N. (2022b). Social capital II: determinants of economic connectedness. *Nature*, 608, 122-134. <https://doi.org/10.1038/s41586-022-04997-3>
- Christian, H., Ball, S. J., Zubrick, S. R., Brinkman, S., Turrell, G., Boruff, B., & Foster, S. (2017). Relationship between the neighbourhood



- built environment and early child development. *Health, & Place*, 48, 90-101.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7.08.010>
- Christian, H., Zubrick, S. R., Fowter, S., Giles-Corti, B., Bull, Fl, Wood, L., Knuiiman, M., Brinkman, S., Houghton, Sl, & Boruff, B. (2015). The influence of the neighborhood physical environment on early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A review and call for research, *Health, & Place*, 33, 25-36.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5.01.005>
- Clair, A. (2019). Housing: an Under-Explored Influence on Children's Well-Being and Becoming. *Child Indicators Research*, 12, 609-626.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2187-018-9550-7>
- Clarke, C., & Thévenon, O. (2023). Childhood socio-economic disadvantage in Austria: A snapshot of key challenges.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5f13f8-en>
- Cohen, D. A., Talarowski, M. R., Han, B., Williamson, S. L., Galfond, E. C., Young, D. R., Eng, S., & McKenzie, T. L. (2023). Playground Design and Physical Activ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64(3), 326-333. <https://doi.org/10.1016/j.amepre.2022.10.012>.
- Coley, R. L., Leventhal, T., Lynch, A. D., & Kull, M. (2013). Relations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the well-being of low-income children and adolescents. *Developmental Psychology*, 49(9), 1775-1789. <https://doi.org/10.1037/a0031033>
- Committee on Environmental Health. (2009). The built environment: Designing communities to promote physical activity in children. *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123(6), 1591-1598. <https://doi.org/10.1542/2009-0911>

org/10.1542/peds.2009-0750

- Conley, T. G., Mehta, N., Stinebrickner, R., & Stinebrickner, T. (2024). Social Interactions, Mechanisms, and Equilibrium: Evidence from a Model of Study Time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2), 824-866. <https://doi.org/10.1086/726902>
- Coulton, C. J., Richter, F., Kim, S-J., Fischer, R., Cho, Y. (2016). Temporal effects of distressed housing on early childhood risk factors and kindergarten readines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8, 59-72. <https://doi.org/10.1016/j.childyouth.2016.06.017>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21). Council Recommendation. (EU) 2021/1004 Establishing a European Child Guarante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21H1004>
- Crawford, D., Timperio, A., Giles-Corti, B., Ball, K., Hume, C., Roberts, R., Andrianopoulos, N., & Salmon, J. (2008). Do features of public open spaces vary according to neighbourhood socio-economic status?. *Health, & Place*, 14(4), 889-893.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07.11.002>
- Dallago, L., Perkins, D. D., Santinello, M., Boyce, W., Molcho, M., Morgan, A. (2009). Adolescent Place Attachment, Social Capital, and Perceived Safety: A Comparison of 13 Countrie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4(1-2), 148-160. <https://doi.org/10.1007/s10464-009-9250-z>
- De Giorgi, G., Pellizzari, M., & Redaelli, S. (2007). Be as Careful of the Books You Read as of the Company You Keep: Evidence on Peer Effects in Educational Choices. IZA Discussion Paper No. 2833. <https://doi.org/10.2139/ssrn.997263>

- Dekker, L., Rijnks, R., & Mierau, J. (2020). Health disparities by neighborhood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role of spatial spillovers. *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30, Issue Supplement\_5. <https://doi.org/10.1093/eurpub/ckaa165.710>
- Deutscher, N. (2018). Place, jobs, peers and the importance of the teenage years: exposure effects and intergenerational mobility.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 <https://www.rse.anu.edu.au/media/2326614/Deutscher-Paper-2018.pdf>. (accessed on 12 June 2019).
- Dirwan, G., & Thévenon, O. (2023). Integrated policy making for child well-being: Common approaches and challenges ahead. *OECD Papers on Well-being and Inequalities*, 1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a5202af-en>
- Doepke, M., & Zilibotti, F. (2019). *Love, Money, and Parenting*. Princeton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2307/j.ctvc77fr1>
- Donnelly, L., Garfinkel, I., Brooks-Gunn, J., Wagner, B. G., James, S., & McLanahan, S. (2017). Geography of intergenerational mobility and child develop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4(35), 9320-9325. <https://doi.org/10.1073/pnas.1700945114>
- Donovan, G., & Prestemon, J. (2010). The Effect of Trees on Crime in Portland, Oregon. *Environment and Behavior*, 44(1), 3-30. <https://doi.org/10.1177/0013916510383238>
- Duncan, D. T., Sharifi, M., Melly, S. J., Marshall, Rl, Sequist, T. D., Rifas-Shiman, S. L., & Taveras, E. M. (2014). Characteristics of Walkable Built Environments and BMI z-Scores in Children: Evidence from a Large Electronic Health Record Database.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22(12), 1359-1365.

<https://doi.org/10.1289/ehp.1307704>

- Egli, V., Villanueva, K., Donnellan, N., Mackay, L., Forsyth, E., Zinn, C., Kytta, M., & Smith, M. (2020). Understanding children's neighbourhood destinations: presenting the Kids-PoND framework. *Children's Geographies*, 18(4), 420-434. <https://doi.org/10.1080/14733285.2019.1646889>
- Eriksen, T., Gaulke, A., Svensson, J., Skipper, N., & Thingholm, P. (2023). Childhood Health Shocks an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Inequality. IZA Discussion Paper, 16447. IZA Institute of Labor Economics. <https://doi.org/10.2139/ssrn.4570012>
- Evans, G. (2003). The Built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Journal of Urban Health*, 80(4), 536-555. <https://doi.org/10.1093/jurban/jtg063>
- Evans, G., & Ferguson, K. (2011). Built Environment and Mental Health. *Encyclopedia of Environmental Health*. Elsevier, 446-449. <https://doi.org/10.1016/b978-0-444-52272-6.00006-4>
- Feng, X., & Astell-Burt, T. (2017). Residential Green Space Quantity and Quality and Child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53(5), 616-624. <https://doi.org/10.1016/j.amepre.2017.06.035>
- Ferguson, K., Cassells, R. C., MacAllister, J. W., & Evans, G. W. (2013).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child development: An international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8(4), 437-468. <https://doi.org/10.1080/00207594.2013.804190>
- Fernandez, C. C., Patalay, P., Vaughan, L., Church, D., Hamer, M., & Maddock, J. (2023). Subjective and objective indicators of neighbourhood safety and physical activity among UK adolescents. *Health, & Place*, 83, 103050, 1-11. <https://doi.org/10.1016/J>

HEALTHPLACE.2023.103050

- Foster, S., Villanueva, K., Wood, L., Christian, H., & Giles-Corti, B. (2014). The impact of parents' fear of strangers and perceptions of informal social control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Health, & Place*, 26, 60-68.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3.11.006>
- Furstenberg Jr, F. F. (2010). On a New Schedule: Transitions to Adulthood and Family Change. *The Future of Children*, 20(1), 67-87. <https://doi.org/10.1353/foc.0.0038>
- Fryer Jr, R. G., & Katz, L. F. (2013). Achieving Escape Velocity: Neighborhood and School Interventions to Reduce Persistent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3), 232-237. <https://doi.org/10.1257/aer.103.3.232>
- Galster, G. (2011). The Mechanism(s) of Neighbourhood Effects: Theory,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van Ham, M., Manley, D., Bailey, N., Simpson, L., & Maclennan, D. (Eds). *Neighbourhood Effects Research: New Perspectives*(pp. 23-56). Springer Netherlands, Dordrecht. [https://doi.org/10.1007/978-94-007-2309-2\\_2](https://doi.org/10.1007/978-94-007-2309-2_2)
- García, J., Bennhoff, F., & Leaf, D. (2023). The Dynastic Benefit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articipant Benefits and Family Spillovers. NBER Working paper series, 3155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31555>
- Gascon, M., Triguero-Mas, M., Martínez, D., Dadvand, P., Forn, J., Plasència, A., & Nieuwenhuijsen, M. J. (2015). Mental Health Benefits of Long-Term Exposure to Residential Green and Blue Space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4), 4354-4379. <https://doi.org/10.3390/ijerph120404354>

- Gascon, M., Vrijheid, M., & Nieuwenhuijsen, M. (2016). The Built Environment and Child Health: An Overview of Current Evidence. *Current Environmental Health Reports*, 3(3), 250-257. <https://doi.org/10.1007/s40572-016-0094-z>
- Global Burden of Disease Pediatrics Collaboration. (2016). Global and national burden of diseases and injuries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between 1990 and 2013: findings from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2013 study. *JAMA Pediatrics*, 170(3), 267-287. <https://doi.org/10.1001/jamapediatrics.2015.4276>
- Global Designing Cities Initiative. (2019). *Designing Streets for Kids*. Island Press.
- Goldfeld, S., Villanueva, K., Lee, J.L., Robinson, R., Moriarty, A., Peel, D., Tanton, R., Giles-Corti, B., Woolcock, G., Brinkman, S., & Katz, I. (2018). Foundational Community Factors (FCFs) fo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report on the Kids in Communities Study. <https://www.rch.org.au/uploadedFiles/Main/Content/ccch/CCCH-KICS-Final-Report-April-2018.pdf>
- Goldman, L., Shannon, M., & the Committee on Environmental Health. (2001). Technical Report: Mercury in the Environment: Implications for Pediatricians. *Pediatrics*, 108(1), 197-205. <https://doi.org/10.1542/peds.108.1.197>
- Frazer, H., Guio, A-C., & Marlier, E. (2020). Feasibility study for a child guarantee: Fin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Employment, Social Affairs and Inclusion. <https://op.europa.eu/en/publication-detail/-/publication/c312c468-c7e0-11ea-adf7-01aa75ed71a1/language-en>
- Harding, D., Sanbonmatsu, L., Duncan, G. J., Gennetian, L. A., Katz, L. F., Kessler, R. C., Kling, J. R., Sciandra, M., & Ludwig, J. (2021).

- Evaluating Contradictory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Estimates of Neighborhood Effects on Economic Outcomes for Adults. NBER Working paper seri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s://doi.org/10.3386/w28454>
- Hidalgo, M., & Hernández, B. (2001). Place attachment: Conceptual and empirical question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1(3), 273-281. <https://doi.org/10.1006/jevp.2001.0221>
- Hjalmarsson, S. (2023). Pay to play? Economic constraints and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9(4), 586-600. <https://doi.org/10.1093/esr/jcac061>
- Hoyt, L. T., Kushi, L. H., Leung, C. W., Nickleach, D. C., Adler, N., Laraia, B. A., Hiatt, R. A., & Yen, I. H. (2014). Neighborhood Influences on Girls' Obesity Risk Across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Pediatrics*, 134(5), 942-949. <https://doi.org/10.1542/peds.2014-1286>
- Huang, J., Hipp, J. A., Marquet, O., Ablerico, C., Fry, D., Mazak, E., Lovasi, G. S., Robinson, W. R., & Fllyd, M. F. (2020).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park use and park-based physical activity among children in low-income diverse neighborhoods in New York City. *Preventive Medicine*, 131, 105948. <https://doi.org/10.1016/J.YPMED.2019.105948>
- Huang, M., Strickland, M. J., Richards, M., Holmes, H. A., Newman, A. J., Garn, J. V., Liu, Y., Warren, J. L., Chang, H. H., & Darrow, L. A. (2021). Acute associations between heatwaves and preterm and early-term birth in 50 US metropolitan areas: a matched case-control study. *Environmental Health*, 20, 47, 1-14. <https://doi.org/10.1186/s12940-021-00733-y>
- Hüttenmoser, M. (1995). Children and Their Living Surroundings:

- Empirical Investigations into the Significance of Living Surroundings for the Everyday Life and Development of Children. *Children's Environments*, 12(4), 403-413. <http://www.jstor.org/stable/41514991>
- Islam, M., Johnston, J., & Sly, P. (2020). Green space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 systematic review. *Reviews on Environmental Health*, 35(2), 189-200. <https://doi.org/10.1515/reveh-2019-0046>
- Jagannathan, R., Donnelly, L., McLanahan, S., Camasso, M. J., & Yang, Y. (2023). Growing up poor but doing well: Contextual factors that predict academic success. *The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21, 169-200. <https://doi.org/10.1007/s10888-022-09549-3>
- Janssen, I. (2014). Crime and perceptions of safety in the home neighborhood are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physical activity among 11-15 year olds. *Preventive Medicine*, 66, 113-117. <https://doi.org/10.1016/j.ypmed.2014.06.016>
- Jia, P., Xue, H., Cheng, X., Wang, Y., & Wang, Y. (2019). Association of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s with childhood obesity: Evidence from a 9-year longitudinal,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in the US. *Environment International*, 128, 158-164. <https://doi.org/10.1016/j.envint.2019.03.067>
- Jutte, D. P., Badruzzaman, R. A., & Thomas-Squance, R. (2021). Neighborhood Poverty and Child Health: Investing in Communities to Improve Childhood Opportunity and Well-Being. *Academic Pediatrics*, 21(8), S184-S193. <https://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1876285921002473>
- Kneeshaw-Price, S. H., Saelens, B. E., Sallis, J. F., Frank, L. D., Grembowski, D. E., Hannon, P. A., Smith, N. L., & Chan, K. C. G. (2015). Neighborhood Crime-Related Safety and Its Relation to



- Children's Physical Activity. *Journal of Urban Health*, 92, 472-489. <https://doi.org/10.1007/S11524-015-9949-0>
- Kohen, D. E., Leventhal, T., Dahinten, V. S., & McIntosh, C. N. (2008). Neighborhood Disadvantage: Pathways of Effects for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79(1), 156-169. <https://doi.org/10.1111/j.1467-8624.2007.01117.x>
- Königs, S., & Vindics, A. (2021). The Geography of Income Inequalities in OECD Countries. Report of the 36<sup>th</sup> IARIW Virtual General Conference. [https://iariw.org/wp-content/uploads/2021/07/Konigs\\_Vindics\\_Paper.pdf](https://iariw.org/wp-content/uploads/2021/07/Konigs_Vindics_Paper.pdf)
- Koohsari, M., Badland, H., & Giles-Corti, B. (2013). (Re)Designing the built environment to support physical activity: Bringing public health back into urban design and planning. *Cities*, 35, 294-298. <https://doi.org/10.1016/J.CITIES.2013.07.001>
- Kuo, F. E., & Sullivan, W. C. (2001). Environment and Crime in the Inner City: Does Vegetation Reduce Crime?. *Environment and Behavior*, 33(3), 343-367. <https://doi.org/10.1177/0013916501333002>
- Laliberté, J-W. (2021). Long-Term Contextual Effects in Education: Schools and Neighborhoods.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3(2), 336-77. <https://doi.org/10.1257/POL.20190257>
- Lercher, P., Evans, G. W., & Widmann, U. (2013). The ecological context of soundscapes for children's blood pressure.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134(1), 773-781. <https://doi.org/10.1121/1.4807808>
-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https://doi.org/10.1037/0033-2909.126.2.309>

- Leventhal, T., Dupéré, V., & Brooks-Gunn, J. (2009). Neighborhood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In Lerner, R. M., & Steinberg, L. (Eds.),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Contextual influences on adolescent development* (3rd ed., 411-443). John Wiley & Sons, Inc. <https://doi.org/10.1002/9780470479193.adlpsy002013>
- Leyden, K. M., Hogan, M. J., D'Arcy, L., Bunting, B., & Bierema, S. (2023). Walkable Neighborhood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90, 101-114. <https://doi.org/10.1080/01944363.2022.2123382>
- List, J., Momeni, F., Vlassopoulos, M., & Zenou, Y. (2023). The Social Side of Early Human Capital Formation: Using a Field Experiment to Estimate the Causal Impact of Neighborhoods. *Framed Field Experiments* 00722. <https://ideas.repec.org/p/feb/framed/00722.html>
- Lovasi, G. S., Quinn, J. W., Neckerman, K. M., Perzanowski, M. S., & Rundle, A. (2008). Children living in areas with more street trees have lower prevalence of asthma.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62(7), 647-649. <https://doi.org/10.1136/jech.2007.071894>
- Maes, M., Gonzales-Hishinuma, A., Hoffmann, C., Banquet, A., Veneri, P., Bizeul, A., Martin, A. R., & Quadrelli, R. (2022). Monitoring exposure to climate-related hazards: Indicator methodology and key results. *OECD Environment Working Papers*, No. 20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a074cb6-en>
- Marquez, J., Humphrey, N., Black, L., & Wozmirska, S. (2024). This is the place: a multi-level analysis of neighbourhood correlates of adolescent wellbeing.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 ology, 59, 926-946. <https://doi.org/10.1007/s00127-023-02531-y>
- Marquez, J., Qualter, P., Petersen, K., Humphrey, N., & Black, L. (2023). Neighbourhood effects on loneliness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Public Health*, 45(3), 663-675. <https://doi.org/10.1093/pubmed/fdad053>
- McCormick, R. (2017). Does Access to Green Space Impact the Mental Well-being of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37, 3-7. <https://doi.org/10.1016/j.pedn.2017.08.027>
- McKendrick, J. (2014). Geographies of children's well-being: In, of, and for place. in Ben-Arieh, A., Casas, F., Frønes, I., & Korbin, J. E. (Eds). *Handbook of Child Well-Being: Theories, Methods and Policies in Global Perspective*(pp.279-300). Springer Netherlands. [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2](https://doi.org/10.1007/978-90-481-9063-8_12)
- McTigue, K. M., Cohen, E. D., Moor, C. G., Hipwell, Al. E., Loeber, R., & Kuller, L. H. (2015). Urban Neighborhood Features and Longitudinal Weight Development in Girl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9(6), 902-911. <https://doi.org/10.1016/j.amepre.2015.05.021>
- Minh, A., Muhajarine, N., Janus, M., Brownell, M., & Guhn, M. (2017). A review of neighborhood effects and early child development: How, where, and for whom, do neighborhoods matter?. *Health, & Place*, 46, 155-174. <https://doi.org/10.1016/j.healthplace.2017.04.012>
- Mouratidis, K. (2021). Urban planning and quality of life: A review of pathways linking the built environment to subjective well-being. *Cities*, 115, 103229. <https://doi.org/10.1016/j.cities.2021.103229>
- National Scientific Council on the Developing Child. (2023). *Place Matters: The Environment We Create Shapes the Foundations of*

Healthy Development. Working Paper 16. Center on the Developing Child, Harvard University. [https://harvardcenter.wpenginepowered.com/wp-content/uploads/2023/03/HCDC\\_WP16\\_R2A.pdf](https://harvardcenter.wpenginepowered.com/wp-content/uploads/2023/03/HCDC_WP16_R2A.pdf)

Noelke, C., McArdle, N., Baek, M., Huntington, N., Huber, R., Hardy, E., & Acebedo-Garcia, D. (2020). Child Opportunity Index 2.0 Technical Documentation. Diversitydatakids.org. [http://new.diversitydatakids.org/sites/default/files/2020-01/ddk\\_coi2.0\\_technical\\_documentation\\_20200115\\_1.pdf](http://new.diversitydatakids.org/sites/default/files/2020-01/ddk_coi2.0_technical_documentation_20200115_1.pdf)

Oggers, C. L., Moffitt, T. E., Tach, L. M., Sampson, R. J., Taylor, A., Matthews, C. L., & Caspi, A. (2009). The protective effects of neighborhood collective efficacy on British children growing up in deprivation: A development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45(4), 942-957. <https://doi.org/10.1037/a0016162>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4a).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oecd-child-well-being-data-portal.htm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4b). Child well-being outcomes.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well-being-outcomes0.htm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4c). Child well-being drivers.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well-being-drivers.html>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4d). Child policies. Retrieved July 15, 2024, from

-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policies.html>
- OECD Data Explorer. (2024). Regional, rural and urban development. Retrieved July 15, 2024, from <https://www.oecd.org/en/topics/regional-rural-and-urban-development.html>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a). Built Environment through a Well-Being Le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b5bebf4-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b). PF3.2 Enrolment in childcare and pre-school,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social/family/database.htm>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3c). Build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A progress Report.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 centre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Committee. Working Party on Social Policy.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2). OECD Territorial grids. OECD Centre for Entrepreneurship, SMEs, Regions and Cities. <https://www.oecd.org/content/dam/oecd/en/topics/policy-sub-issues/regions-cities-and-local-statistics/territorial-grid.pdf>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1a).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82fded1-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1b). Positive, High-achieving Students?: What Schools and Teachers Can Do, TAL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b9551db-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a).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20, OECD Publishing.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20b).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870c393-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9). Changing the Odds for Vulnerable Children: Building Opportunities and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2e8796c-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a).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1085-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b). Engaging Young Children - Lessons from Research about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85145-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5a). Starting Strong IV: Monitoring Quality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tarting Stro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33515-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5b). How's life for children?. in How's Life? 2015: Measuring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how\\_life-2015-8-en](https://doi.org/10.1787/how_life-2015-8-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1). OECD Regions at a Glance 2011, OECD Publishing, Paris.

- [https://doi.org/10.1787/reg\\_glance-2011-en](https://doi.org/10.1787/reg_glance-2011-en)
-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09). *Doing Better for Childre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059344-en>
- Park, R. J., Goodman, J, Hurwitz, M., & Smith J. (2020). Heat and Learning.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12(2), 306-339. <https://www.aeaweb.org/articles?id=10.1257/pol.20180612>
- Pellegrini, A. D. (2009). Research and Policy on Children's Play.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3(2), 131-136. <https://doi.org/10.1111/j.1750-8606.2009.00092.x>
- Pickett, K. E., & Pearl, M. (2001). Multilevel analyses of neighbourhood socioeconomic context and health outcomes: a critical review. *Journal of Epidemiology & Community Health*, 55(2), 111-122. <https://doi.org/10.1136/jech.55.2.111>
- Qian, Y., Thomsen, M. R., Nayga, R. M., & Rouse, H. L.. (2017). The Effect of Neighborhood Fast Food on Children's BMI: Evidence from a Sample of Movers. *The B.E. Journal of Economic Analysis & Policy*, 17(4), 20160251. <https://doi.org/10.1515/bejeap-2016-0251>
- Resnjanskij, S., Ruhose, J., Wiederhold, S., Woessmann, L., & Wedel, K. (2023). Can Mentoring Alleviate Family Disadvantage in Adolescence? A Field Experiment to Improve Labor-Market Prospect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32(3), 1013-1062. <https://doi.org/10.1086/726905>
- Richardson, D., & Ali, N. (2014).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Surveys of Children*.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4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xzmjrqvntf-en>

- Riding, S., Teévenon, O., Adema, W., & Dirwan, G. (2021). Looking beyond COVID-19: Strengthening family support services across the OEC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6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6738ab2-en>
- Roubinov, D. S., Hagan, M. J., Boyce, W. T., Alder, N. E., & Bush, N. R. (2018). Family Socioeconomic Status, Cortisol, and Physical Health in Early Childhood: The Role of Advantageous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Psychosomatic Medicine*, 80(5), 492-501. <https://doi.org/10.1097/psy.0000000000000585>
- Sandy, R., Tchernis, R., Wilson, J., Liu, G., & Zhou, X. (2013). Effects of the built environment on childhood obesity: The case of urban recreational trails and crime. *Economics and Human Biology*, 11(1), 18-29. <https://doi.org/10.1016/j.ehb.2012.02.005>
- Sellström, E., & Bremberg, S. (2006). Review Article: The significance of neighbourhood context to child and adolescent health and well-being: A systematic review of multilevel studie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4(5), 544-554. <https://doi.org/10.1080/14034940600551251>
- Shuey, E., & Leventhal, T. (2019). Neighborhoods and Parenting. in Bornstein, M. H. (Ed.). *Handbook of Parenting*(pp. 371-399). Routledge. <https://doi.org/10.4324/9780429401459-11>
- Smith, M., Hosking, J., Woodward, A., Witten, K., MacMillan, A., Field, A., Baas, P., & Mackie, H. (2017).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built environment effects on physical activity and active transport—an update and new findings on health eq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4:158, 1-27. <https://doi.org/10.1186/s12966-017-0613-9>



- Snedker, K., & Herting, J. (2016). Adolescent Mental Health. *Youth & Society*, 48(5), 695-719. <https://doi.org/10.1177/0044118x13512335>
- South, E., MacDonald, J., & Reina, V. (2021). Association Between Structural Housing Repairs for Low-Income Homeowners and Neighborhood Crime. *JAMA Network Open*, 4(7):e2117067, 1-12. <https://doi.org/10.1001/jamanetworkopen.2021.17067>
- Suarez Castillo, M., Benatia, D, Le Thi, C., & Costemalle, V. (2024). Air Pollution and Children's Health Inequalities (preprint). medRxiv. <https://doi.org/10.1101/2024.02.07.24302381>
- Taylor, A. F., & Kuo, F. (2011). Could Exposure to Everyday Green Spaces Help Treat ADHD? Evidence from Children's Play Settings. *Applied Psychology: Health and Well-Being*, 3(3), 281-303. <https://doi.org/10.1111/j.1758-0854.2011.01052.x>
- Thiery, W., Lange, S., Rogelj, J., Schleussner, C. F., Gudmundsson, L., Seneviratne, S. I., Andrijevic, M., Frieler, K., Emanuel, K., Geiger, T., Bresch, D. N., Zhao, F., Willner, S. N., Büchner, M., Volkholz, J., Bauer, N., Chang, J., Ciais, P., Dury, M., ... Wada, Y. (2021). Intergenerational inequities in exposure to climate extremes. *Science*, 374(6564), 158-160. <https://doi.org/10.1126/science.abi7339>
- Troost, A., van Ham, M. & Manley, D. (2023). Neighbourhood effects on educational attainment. What matters more: Exposure to poverty or exposure to affluence?. *PLOS ONE*, 18(3), e028192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81928>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2017). Danger in the air: How air pollution can affect brain development in young children.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https://www.unicef.org/sites/>

- default/files/press-releases/glo-media-Danger\_in\_the\_Air.pdf
- van der Zwaard, B. C., Schalkwijk, A. A. H., Elders, P. J. M., Platt, L., & Nijpels, G. (2018). Does environment influence childhood BMI? A longitudinal analysis of children aged 3-11.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72(12), 1110-1116. <https://doi.org/10.1136/jech-2018-210701>
- Villanueva, K., Badland, H., Kvalsvig, A., O'Connor, M., Christian, H., Woolcock, G., Giles-Corti, B., Goldfeld, S. (2016). Can the Neighborhood Built Environment Make a Difference in Children's Development? Building the Research Agenda to Create Evidence for Place-Based Children's Policy. *Academic Pediatrics*, 16(1), 10-19. <https://doi.org/10.1016/j.acap.2015.09.006>
- Wallerich, L., Fillol, A., Rivadeneyra, A., Vandentorren, S., Wittwer, J., & Cambon, L. (2023). Environment and child well-being: A scoping review of reviews to guide policies. *Health promotion perspectives*, 13(3), 166-182. <https://doi.org/10.34172/HPP.2023.20>
- Wang, L., Cheng, Y., Jiang, S., & Zhou, Z. (2023). Neighborhood 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Children: A Moderated Mediation Model of Out-of-school Activities and Friendship Quality. *Child Indicators Research*, 16(4), 1607-1626. <https://doi.org/10.1007/s12187-023-10024-2>
- Whitzman, C., & Mizrachi, D. (2012). Creating Child-Friendly High-Rise Environments: Beyond Wastelands and Glasshouses. *Urban Policy and Research*, 30(3), 233-249. <https://doi.org/10.1080/08111146.2012.663729>
- Wodtke, G. T., Elwert, F., & Harding, D. J. (2016). Neighborhood Effect Heterogeneity by Family Income and Developmental Period.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1(4), 1168-1222. <https://doi.org/10.1215/00141801-2016-012>

- org/10.1086/684137
- Wodtke, G. T., Yildirim, U., Harding, D. J., Elwert, F. (2023). Are Neighborhood Effects Explained by Differences in School Qualit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8(5), 1472-1528. <https://doi.org/10.1086/724279>
- World Meteorological Organisation (WMO). (2023). WMO Air Quality and Climate Bulletin No. 3. (September 2023).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https://library.wmo.int/viewer/62090/?offset=#page=1&viewer=picture&o=bookmark&n=0&q=>
- Wu, J., & Plantinga, A. J. (2003). The influence of public open space on urban spatial structure. *Journal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Management*, 46(2), 288-309. [https://doi.org/10.1016/s0095-0696\(03\)00023-8](https://doi.org/10.1016/s0095-0696(03)00023-8)
- Xing, J., Hu, Z., Xia, F., Xu, J., & Zou, E. (2023). Urban Forests: Environmental Health Values and Risk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Working paper 31554. <https://www.nber.org/papers/w31554>
- Xue, Y., Leventhal, T., Brooks-Gunn, J., & Earls, F. J. (2005). Neighborhood Residence and Mental Health Problems of 5- to 11-Year-Old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5), 554-563. <https://doi.org/10.1001/archpsyc.62.5.554>
- Zhou, Q., Zhao, L., Zhang, L., Xiao, Q., Wu, T., Visscher, T., Zhao, J., Xin, J., Yu, X., Xue, H., Li, H., Pan, J., & Jia, P. (2019). Neighborhood supermarket access and childhood obesity: A systematic review. *Obesity Reviews*, 22(S1):e12937, 1-12. <https://doi.org/10.1111/obr.12937>





## [부록 1] OECD 아동 웰빙 체계 및 데이터 현황

OECD의 고용노동사회국은 회원 국가들이 보다 나은 아동 정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아동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에는 WISE 센터<sup>16)</sup>를 설립하여 아동 웰빙에 중점을 둔 아동 정책의 추진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동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하였다. 본 절에서는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와 관련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1. OECD의 아동 데이터 수집 추진 배경

아동 정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 대하여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영역에는 아동의 물질적인 생활 수준,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사회적 생활, 학습과 교육, 가족·학교·지역사회·동네 등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배경 및 환경이 포함된다. 많은 OECD 회원 국가들이 아동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HBSC)」,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등 국제적인 조사를 통

16) OECD WISE 센터(Centre on Well-being, Inclusion, Sustainability and Equal Opportunity)는 기존 OECD 내 통계국, 고용노동사회국 등에 산재되어 있던 웰빙, 포용 성장, 불평등 관련 부서를 일원화하여 2022년 11월에 전담조직으로 신설되었다. 현재 1개국 6개팀(웰빙데이터 및 정책 분석, 웰빙 모델링 및 고급 분석, 불평등, 아동웰빙, SDG, 홍보)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업무로 국가별 웰빙, 불평등 정도를 다각도로 조사·측정하고, UN SDG 달성 정도를 평가, 포용 성장과 여성·아동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OECD 대한민국대표부 내부자료, 2023).

하여 아동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만 아직도 아동 데이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OECD 고용노동사회국은 아동 데이터 수집의 필요성을 2000년대 말부터 인식하여 이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초기에는 「Doing Better for Children(OECD, 2009)」, 「An evaluation of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Richardson & Ali, 2014)」 등을 통해 취약 계층 아동에 초점을 두는 자료를 수집하였다. 한편,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발달하고 아동을 둘러싼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의 사회정서적 측면을 포함한 “아동 웰빙”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아동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한 현실에서 아동 웰빙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OECD는 「How’s Life for Children(OECD, 2015b)」, 「Child Well-being Data Portal(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 2024a)」, 「How’s Life? 2020 Measuring Well-Being(OECD, 2020b)」을 통해 아동 웰빙을 측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OECD 연구에서는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아동 데이터에 어떠한 점이 부족한지, 아동 데이터 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지적하였다. 이러한 OECD 연구들은 단지 아동 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향상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아동 웰빙 증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더 나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 2.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sup>17)</sup>

OECD는 아동 웰빙 관련 문헌과 OECD가 추진해 온 아동 웰빙 측정 접근 방식에 기반하여 아동 삶의 어떤 측면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아동 웰빙 체계와 측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아동 웰빙과 결정 요인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아동 웰빙 체계는 “열망적(aspirational)”인 체계로서 현재 가능한 데이터 상황에 제약을 받지 않고 아동 웰빙을 어떻게 이상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였으며, 아동 웰빙 데이터 수집을 위한 중기 및 장기 로드맵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OECD WISE 센터는 2021년도에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를 통해 아동 웰빙을 개념화하고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를 개발하였다.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는 아동 웰빙이 아동 삶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으며, 아동이 현재 긍정적이고 좋은 아동을 보내며 미래를 위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아동 웰빙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아동이 성장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반영하여(Bronfenbrenner, 1979),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는 다층적 혹은 생태학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여 아동의 웰빙 결과와 함께 잠재적인 동인과 영향력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수준 A는 아동의 웰빙 결과이다. 아동 웰빙 결과는 체계의 중심부를 구성하며 다양한 동인과 영향력이 이것을 둘러싸고 있다. 아동 웰빙 결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은 내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상호 작용하는

17) 본 절의 내용은 OECD, (2024c), Child well-being drivers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특징이 있다. 첫째, 물질적 결과이다. 이것은 아동의 물질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는데,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재화·서비스·활동에 대한 접근, 기본적인 필수재에 대한 접근, 기타 아동 성장에 중요한 재화 및 활동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다. 둘째, 신체적·건강 결과이다. 아동의 신체적 보건 상태, 신체적 발달, 아동의 건강 상태, 질병, 상해, 신체적 기능 및 발달 상태 등을 포함한다. 셋째, 사회적·정서적·문화적 결과이다. 아동의 행동, 감정, 생각, 느낌 등 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연계된 성과이다. 아동 웰빙의 주관적인 측면, 성적·젠더적·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기본적인 정서적 안전, 안전감, 소속감, 삶의 만족도, 아동의 사회정서적 기술, 정신적 건강 상태, 심리적 웰빙을 포함한다. 넷째, 아동의 인지적 및 교육 결과이다. 아동의 학습, 지식, 인지적 기술, 능력 개발, 인지적 발달, 교육 진행 정도, 교육 성취, 학습 만족도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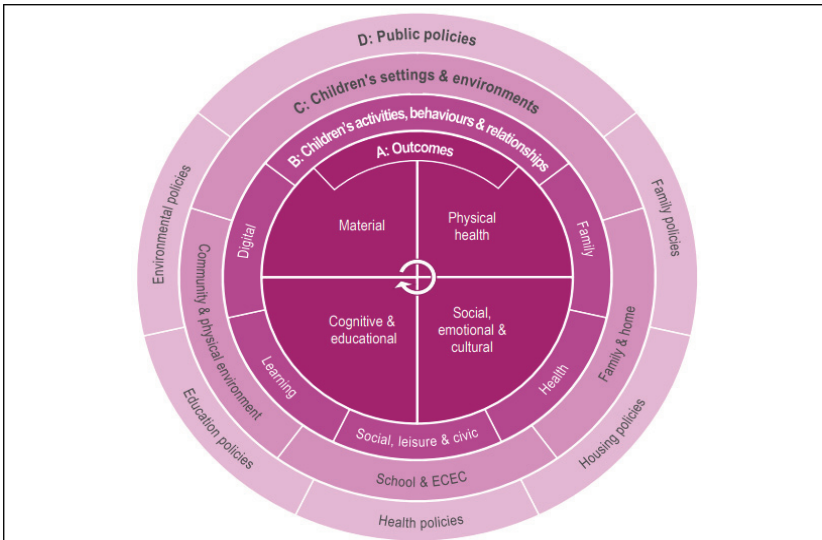
수준 B, C, D는 아동 웰빙 결과와 관련된 동인과 영향 요인들이다. 수준 B는 아동 단위의 영향력이다. 아동 웰빙 결과에 기여하는 아동이 하는 행동, 아동이 관여하는 행동, 아동의 태도, 관계 등을 포함한다. 수준 C는 환경 수준의 영향력이다. 아동 웰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환경적인 특징으로서 기회를 형성하고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다. 가족 및 집안 환경, 학교 및 보육 시설 환경, 광범위한 물리적 및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한다. 수준 D는 아동 웰빙에 영향을 주는 공공 정책으로서 가족 정책, 주거 정책, 보건 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층적인 아동 웰빙 측정 체계는 아동의 활동, 관계, 환경, 기타 잠재적인 영향력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하여 이러한 잠재적인 동인들이 아동 웰빙 결과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아동 웰빙 측정은 아동의 연령에 민감할 수 있어 아동 웰빙 개념과 측정에서 아동의 연령과 발달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아동 자신의 목소리를 강조하여 아동의 시각



이 웰빙 측정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아동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이슈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자기 보고 혹은 주관적으로 측정된 아동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동 웰빙의 평균적인 수준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집단 간의 불평등과 격차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이 직면하는 필요와 도전에 유연하고 반응적이어야 하며 다양한 배경과 차이, 취약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부록 그림 1] OECD 아동 웰빙 측정 체계



출처: “Measuring What Matters for Child Well-being and Policies,” OECD, 2021a, p. 17. 저작권 2021. OECD.

### 3.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sup>18)</sup>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은 아동 웰빙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OECD 데이터 허브이다. 동 데이터는 현존하는 OECD 데이터 베이스와 주요 국제 아동 조사, 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최근 자료를 입수하여 자료를 구성하고 있다. 현재 아동 웰빙 결과와 아동 웰빙 동인에 대한 약 200여 개의 비교 가능한 측정치를 포함하고 있다.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의 각 영역별로 포함된 지표들은 다음과 같다.

〈부록 표 1〉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종분류	소분류	지표명
Material out-comes	Food, clothing, and basic necessities	Children experiencing food deprivation
		Children who report often feeling hungry when arriving at school
		Children experiencing clothing deprivation
	Housing and housing quality	Children experiencing housing overcrowding
		Children in households without basic sanitation facilities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poor housing conditions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severe housing deprivation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 home they live in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 home they live in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 home they live in
	Learning materials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books for school

18) 본 절의 주요 내용은 OECD Child Well-being data portal(2024a)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and re-sources	work at home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 desk and place to study at home (PISA)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 study desk at home (TIMSS/PIRLS)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the money for school trips
	Social, leisure and recreation materials and re-sources	Children experiencing social activity deprivation
		Children experiencing leisure activity deprivation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 computer or tablet at home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n internet connection at home (PISA)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n internet connection at home (TIMSS/PIRLS)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equipment for sports and hobbies
	Overall material well-being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material belongings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material belongings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ir material belongings
		Children experiencing child-specific material deprivation
	Physical health out-comes	Birth out-comes
Low-weight birth rates		
Infant mortality rates		
Physical development and body image		Children who are overweight or obese
		Children who are underweight
		Children's self-reported body image
		Children who report thinking their body is "about right"
		Children who report thinking their body is "much too" thin or fat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 way they look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 way they look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 way they look
Physical health statu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communicable, maternal, neonatal, and/or nutritional disease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nutritional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deficiencie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non-communicable diseases	
		Children and young people experiencing injurie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oral disorder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sensory impairment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blindness or vision impairment condition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hearing loss	
		Children living with limitations in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s	
		Children with unmet health care needs	
		Children with unmet needs for medical attention	
	Children with unmet needs for dental attention		
	Overall health and physical well-being	Children's self-rated health	
		Children who rate their own health as "excellent"	
		Children who rate their own health as "fair" or "poor"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health	
		Children reporting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health	
		Children reporting low satisfaction with their health	
	Cognitive development and education outcomes	Cognitive skills and abilities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and low achievers on the OECD PISA assessments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in at least one of the three core PISA subjects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in all three core PISA subjects
Children who are low achievers in at least one of the three core PISA subjects			
Children who are low achievers in all three core PISA subjects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and low achievers on the PIRLS reading assessment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on the PIRLS reading assessment			
Children who are low achievers on the PIRLS reading assessment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and low achievers on the TIMSS mathematics and science assessments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in at least one of the two TIMSS assessment subjects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who are top performers in both of the two TIMSS assessment subjects	
		Children who are low achievers in at least one of the two TIMSS assessment subjects	
		Children who are low achievers in both of the two TIMSS assessment subjects	
Learning skills and meta-cognition		Children with high and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Children with high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Children with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understanding and remembering	
		Children with high and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summarising	
		Children with high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summarising	
		Children with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summarising	
		Children with high and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assessing credibility	
		Children with high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assessing credibility	
		Children with low relative knowledge of strategies for assessing credibility	
	Education progression and attainment		Children who report having ever repeated a school grade
			Children and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Satisfaction with and confidence in abilities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learning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 things they have learned in school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 things they have learned in school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student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student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student	
		Children who express high and low relative self-perceived competence in reading	
		Children who express high relative self-perceived competence in reading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who express low relative self-perceived competence in reading		
		Children who are and are not confident in reading		
		Children who are very confident in reading		
		Children who are not confident in reading		
		Children who are and are not confident in mathematics		
		Children who are very confident in mathematics		
		Children who are not confident in mathematics		
		Children who are and are not confident in science		
		Children who are very confident in science		
		Children who are not confident in science		
		Safety, emotional security, and basic emotional need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safe at home
				Children who report feeling cared for by their family
				Children who report feeling supported by their family
				Children who report feeling high overall support from their family
Children who report feeling low overall support from their family				
Social, emotional and cultural outcomes	Socio-emotional skills			Children who expres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can usually find a way out of difficult situations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ir self-belief helps them through hard times
				Children who express fear of failure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when they fail, they worry what others will think of them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when they fail, they worry they do not have enough talent		
		Children who express motivation to master tasks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find hard work satisfying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enjoy improving on past performance		
		Children who express a growth mindset		
Mental health status and disorders		Children who report multiple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epressive disorder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nxiety disorders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conduct disorder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developmental intellectual disabilities (ID)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SD)	
		Children and young people with eating disorders	
		Children and young people engaging in self-harm	
		Child and young person deaths from intentional self-harm	
	Affects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feeling low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feeling irritable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feeling nervou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happy
			Children who report always feeling happy
			Children who report rarely or never feeling happy
			Children who report feeling sad
			Children who report always feeling sad
	Overall life satisfaction and sense of meaning in life		Children who report rarely or never feeling sad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whole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whole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whole
			Children who express a sense of meaning in life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ir life has clear meaning or purpose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have a clear sense of what gives meaning to their life

출처: "Child well-being outcomes," OECD, 2024b,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well-being-outcomes0.html> (2024. 7. 15. 인출)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저작권 2024. OECD.

〈부록 표 2〉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웰빙 동인 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Family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Activities at home and with parents and family	Time spent by parents on child care/supervision and on teaching, reading and playing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having fun” with family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early literacy and numeracy activities with parents when young		
		Children who often participated in early literacy and numeracy activities with parents when young		
		Children who rarely participated in early literacy and numeracy activities with parents when young		
		Children who report eating family meals together every day		
	Child-parent and child-family relationships	Child-parent and child-family relationships	Children who report finding it easy and finding it difficult to talk to their parents	
			Children who report finding it easy to talk to their parents	
			Children who report finding it difficult to talk to their parent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listened to by parent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like they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t home	
			Children who report emotional support from their parents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their parents support their education efforts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their parents support their education efforts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their parents support them when facing difficulties at school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their parents support them when facing difficulties at school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their parents encourage them to be confident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their parents encourage them to be confident	
		Family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Family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 people they live with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 people they live with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 people they live with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Health behaviours and activities	Eating behaviours	Children who report daily sweets and soft drink consumption
	Protective health behaviours	Children who report difficulties sleeping
		Children who report often feeling tired when arriving at school
		Children who report daily exercise and rarely engaging in exercise
		Children who report doing the WHO-recommended daily exercise
		Children who report rarely engaging in exercise
		Children who report regular vigorous exercise outside school
	Children who report regular teeth brushing	
	Risky health behaviours	Children who report recent tobacco use
		Children who report lifetime drunkenness
		Children who report recent drunkenness
Social, leisure and civic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Social and leisure activities	Children who report playing or spending time outside
	Friendships, peer relationships, and social support	Children who report often having been involved in physical fighting
		Children who believe that they have enough friends
		Children who believe that their friends are nice to them
		Children who believe that their friends will support them if they have a problem
		Children who report feeling supported by their friend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high overall support from their friend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low overall support from their friends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their friends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friends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ir friends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ivic and voluntary activities, and community relations	Children who report engaging in voluntary work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how they are listened to by adults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how they are listened to by adults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how they are listened to by adults
	Satisfaction with time use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satisfaction with how they use their time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how they use their time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how they use their time		
Learning activities, attitudes, behaviours and relationships	School and ECEC participation and attendance	Children participa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by age group
		0- to 2-year-olds participa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3- to 5-year-olds participa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hildren who report having recently skipped a whole day of school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being absent from school
		Children who report having changed schools two or more times
	Connectivity and belonging at school	Children who report having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t school
		Children who feel like they belong at school (TIMSS/PIRLS)
		Children who feel like they belong at school (PISA)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feel like they belong at school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feel lonely at school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hey feel like an outsider at school
	Child-teacher and child-classmate relationships	Children who report that their teachers listen to them
		Children who report that their teachers are fair to them
Children who report experiencing bullying at school (PISA)		
Children who report experiencing bullying by other students (TIMSS/PIRLS)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who report experiencing bullying by other students at least monthly	
		Children who report experiencing bullying by other students at least weekly	
	Learning motivation and aspirations	Children who express high and low relative learning goals	
		Children who express high relative learning goals	
		Children who express low relative learning goals	
		Children who believe in the value of school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is important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will help them get a good job	
		Children who agree (or strongly agree) that trying hard at school will help them get into a good university	
		Children who expect to complete tertiary education	
		Children who expect a high-skill career	
		Children who are uncertain about their career expectations	
	Children whose parents expect them to complete tertiary education		
	Home and out-of-school learning activities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reading for enjoyment (PIRLS)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reading for enjoyment (PISA)	
Digital activities, attitudes and behaviours	Digital activities and behaviours	Children who report heavy internet use	
		Children who report using digital devices for leisure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playing one-player or collaborative online games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participating in social networks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browsing the Internet for fun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reading news on the Internet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obtaining practical information from the Internet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who report using digital devices for schoolwork outside of school every day or almost every day	
		Children who report "forgetting" about time when using digital devices	
		Children who report frequent and intensive online communication	
		Children who report a strong preference for online (rather than face-to-face) communication	
		Children who report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Children who report having been a victim of cyber-bullying	
		Children who report having cyber-bullied others	
	Digital at-titudes		Children who believe that the Internet is a useful resource for obtaining information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the Internet is a useful resource for obtaining information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the Internet is a useful resource for obtaining information
			Children who believe that social networks are very useful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social networks are very useful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social networks are very useful
			Children who like using digital devices
			Children who strongly agree that they like using digital devices
			Children who disagree (or strongly disagree) that they like using digital device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online risks	
			Children who report being taught the implications of making information public online
			Children who report being taught how to tell if information is subjective or biased
			Children who report being taught how to detect phishing or spam emails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Family and home environment	Family financial resources and work arrangements	Children living in relative income poverty
		Low wealth and high debt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Liquid wealth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Net wealth pover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Financial vulnerabili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Over-indebted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difficulties making ends meet
		Children in households with no capacity to face unexpected expenses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arrears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housing cost overburden
		Children who report worrying about family finances
		Children who report regularly worrying about family finances
		Children who report never worrying about family finances
	Children in working and in jobless households	
	Family living and custody arrangements	Children living with two, one or no parents
		Children who live with step-parents
	Family physical and mental health	Children living with parents with poor general health
		Children living with parents who report strong limitations in activities due to health
	School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environment Community and physical environment	School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limate
Children in schools that report “moderate to severe” problems with school discipline		
Children in schools that report “hardly any” problems with school discipline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relative perceived enthusiasm from their teachers		
Children who report high relative perceived enthusiasm from their teachers		
Children who report low relative perceived enthusiasm from their teachers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hildren who report low relative perceived support from their teachers
		Children who report positive and negative relative school disciplinary climates
		Children who report a positive relative school disciplinary climate
		Children who report a negative relative school disciplinary climate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operation
		Children who report high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operation
		Children who report low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operation
		Children who report high and low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mpetition
		Children who report high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mpetition
		Children who report low relative perceived student competition
		Children in schools with high relative staff shortages
		Children in schools with high relative educational material shortages
		Children whose parents agree that their child's school promotes high academic standards
	School- and teacher-parent relationships	
		Children whose parents agree that their child's school keeps them well informed on their child's education
School and ECEC-provided material supports and activities		Children in schools that offer creative extra-curricular activities
Local play and leisure services/facilities		Children who believe that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in their local area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Crime and violence	Children in households that report crime and violence in their local area
		Children who report that they feel safe in their local area
	Noise, pollution and air and water quality	Children in households that report problems with noise
		Children in households that report problems with pollution
		Population exposure to fine particulate (PM2.5) concentrations exceeding WHO guidelines
		Child morbidity from exposure to air pollution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lost to Ambient Particulate Matter for children under age 15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lost to household air pollution for children under age 15
		Child morbidity from exposure to unsafe water and sanitation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lost to unsafe water for children under age 15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lost to unsafe sanitation for children under age 15
		Disability-adjusted life years (DALYs) lost due to no access to handwashing facilities, for children under age 15
		Satisfaction with the local area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 area where they live	
	Children who report low satisfaction with the area where they live	

출처: “Child well-being drivers,” OECD, 2024c,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well-being-drivers.html> (2024. 7. 15. 인출)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저작권 2024. OECD.

〈부록 표 3〉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의 아동 정책 지표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Family policies	General public expenditure on families	Public spending on family policies
	Family financial support policies	Impact of tax and transfer policies on 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Adequacy of Guaranteed Minimum Income (GMI) benefits for families
	Parental leave policies	Paid leave available to mothers
Paid leave reserved for fathers		
Housing and community policies	General public expenditure on housing and communities	Government spending o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Government spending on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Housing support policies	Government spending on housing support
		Rent allowance payment rates
Health policies	Public spending on health	
	Children vaccinated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Children vaccinated for Measles	
Education policies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regulations and policies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Typical net child care costs for parents using centre-based child care
		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hild-to-staff ratio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development services
		Child-to-staff ratios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Minimum qualifications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rofessionals	
	Education regulations and policies	Public spending on primary,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Public spending on ancillary education services in primary, secondary, and post-secondary non-tertiary education		



중분류	소분류	지표명
		Student-to-staff ratios in primary and secondary education
		Student-to-staff ratios in primary education
		Student-to-staff ratios in secondary education
	Environmental policies	Government spending on environment protection

출처: “Child policies,” OECD, 2024b, <https://www.oecd.org/en/data/datasets/child-policies.html> (2024. 7. 15. 인출) 내용을 저자가 정리함. 저작권 2024. OECD.

#### 4. OECD 아동 웰빙 계기판

OECD 아동 웰빙 계기판(OECD Child well-being dashboard)은 공공 정책 입안자가 각 국가의 아동 웰빙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다. OECD 아동 웰빙 데이터 포털을 기반으로 중요한 지표들을 선택하여 구성하였으며, 아동 웰빙 결과에 대한 20개의 국제 비교 가능한 지표들을 포함하여 아동 웰빙의 동인과 공공 정책에 대한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 표 4〉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소분류	지표명	데이터	한국 자료
Material outcomes	Children experiencing food deprivation	EU-SILC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in households experiencing severe housing deprivation	EU-SILC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experiencing child-specific material deprivation	EU-SILC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not having an internet connection at home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소분류	지표명	데이터	한국 자료
Physical Health Outcomes	Infant mortality rates	OECD Health Statistics	○
	Children who are overweight or obese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doing the WHO recommended daily exercise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ate their own health as “fair” or “poor”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living with limitation in activities due to health problems	EU-SILC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ognitive and educational outcomes	Children around age 10 who are top performers in reading	PIRLS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around age 10 who are top performers in math/science	TIMSS <sup>5)</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age 15 who are top performers in reading, maths/science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expect to complete tertiary education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and young people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NEET)	OECD Education Database	×
Social and emotional outcomes	Children who report feeling high support from their family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express self-efficacy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express a growth mindset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multiple subjective health complaints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believe their life has meaning and purpose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high satisfaction with their life as a whole	PISA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주: 1)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2)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3)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4) Progress in International Reading Literacy Study  
 5)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부록 표 5〉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동인 지표

소분류	지표명	데이터	한국 자료
Home and family life	Children living in relative income poverty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Financial vulnerability rates in households with children	WDD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often participated in early learning activities with parents when young	TIMSS <sup>2)</sup> 를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ith report finding ot difficult to talk to their parents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that their parents encourage them to be confident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Life at school and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Children participat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Family database	○
	Children in school with high staff shortages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a poor relative disciplinary climate in their classroom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experiencing bullying at school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feel like they belong at school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Social life and life in the community	Children who feel that they have enough friends	ISCWeB <sup>5)</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feel supported by their friends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engaging in voluntary work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ith believe there are enough places to play in their area	ISCWeB <sup>5)</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in households that report crime and violence in their local area	EU-SILC <sup>6)</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Life online	Children who report problematic social media use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report having been a victim of cyber-bullying	WHO HBSC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Children who firmly believe the internet is a great resource for information	PISA <sup>4)</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주: 1) OECD Wealth Distribution Database

2)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3)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4) OECD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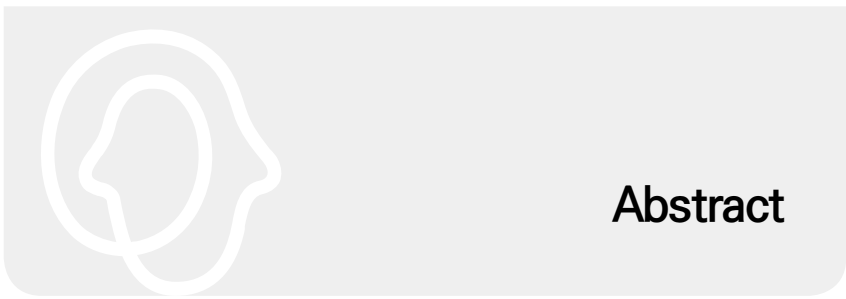
5) Children's Worlds: International Survey of Children's Well-being

6) EU-Statistics on Income and Living Condition

〈부록 표 6〉 OECD 아동 웰빙 계기판의 아동 웰빙 결과 지표

소분류	지표명	데이터	한국 자료
Family policy	Public spending on family policies	SOCX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Impact of tax and transfer policies on child relative income poverty	IDD <sup>2)</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Adequacy of Guranteed Minimum Income(GMI) benefits for families	OECD Tax-Benefit Data Portal	○
	Paid leave available to mothers	OECD Family database	○
	Paid leave reserved for fathers	OECD Family database	○
Housing and community policies	Government spending in 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NAD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Government spending on 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NAD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Government spending on housing support	NAD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Health policies	Government/compulsory insurances spending on health	OECD Health Statistics	○
	Children vaccinated for diphtheria, tetanus and pertussis	OECD Health Statistics	○
	Children vaccinated for measles	OECD Health Statistics	○
Education and ECEC polocios	Public spending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SOCX <sup>1)</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Typical net childcare costs for parents using centre-based child care	OECD Tax-Benefit Data Portal	○
	Child to staff ratio in pre-primary education services	OECD Education Database	○
	Public spending on education	OECD Education Database	○
	Public spending on ancillary education services	OECD Education Database	○
	Student-to-staff ratio in secondary education	OECD Education Database	○
Environmental policies	Government spending on environment protection	NAD <sup>3)</sup> 이용하여 OECD가 계산함	○

주: 1)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3) OECD National Accounts Database



## Abstract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OECD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Project Head: Shin, Yoon-Jeong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OECD initiative for creating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by collecting domestic data based on the concept and monitoring indicators of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identifying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conducting international comparisons, and assessing Korea's position. This study introduces available domestic data sources, explores ways to improve the quality of domestic data for better cross-country comparisons, and provide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faced by children and address the serious issues Korea faces concerning low birth rates and regional population decline. As policy alternatives, this study recommends: creating a child-friendly environment from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developing local data to support the creation of child-friendly neighbourhoods, promoting the OECD Child-Friendly Neighbourhood pilot project, fost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tablish an OECD Child-Friendly Neighbourhood monitoring system, and using spati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for data collection.

Key words : Child, Well-being, Neighbourhood, Low fertility, Population Change, Child-Friendly City

---

Co-Researchers: Chang, Insu · Lim, Jiyoung · Kim, Hyunjin